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섬기는 정성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이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1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관계없이 최고 30만원씩 드립니다.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6월 25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32 호

나는 이나라 불교도의 한 사람으로 어린 | 들에게 참회를 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 불교도 전체의 뉘우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상 종교들이 가장 힘쓰는 것이 어린이 포교다. 어릴때부터 종교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것이 종교발전에 가장 지름길이라는 논리이고 가장 많은 투자를 여기에 쏟고있다.

불교는 우리 역사와 문화와 민족과 생활을 배경으로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점에 소홀하였다. 아동잡지 하나를 끌어가지 못한 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다. 불교가 어린이에게 베푼 것은 참으로 미미하다.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신 현 득

그러고서도 어린이에게 참회를 않으랴!

우리는 부처님이 몸소 아동교육에 얼마나 애쓰셨던가를 알아야 한다. 부처님은 세계 최초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셨다.

사미계는 교육의 덕목이요, 교육과정이었다. 부처님은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당신의 혈육인 라훌라에게 사미계를 설하셨고, 담임선생님으로 아란을 임명하여 그 덕목을 마음에 배도록 가르치게 하셨다.

불교아동잡지와 뉘우침

생명을 아끼라고 가르치셨다.

남의 것 탐내지 말라, 건전하지 못한 놀이를 말라고 가르치셨다.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 군것질 말고 때맞춰 식사를 하라, 값진 물건으로 몸을 꾸미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불설 사미10계는 오늘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훈화 그대로다.

불제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했던가? 부처님 법이 보배롭다면 보배로운 유산을 먼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것 아닌가.

아비가 못나서 자식을 잃는 격이 되고 있지 않는지, 내 가정 내 이웃을 돌아보자.

불교가 제대로 되려면 어린이 교화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서야 불교가 살고, 불교가 살아야 우리 문화가 살고, 우리 문화가 살아야 우리 자손이 한국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할 게 아닌가.

이 무서운 현실을 두고 우리는 어린이들 앞에서 뉘우쳐야 한다. 불교가 살길이 그것 뿐이다.

〈아동문학가〉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구독 · 광고 문의 (02)737-8881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해인사 길목에 또 골프장

동아스포츠 사업 추진…주민·환경단체 강력 반발



해인사 주변 골프장 계획

가야산 해인골프장 허가여부를 둘러싼 상고심(대법원) 최종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해인사인근에 또하나의 골프장 건설허가를 요청하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돼 해인사와 주민 및 환경단체가 반발하며 이달 말경 대대적인 반대집회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합천군에 따르면 (주)동아스포츠(대표 박문수)는 해인사에서 5km 떨어진 경남 합천군 가야면 야천리 북두산 26만7천여평의부지에 회원용 18홀과 일반용 9홀 등 총27홀 규모의 동아컨트리클럽(동아CC 일명 늘밭골프장) 건설허가를 요청하는 사업계획서를 10일 군에 제출했다.

해인사를 비롯 가야청년협의회 가야영농후계자회 해인보리수불교청년회 등으로 구성된 동아골프장 건설반대 투쟁위원회(공동위원장 황현석외 5인)는 "골프장건설 예정지는 지대가 높고 주민거주지와 가까워 식수오염이나 토사유출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투쟁위는 12일 강석정 합천군수를 방문하여 사업계획서를 반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경북대 환경농촌대는 7월2일부터 9일까지 해인골프장 건설로 피해를 입게되는 덕곡면으로 현장활동을 가기로 결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주)동아스포츠는 94년부터 이곳에 골프장건설을 추진해오던 (주)삼창산업개발(서울 마포구 도화동 173)이 골프장건설을 전담시키기 위해 지난해 10월 설립한 회사다. 최근 골프장설립 신청이후 상호 삼창스포츠로 변경했다.

〈합천=이윤호 기자〉

"인각사 수몰 안된다"

건교부, 은해사에 회신

인각사가 건설교통부의 군위댐건설 계획안변경으로 수몰위기에서 벗어났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은해사에 보낸 공문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해 인각사가 수몰되지 않도록 군위댐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해사주지 법타스님의 인각사 수몰 반대 청원에 대한 회신에서 건교부는 "오는 99년 댐건설 기초계획을 확정, 2000년쯤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인각사가 수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가 문화재관리국, 은해사 등의 잇따른 인각사 수몰 반대요청에 대해 보존할 것을 공식적으로 약속함에 따라 인각사는 민족정신의 산 교육도량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지 131호 1면 참조〉

"훈할머니 불심으로 이긴 50여년"

조계종, 혜진스님 파견…반야심경 봉독등 위로

18세 꽃다운 나이에 일제에 의해 캄보디아로 끌려가 50여년의 세월을 '망각의 늪'에서 살아온 훈할머니(73). 그동안 성도 이름도 모두 잊었지만 오직 불심(佛心) 하나로 훈할머니는 그 모진세월을 이겨냈다.

위안부 출신 김복동(72)할머니와 함께 18일 훈할머니를 직접 만나고 20일 귀국한 나눔의 집 원장 혜진스님은 "참으로 순박하고 인정많은 전형적인 시골할머니의 모습 그대로였다"고 훈할머니에 대한 인상을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특명으로 급파됐던 혜진스님은 "훈할머니가 절에 대한 기억을 특히 많이 갖고 있었다"며 "훈할머니를 위로하는 뜻에서 반야심경과 천수경, 관세음보살 정근을 봉독해 주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훈할머니는 염불소리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고 "스님의 옷이나 걸 모습만은 어디선가 본 듯하다"고 했다고 한다.

또한 혜진스님은 "훈할머니의 모습이나 단편적인 기억들을 통해 한국인이라는 심증은 있었지만 훈할머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진정으로 훈할머니를 위한 일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눔의 집의 김순덕(78)할머니는 "훈할머니가 아픔을 안고 긴 세월을 타국에서 산것을 생각하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훈할머니가 18일 오후 프놈펜에 도착한 혜진스님을 만나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한국일보 사진 제공〉

장성군, 백양사에 사과

관정개발등 취소…납골당지원 긍정검토

무려 반동안 계속된 백양사와 장성군의 갈등이 장성군수의 사과문 전달로 해소됐다.

장성군(군수 김흥식)은 13일 백양사에 "귀 사찰과 주지스님의 명예에 누를 끼치는 행위를 한데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부터는 군민의 뜻과 백양사의 수행도량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나가겠다"는 사과문을 김용준 부군수와 실과장들을 통해 전달했다.

〈관련 인터뷰 4면〉

이와함께 장성군은 운문암 등산로 개설과 백양사주변 관정개발 계획을 백지화 하고 납골당 지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양사(주지 지선)는 14일 토진스님 법선스님이 김흥식 장성군수와 만나 사과의 뜻을 거듭 확인하고 입원회의를 거쳐 "장성군의 발표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확정한뒤 고불총림 대책회의(위원장 성오스님)를 해체했다.

부산 반야라이온스 25일 창립 '자비봉사'

부산반야라이온스클럽(회장 김종호)은 25일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범어사 주지 성오스님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김종호회장은 "부처님의 자비를 배품고 지역사회 봉사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108배 行禪등반 급류타기 동굴탐사…

청소년 국토사랑 대탐험

현대불교신문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심신을 길러주고 우리 국토의 빼어남을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부처님과 함께하는 국토사랑 대탐험' 행사를 펼칩니다. 한국탐험학교의 전문가 지도로 자연 친화적 레포츠와 참선교육을 병행해, 자연과 자아의 원초적 동질성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매일 108배 행선(行禪)등반 급류타기 원시동굴탐험 등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자신감과 진취성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권유와 동참바랍니다.

■일 정(2박3일)
◇1차: 7월 21일~23일
◇2차: 7월 26일~28일
◇3차: 8월 4일~6일
■참가대상: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중·고등학생
※ 각 차수별로 40명씩 모집
■장 소: 월정사 상원사 적멸보궁 정선 영월 미탄 천연동굴 용평
■참 가 비: 13만원 (숙식 교통 강습 티셔츠 보험료 등 기타일체 포함)
※ 단, 현대불교 구독자및 가족은 11만원으로 할인(16%)해 드립니다.
■접 수: 현대불교신문·한국탐험학교 (02)738-0997
■후 원: 조계종포교원 수선회 덕동청소년회관 불교방송 불교TV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 한국탐험학교

원급전액 복지단체 보시 19면
DMZ 문화재 훼손 '무방비' 13면
호국영령 안식처 양양 영혈사 9면



現代 창립50주년

국내 최초
차안에서 보는 내 차의 주행정보-
카 네비게이션 시스템 탄생

전국 어디서나 자기차량의 현재위치 표시, 진행방향 확인은 물론 관공서, 호텔, 병원, 골게이트 등의 위치, 주소, 전화번호등 상세한 정보까지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한 도심도, 막막한 초행길도 -
이제, 카 네비게이션 시스템 현대 HNS-2000과 함께 달려보십시오.

현대 HNS-2000 구성품

현대HNS-2000주요기능
· 현재위치 표시기능 · 현재지역 정보 및 서비스 기능
· 지도 축소/확대 기능 · 경유지 및 코스설정기능

Car Navigation System이란?
GPS위성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신, 차량에 설치된 컴퓨터내의 화면의 지도에 자기차량의 위치, 방향표시 및 각종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항법시스템입니다.

전국 대리점 · 전국 A/S 지정점

현대전자
멀티미디어의 뉴 프론티어
HYUNDAI

사 설

가야산서 골프 안된다

골프는 작은 키의 초원이 발달한 곳에서 막대기 몇개 꽂아놓고 즐기던 단순한 놀이였다.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처럼 초원이 넓게 펼쳐진 곳에서는 일부러 잔디를 심을 필요도 없고, 독한 농약을 하루 걸러 칠 필요도 없다. 놀이란 그렇게 환경과 여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고 평지가 적으며 물이 귀한 곳에서 골프는 적절치 않은 놀이이다.

해인사 인근에 또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나서서 물의를 빚고 있다. (주)동아스포츠가 가야산 인근의 임야와 전답 88만㎡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면서 가야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곳은 해인사로부터 6㎞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그동안 문제가 된 가야개발의 골프장 부지의 더욱 지척에 위치해 있다. 이에 지방의 환경단체와 해인사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네들은 눈도 없고 귀도 없는 모양이다. 가야개발은 일찌감치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시행허가를 받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았으며, 경북지사로부터 최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놓았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불교계, 그리고 1백만이 넘는 서명에서 확인된 전국민적 저항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관계기관이 애초에 허가를 내주지 않았더라면 토지매입과 사업추진에 돈을 들이지 않고 일찍 발을 뺄 수 있었을 것이다. 동아스포츠도 이 사례를 거울 삼아 동일한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

가야산의 골프장을 전국민이 반대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무분별한 관정이 식수원을 고갈시킬 것이고, 맹독성의 농약은 땅과 하천은 물론, 바람을 타고 나무와 사람을 위협하며, 세계의 문화유산인 장경판을 거덜낼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골프장 사업이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강변한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일 뿐이다. 인간세(人間世)는 법 이전의 생명에 대한 고려, 이웃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유지된다. 법은 국부적 대응이며, 또 변화하는 상황을 유연하게 따라잡지 못한다. 골프장을 둘러싼 정부부처간의 이견도 그래서 생겨난 것이다. 생명의 전체성에 대한 사회적 자각과 합의는 최근의 것이다. 현대문명의 발달과 함께 증가한 엔트로피, 그리고 가속화된 환경의 파괴가 인류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이 자각은 아직 법의 체계 속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아직도 개발과 진보, 이윤과 발전이라는 낡은 근대적 인식과 관행이다.

무지한 중생들은 환경을 먼 나라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 흡사 우물 속에 매달린 사람이 한 방울의 꿀에 취해, 머리 위에서 쥐가 자신의 생명줄을 쏠고 있는 것을 모르듯이. 가야산이 죽고, 장경각이 황폐해지면 골프장 건설자나 우리나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 생명의 이치는 개체와 개체가 분리되지 않는다. 돌 하나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내가 없으면 너도 죽는 것이 연기법(緣起法)의 실상이다.

6월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었다. 여기서 환경의 중요성과 우리의 각오를 다지는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선언'이 채택되었다. 경제적 부에 자만하지 않고 문화와 환경을 생각하며 인류의 미래를 선도해 가는 책임과 자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실제를 돌아보면 부끄럽기 그지없다. 세계의 문화유산을 대하는 의식수준하며, 환경에 대한 인식에 이르기까지 이렇게까지 성글고 막되먹을 수가 있을까 싶다. 닫힌 인식을 계몽하는 한편,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 나가는데 모두 힘을 합쳐야겠다.

열 린 마 당

세계화시대를 실감하듯 한국불교의 국제교류 활동이 크게 늘었다. 최근 조계종이 캄보디아와 공식교류를 시작한 한편 국제불교 행사가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국제불교교류 현황과 과제, 방향 등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한국불교 해외교류

"인권 · 환경등 인류현안 공동대처"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

국제불교교류는 크게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세계불교승가회(WBSC), 한 · 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등 공식기구를 통한 교류와 개별 국가간의 행사나 학술세미나 등 정기 · 부정기적 교류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교류는 상호간의 대화를 통해 불교발전의 공통분모를 찾고 시대에 걸맞는 역할을 모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20여년간 지속돼온 한 · 일불교교류를 포함해 인도, 스리랑카, 몽고, 태국, 미얀마 등과의 교류를 통해 세계불교 속에서의 우리불교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우리의 불교와 문화를 소상히 알리는 성과를 거둬왔다. 또 이들 나라들의 불교는 물론 사회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닫혀있던 중국이 한국, 일본과의 불교교류를 통해 2천년 불교역사를 일깨우고 있고, 불교성지인 네팔 룸비니 개발도 불교국가간의 상호교류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등의 성과를 거둬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불교가 21세기를 탄탄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세계 어느 종교보다도 불교의 우위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세계적 지도자를 많이 배출해내야 한다. 또 인권, 전쟁, 환경문제 등 세계적 현안에 대한 불교의 통일된 이념을 제시함으로써 불교정신이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임을 일깨워야 한다. 이는 오직 세계 불교국가들간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해외불교교류는 그것이 국가적 차원이든, 사찰단위 차원이든간에 미래사회를 이끌기 위한 선행조건이 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불심나누며 경제교류 · 정치협조

류진수 〈불교부산방송 사장 · 인도 명예영사〉

한국불교계의 해외교류에 대한 관심은 보다 폭넓은 전법시대를 열 뿐만 아니라 불교교류를 통해 정치 · 경제 · 외교적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최근 대승불교권 이외에도 남방불교계까지 폭넓은 교류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이러한 해외교류는 단순히 양국의 종교간 교류뿐 아니라 경제적인 원조나 협조, 정치적인 이질감의 극복 등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일례로 스리랑카와의 수교에 양국 불교계의 역할이 적지 않았음은 외교사에 남을 일로 기록된다. 이처럼 종교간의 교류에 정치적 경제적 교류를 함께 펴나갈 수 있다면 보다 내실있는 교류를 확보한 셈이다.

인도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현재 부산에도 인도명예영사관이 설치된 상태이며 이로써 부산 경남의 불자들은 물론 기업인들의 인도비자 발급 업무가 한결 수월해졌다. 인도측은 부산상공회의소를 통해 가죽, 피혁, 섬유 등을 제조하는 한국 기술과 인도의 인적자원을 합작하는 교류를 추진중이다. 종교적인 교류에서 경제적인 투자와 협조를 도출해낸 것이다. 이처럼 불교를 통한 국제교류는 단순히 종교적인 측면을 넘어 정치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문화나 정치적 차이마저 녹여낼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종교적인 교류에 정치 · 경제 · 외교적인 교류가 우선되어야 한다거나 또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면에만 치중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종교간의 교류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가능해야 하며 그렇게 순수한 교류에 바탕을 두고 정치 · 경제 · 외교적인 교류들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보여주기식보다 내실 우선돼야"

남지심 〈우리는선우 공동대표〉

최근 중국 일본 티벳 몽골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접국가와의 불교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교류는 알맹이 없는 일회성 보여주기식 행사였다는 지적이 많다.

이제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는 시점에서 국제교류는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먼저 국제교류를 위해서는 종단과 사찰, 관련단체가 서로 경쟁적으로 교류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논의를 거쳐 방향성과 효과성을 따져 일을 분담 ·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는 한건주의나 성과주의 보다는 내실을 다질 때이다.

첫째, 경제수준이 낮은 불교국가의 경우 스님의 교육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캄보디아의 경우 폴포트의 킬링필드로 대부분의 스님이 학살되었다. 망명에서 돌아온 스님들은 대부분 70세 이상의 고령이라 강사로 부적합하다. 또 몽골의 경우 불교미술대학이 있지만 교재가 없다. 캄보디아 오사를 사원, 미얀마의 사싸나승가대학 등 대표적인 승가교육기관의 교육비를 지원해 젊은 강사스님들을 배출시키고, 교육교재도 지원해야 한다.

둘째, 캄보디아의 프놈펜대학, 몽골의 울란바트라대학 등 불교국가의 국립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 젊은 불자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각 나라의 미래 지도자를 키워 우리나라가 겪은 환경 · 사회문제 등 산업화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

셋째, 불교국가의 고아원을 지원하고 의약품을 지원하는 등 빈민돕기에도 나서야 한다. 이러한 방법들이 전통불교국가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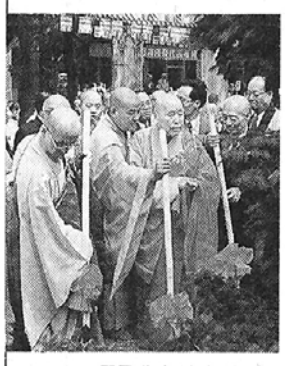
해외교류 현황

'세계는 한가족' '전 인류는 일불제자(一佛弟子)'라는 기치가 4일 조계종과 캄보디아 불교계간의 공식교류가 처음 이뤄지면서 환기되고 있다.

한국불교의 국제포교는 1966년 숭산스님(화계사 조실)이 일본 도쿄에 홍법원을 개설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에앞서 1945년 미얀마 수상 우누가 개원한 명상센터에 한국승려가 함께 수행하기도 하고, 50년대 말 서경보스님이 유학하는 등 스님들의 개별적인 교류는 훨씬 이전에 이뤄졌다.

교계에는 해외교류 공식기구로 세계불교승가회(WBSC), 세계불교도우의회(WFB), 한 · 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한 · 중 · 일 불교우호교류회의가 있다. 그외에

WFB등 교류단체 20여곳
조계종 20여국서 3백여스님 전법
단일창구 부재…일부 나라 편중



◇중국에서 열린 제1차 한 · 중 · 일 불교우호교류회의에서 각국 스님들이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도 종단차원이나 신행단체별 또는 스님 개인적으로 미국, 유럽,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몽골, 캄보디아 등과 교류를 맺고 있는 20여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조계종의 경우 종단에 등록된 해외사찰은 1백30여곳. 20여개국에 3백여 스님들이 진출해 있다. 특히 지난해 해외포교 30주년을 맞은 숭산스님은 러시아 폴란드 등 동구국가는 물론 남아공화국 브라질 전세계 20여국에 1백60여곳의 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한마음선원(선원장 대행)도 미국의 뉴욕과 오하이오, 아르헨티나 등 8곳에 지부를 설치해 현지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등 한국불교의 세계화 및 국제포교 일선에 서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국제교류는 단일창구 부재에 따른 대표성의 상실, 중국 · 일본에 치중된 교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운영면에서도 식사하고 관광하는 식의 상호방문 차원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국불교를 알리는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불교의 대표성과 국가적 지위 선양을 위한 단일창구의 마련,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통한 실무자들의 자질함양 등은 한국불교가 세계불교로 뻗어나가기 위한 과제로 남는다.

또한 서양에 불고 있는 '불교붐'에 한국불교가 해야 할 역할도 모색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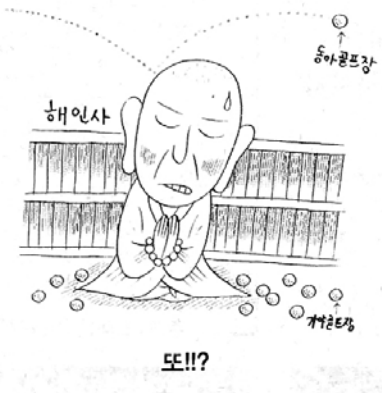
◇주요 국제불교교류 단체

단 체 명	창립	전화
세계불교승가회(WBSC)	1954	
세계불교도우의회(WFB)	1950	02)741-0495
한 · 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1977	02)720-1788
한 · 중 · 일 불교우호교류회의	1995	02)732-4885
한 · 스리랑카협회	1979	02)275-0184
한 · 스불교문화우의교류회	1993	02)914-0879
승가대-일본불교대학	1993	02)925-5507
삼론종-중국 백마사	1991	02)425-0108
대한법화종-일본 입정교성회	1986	02)764-2678
한 · 태 불교협회	1993	0458)37-6613
우리는선우-미얀마 · 캄보디아 지원사업	1994	02)278-8672
세계불교동수회 한국지회	1993	02)733-4445
천태종-일본천태종, 중국천태종	1995	02)233-6210
한국JTS-인도 구호사업	1993	02)581-0581
경불련-인도 · 네팔 구호사업	1996	02)765-5448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생활 속의 불교 (127)

내 안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의 빛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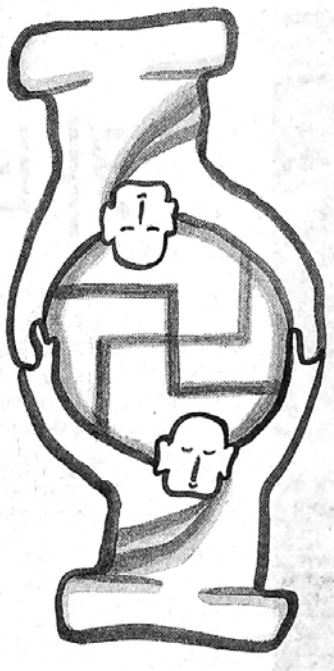
"한생각이면 가난도 면할 수 있고, 한생각이면 질병도 낫게 할 수 있고, 한생각이면 남들을 유익하게 거두어 줄 수도 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우주를 싸고도 남는 것이니 둘 아닌 도리를 안다면 무엇이든 한아름에 안을 수 있다. 내 상을 내세우지 말고 그야말로 무주상으로, 예를 든다면 얽매인 데가 없는 잔잔한 마음으로,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써 한생각을 낸다면 그대로 법이 되고 그대로 약이 된다. 에너지가 같이 돌아가게 된다.

한생각 활달하게 돌리면 지견이 바로 서서 내 앞에 사랑도 오고 행복도 찾아온다. 한생각 옹졸하면 고통이 따를 뿐이다. 내 육신도 마음을 따라서 건강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한다. 한생각이 부자이면 일체가 부자이고 한생각이 가난하면 일체가 가난하다."

누구나 한순간에 생각 한번 잘못해서 크나큰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구설수에 시달려 보았을 것이고 참아야 할 일을 참지 못하는 바람에 큰 낭패를 겪기도 했을 것이다. 심한 경우엔 한순간의 실수로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일도 있다. 한생각이라는 게 눈 한번 치뜨고 내리뜨는 것같이 별것 아니라고 여겨지겠지만 면밀히 관찰해 보면 누구라도 한생각이 자기를 구덩이에 처넣기도 하고 한생각이 자기를 수렁에서 건져내기도 한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미운 사람, 마음에 못마땅한 상대가 있다고 해보자. 내가 상대를 볼 적마다 밉다는 생각을 일으키고(혹은 저절로 일어나고) 하는 짓마다를 아니꼽게 생각한다면 그 상대는 날이 갈수록 미워지고 급기야는 서로의 관계를 파탄으로 끝내게 된다. 반면에 그를 볼 적마다 생각을 좋게 돌리고 그의 장점부터 보려 하고 혹은 나도 물정을 몰랐을 때는 저와 같았지 하거나 그 나이엔 나도 그랬었을 거야, 혹은 아직 몰라서 그러는 것일게야 하고 생각을 돌린다면 미움은 좀 덜해지고 점차로 감정이 잦아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사람인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이냐고 반문할 수 있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다. 제가 할 나름이니까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좀처럼 돌려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한생각이 자기를 구덩이에 밀어 넣을 수도,



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다. 건지든지 밀어넣든지 그것은 제 할 탓이요 전적으로 제 몫이다.

미운 상대의 탓도, 그의 몫도 아니다.

똑같은 사과 다섯개씩을 주었더니 어떤 사람은 좋은 것부터 차례로 먹고 어떤 사람은 나쁜 것부터 먹었다고 하자. 한사람은 좋은 사과 다섯개를 먹었고 다른 한사람은 나쁜 사과 다섯개를 먹은 결과가 된다. 한생각 하기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

생각 한번 돌리니 예가 바로 극락이구나 하듯이 한생각 탁 트이게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고통 대신에 즐거움이 오고 미움 대신에 사랑이 온다.

물 그릇에 어떤 물감을 떨어뜨리느냐에 따라 물의 색깔이 달라지듯이 말이다.

개미 구멍에 둑이 터지는 수가 있다. 얼른 막아버리면 될 것을 반대로 자꾸 쑤셔대면 마침내는 둑을 무너뜨리는 큰 구멍이 된다. 한생각 돌릴 줄 몰라서 자꾸만 집착한다면 나중엔 스스로 원치 않는 결과와 맞닥드리게 된다. 그럴 줄 뻔히 알면서도 그게 그리 쉬운 일이냐고 자기변호에 열중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던가. 구멍을 키우려거든 반대로 사랑의 봇물, 즐거움의 봇물이 터지게 하라.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하는 덕담이 있다. 일년 365일이 늘 쳇바퀴 돌리듯이 같아서 지루하고 따분한 사람에게 참으로 반가운 덕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날마다 좋은 날이 되라는 덕담의 참 뜻은 순간순간에 한생각 바르게 내시오, 그러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됩니다 하는 충고에 있다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생각과 같고 내일의 생각이 오늘 생각의 재판이라면 무슨 재주로 날마다 새로와지겠는가. 매일매일 새롭게 깨어나야 매일매일이 새날일 수 있지 늘 고정된 생각에서 사는데야 어떻게 새날일 수 있나. 매일매일이 묵은 날일 뿐이다.

안경을 바꿔써라. 붉은 안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천지가 다 붉고 푸른 안경 너머로 보이는 세계는 온누리가 다 푸르다.

협 찬 : 조성찬 · 이형순

"욕먹을 일인줄 몰랐나"

해인사 앞 동아골프장 계획 파장심각

가야산일대 75만평 환경 훼손위기

해인골프장 대법원 판결 '더욱관심'

해인골프장 문제가 아직 대법원에 계류중인 시점에서 10일 (주)동아스포츠가 해인사 진입로 부근 북두산 일대 26만7천여평에 또 하나의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각계의 반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동아골프장은 해인골프장과 마찬가지로 총 27홀 규모다. 비록 해인골프장의 48만평에 비해 26만7천여평으로 규모는 적지만 거리상 가야산 일대 총 75만여평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더욱 충격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이 96년 9월 동아골프장 건설예정지역의 식물생태계를 계략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골프장 예정지가 가야산국립공원과 불과 1.2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가야산 면적이 협소해 생태계 연결상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각종생물의 피난처로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팔만대장경의 보고인 해인사 일대에 골프장 건설이 계속 추진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동아골프장은 허가가 난다면 올 12월 착공해 2002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합천군 가야면 숭산청년회와 해인청년회 지역주민들이 '골프장조성 반대투쟁위원회(공동대표 황현석외 5인)'를 결성하고 식수오염 농작물피해 국립공원과 팔만대장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들어 허가 불허를 군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이에대해 강석정 합천군수는 "접수된 동아골프장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주민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연뒤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정권이 있는 경남도에 이관하겠다"며 "합천군에서는 체육시설로서의 골프장 건설이 적합한 지역을 파악하기위해 여러곳을 검토했으며 대방면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영남대 정희돈교수도 "경관이 수려한 산을 깎아 골프장을 만드는 곳은 세계적으로 드물고 득보다 실이 크다"며 "지자체의 개발사업이 주민복리와 거리가 무관한 만큼 이에대한 주민입장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맹지현 간사는 "해인총림 대책위와 공동대응한다는 방침이다"며 "이번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동아골프장 일대에서 1백여명의 학생들과 환경농활을 개최해 골프장 건설의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부 체육시설과 박성락 사무관은 "정식 승인신청이 떨어진 것이 아니므로 문체부에 보고 받은 바는 없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지켜본후 적절한 판단을 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 위원장 능과스님(총무원 사회부장)은 "95년도부터 시작된 해인골프장 문제가 종료되지 않는 시점에서 또다시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해인사 대책위가 발족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공동 대처하고 종단차원의 행정적인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지난해 해인골프장 건설 반대의 여론이 교계를 비롯 환경단체 시민단체까지 확산됐다. 해인골프장 문제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육군 특수전학교 불교탄압 사건 일지

▲1997년 3월 2일 일요법회가 없는 날은 하교대장이 불자 하사관 후보생들을 무조건 교회로 인솔, 군목 장시용 대위 불자 하후생들에게 정신교육 실시.

▲3월 5일 일부 당직자들이 법당에 참석한 하후생들을 교회로 오라고 지시.

▲3월 12일 일요법회가 있는 날에는 당직근무자들이 불자 하후생을 교회로 보냄(110기 불자 하후생 28명 전원 교회로 인솔)

▲5월 1일 법당 옆 7m 정도에 위치한 텃밭에 분뇨차로 대량의 인분 살포. 능인선원 관계자 인분 살포한 현장 촬영.

▲5월 3일 박동진(특전사 군법사) 방문 현장 확인. => 원상복구된 상태였으나 냄새 진동.

▲5월 4일 일요법회 때까지도 냄새 진동. 하후생들 사실을 알고 격분.

▲6월 4일 수계식 때, 백여명의 하후생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70여명의 하후생들이 교회로 불려가 수계식에 참석 못함.

▲6월 9일 상급부대인 특전사령부 군종참모 홍소령(군목사)은 홍성덕씨(능인선원 군포교담당)에게 "왜 시끄럽게 만드느냐"며 "법사도 옷 벗어야 한다"고 말함.

▲6월 11일 교계기자단의 인터뷰 요청에 육군본부 보도과에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인터뷰 거절

▲6월 12일 조계종 포교부장 원혜스님 방문, 하후생들의 증언 청취

▲6월 13일 교육사령부 이희완소령 교계기자간담회 통해 관계자 인사조치 방침 발표

▲6월 18일 - 조계종 포교원비롯 교계 17개단체 '육군특수전학교 불교탄압대책위' 구성, 국방부장관 사과와 관계자 엄중문책및 24일까지 성의있는 답변요구.

- 육군본부 박욱병 군종감, 국방부 박성대 군종실장 총무원 방문, 대책위원장 원혜스님에게 특수전학교 학교장 박희만 중령을 경고조치하고 하교대장 이진규소령과 군목사 장시용대위를 직위해제 조치했다는 교육사령부 인사조치내용 밝히고 공식사과입장 전달.

- 불교탄압대책위는 국방부장관의 사과와 특수전학교 학교장 박희만중령 하교대장 이진규소령 전역조치및 군목사 장시용대위 경고조치요구.



◇ 육군본부 박욱병 군종감 국방부 박성대 군종실장은 18일 조계종 포교원을 방문하여 대책위원장 원혜스님에게 교육사령부 인사조치내용을 밝히고 공식사과입장 전달했다.

목어 불교와 에코페미니즘

사람들은 신선한 공기를 원하면서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맑은 물을 찾으면서 물을 오염시킨뒤 자구책으로 정수기를 만들고 생수를 사먹는다.

오존경보가 발령됐는데도 사람들은 자가용 끌고 삼림욕하러 간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공기오염의 주범인 줄 뻔히 알면서도.

당장 편한것만 추구하는 현대인들은 탐진치 삼독에 눈이 멀었다. 눈앞의 이익이 이익이 아님을 모르고 욕심껏, 제멋대로, 마구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한다.

그것이 결국 자기파괴인줄 모른다. 안다해도 무명의 늪에 빠져 그 삶을 즐기느라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이제 그 업이 쌓이고 쌓여 세상이 엉망이니 새로 시작하자는 대안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 · 생태여성론)이다.

에코페미니즘은 환경운동과 여성해방운동의 만남이다. 지구환경의 위기와 여성의 억압구조사이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공동요인을 찾아 문제를 풀자는 이론이다. 자연은 인간에 의해 파괴되어 왔고 여성은 가부장 사회에서 남성에 의해 억압당해 왔다. '여성=자연' '남성=문명'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는 가정에서 에코페미니즘은 출발한다. 결국 자연과 인간, 남성과 여성이 생성원리로 더불어 사는 방법을 찾자는 이론이다.

보살사상, 화엄이론등 불교는 21세기의 화두 에코페미니즘이 추구하는 답이다.

어울림과 균형을 통한 생명화합, 性의 조화와 생명체 공생에대해 이미 2천6백년전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일러주셨다. 눈밝은 학자들은 불교에서 에코페미니즘의 실천지침을 찾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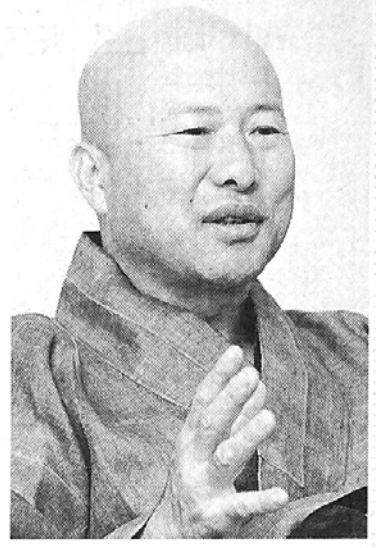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라는 기치아래 조계종이 펼치고 있는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은 에코페미니즘실천과 다르지 않다. 불교환경교육원이 에코페미니즘 이론전개에 앞장서고 있음도 반가운 일이다. 불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부처님가르침 실천과 전법에 나서자.

21세기 화두풀이의 답이 불교에 있기 때문이다.

수요인터뷰

뜻있는 사람이 불교를 키운다. '복지'를 자비실천의 가장 큰 덕목으로 삼는 스님. 사회의 소외계층인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교계 최초로 전용복지회관을 건립, 29일 개원하는 인덕노인복지회관 관장 성운스님(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삼천사 주지)을 만났다.
〈편집자 주〉

인덕노인복지관 개관
성운스님



"복지불사는 생활수행"

물리치료실등 시설완벽
생활보호대상 무료이용
아동시설 5곳도 운영

—인덕노인복지회관 개관을 축하드립니다. 민간법인으로는 첫 노인복지회관이라 무엇보다 시설과 운영이 궁금합니다.

▲삼각산과 북한산이 어우러지는 산자수려한 이 곳 2천여평 대지에 지상3층 지하1층으로 연건평 약 1천평의 복지관을 세웠습니다. 특히 개관식을 가질 노인복지관은 노후를 부처님 품안에서 보내는데 가장 절실한 것부터 갖췄지요. 법당 물리치료실 치과진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취미스포츠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상 특징이라면 주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생활보호 대상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이용토록하는 것과 일일 주간탁노서비스입니다. 맞벌이 부부나 일반 부양가족을 위해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노인을 맡아 보호해 드리는 것이지요.

그밖에 단기보호사업으로 가정에서 부양이 어려운 노인을 15일 이내로 24시간 모시는 것과, 교양취미 건강프로그램으로 마련한 노인학교를 운영합니다.

—교도소에 불서10만권 보내기등 재소자 교화활동도 20년가까이 해오셨는데요, 이처럼 복지포교에 원력을 세우신 각별한 동기가 있으신지요.

▲85년 총무원 사회부장 소임을 살면서 타종교의 복지선교활동을 시찰했던 일이있습니다. 한마디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양적으로도 불교계에 비해 월등하지만 엄청난 정부복지예산을 받아 복지사업을 통한 선교사업을 동시에 해내는 것입니다. 다종교 사회에서 타종교시설을 이용할때 느낄 소외감과 이질감이 가슴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자비사상과 보시정신은 법당에서 논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자거리의 이웃들에게 가닿아야 합니다. 그형태가 바로 복지활동이지요.

—복지사업 가운데도 왜 노인층에 관심을 두시는지…

▲우리 사회는 경제 급성장이 낳은 부산물로 경노효친사상이 희박해져가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 으로 노령인구는 증가해 UN이 정한 고령화사회로 이미 진입했습니다. 노령화에 따른 보호가 시급한 실정이지요. 어떤 분들은 실버산업쪽으로 조언을 하기도 하지만, 아직 우리현실의 복지개념은 저소득 빈곤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곳 은평구는 서울에서 가장 경제수준이 열악한 지역이며, 또한 관내서도 이곳 진관동이 더하지요.

—삼천사 중창은 물론 은평구사암련 회장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신바도 크셨는데요.

▲이번에 복지관 불사가 원만히 회향된 것도 지역사회의 도움이 컸습니다. 이곳에서 20여년을 살았습니다. 지역사암들의 유대나 불교계와 각급 기관과의 원활한 관계는 은평구가 앞설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노인복지 외에도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의 사업은 무엇입니까.

▲아동복지사업으로 인덕어린이집을 설립 지난 3월 개원했습니다. 그밖에도 구립어린이집으로 게나리 수색 종암 배봉어린이집등 5개소 어린이집을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덕원은 〈법화경〉을 널리 법공양하시는 스님의 원력이 실천으로 꽃피고 있는 현장이라 여겨집니다. 그만큼 어려움도 크셨을텐데요.

▲어느 불사보다 주위의 동참이 따뜻했습니다. 사실 8개월여 공사기간동안 조달해야하는 총예산이 30억원입니다. 부처님일이라 반드시 성취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부담이 가지요. 그럼에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현대사회에서 져야할 불교계의 몫이 바로 복지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사찰이 있는 곳에 불상 범종이 모셔지듯 반드시 복지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이시대 '상구보리 하화중생'은 이런 여건에서 실현됩니다. 인덕복지회관은 불을 지피는 불씨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전 불교계에 복지포교의 뜨거운 관심과 후원이 불같이 일기를 바랍니다.

위영란 기자

"출가 4박 5일"

제27회 송광사 여름 수련법회 수련생 모집

지금으로부터 800여년전인 고려시대때부터 나라의 스승인 열여섯분의 국사를 배출한 승보종찰로,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도량인 송광사에서 〈출가 4박 5일〉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참된 자신을 찾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시적인 출가수행자의 생활로서 묵언과 참선, 발우공양 등 스님들과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불교신자는 물론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다소 힘이 들지는 모르나 맑고 충만한 산사의 기운과 정신을 얻을 수 있다면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피서지에서의 휴가보다 더욱 보람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1997년 여름수련법회 일정

차	기간	모집인원	신청기간	연 령	대상
1차	1997년 6월29일-7월3일	100명	5월20일~6월10일	제한없음	불일회원
2차	7월 6일-7월10일	〃	〃	20세~60세	일반인
3차	7월13일-7월17일	〃	〃	〃	〃
4차	7월20일-7월24일	〃	〃	〃	〃
5차	7월27일-7월31일	〃	〃	〃	〃
6차	8월 3일-8월7일	〃	〃	〃	〃
7차	8월10일-8월13일	120명	〃	중1 - 고3	불일학생회(중·고교)
8차	8월14일-8월17일	100명	〃	20세-35세	불일청년회

◈ 7차 불일학생회와 8차 불일청년회의 일정은 3박 4일입니다.

■모집요강

① 신청대상

- 제 1 차 수련법회 (4박 5일) : 송광사 전국 불일회 회원
- 제2-6차 수련법회 (4박 5일) : 일반인
- 제 7 차 수련법회 (3박 4일) : 송광사 본·말사의 중·고등부및 중·고등부 학생회원
- 제 8 차 수련법회 신청대상(3박 4일) : 송광사 본·말사의 청년회원및 전국 불교 청년회원
- 자원봉사신청 지원대상 : 송광사 수련법회 참가경험이 있는 분으로 매 차수별 10명 내외
- 참가통보 : 6월 25일까지 개별통보
- 동참금 : 1-6차(일반인수련회) : 7만원 (교재, 기념사진, 기념품, T셔츠 포함)
  7차(중고등학생수련회) : 4만원 (교재, 기념사진, 기념품, T셔츠 포함)
  8차(청소년수련회) : 5만원 (교재, 기념사진, 기념품, T셔츠 포함)

■신청서작성

별도의 참가신청서는 없으며, 아래의 기재사항을 A4 용지에 빠짐없이 기재한 후 우편이나 팩스(FAX)로 신청

1. 이 름	(한글) (한자)	2. 주민등록번호	
3. 주 소	(주소) (우편번호)	4. 직 업	
5. 전화번호	(자택) (직장)	6. 종 교	
7. 수련법회 경험 유·무 (있으면 참가년도 참가사찰명 자세히 기재)		8. 원하는 차수	제 차 수련번호 제 차 자원봉사
9. 참가하고자하는 이유(상세하게)			

* 팩스(FAX)로 신청하실때는 접수후 꼭 전화 확인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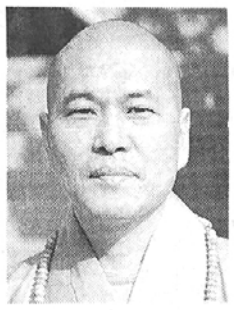
- 문의처 : 전화/0661)755-0407,0109(오전 7시 - 오후 6시까지만 가능)전송/0661)755-0408
- 접수처(주소) : (우)540-930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 여름수련법회 담당자 앞

불기 2541년 5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제 21 교구본사 송 광 사 주지 현고

"종교법·제도 관련 전문지식 필요"

백양사 사찰환경수호 지선 스님



"사찰환경과 수행도량을 위한 백양사의 노력으로 이번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돼 기쁩니다"

지자체가 실시되면서 유수한 고찰과 마찰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했었지만 가장 먼저 터졌던 백양사와 장성군의 '환경파괴-지역개발' 논란은 향후 2백70개 지자체에 큰 귀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선스님은 "세수를 늘리기위한 지역개발에 있어서 전통사찰과의 문제는 대화협력, 이해관계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사찰도 수행도량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애환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님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본·말사간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밝히고 스님들도 종교관련법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아쉬웠던 점은 종단의 무관심이라고 피력했다.

김원우 기자



"사찰은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살기좋아진 郡 1위 청도 김상순 군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정책으로 사찰 주변환경과 문화재가 위협받는 가운데 사찰 건물보수는 물론 문화재를 불심으로 지켜내는 목민관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민선 청도군수 김상순씨(58).

김군수는 용천사 명부전 보수에 4천만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 지난해와 올해 총 9개 사찰의 문화재보수에 6억4천여만원을 배정했다.

"민족문화유산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 아닙니까"라고 말하는 김군수는 과중한 업무로 심신이 지칠때면 사찰을 찾아 3천배 정진에 매진하는 신심깊은 우바새다. 또 "자신의 종교가 소중한 만큼 남의 종교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며 청도 기독교장로연합 결성의 산파역과 나라와 군민을 위한 기도회를 주선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지킬 줄 아는 멋쟁이 군수다. 김군수의 이같은 행보때문에 청도군은 9일 '지방자치 2년 평가'에서 살기좋아진 군 1위에 오르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윤호 기자

교차로

'우리마을 가꾸기' 행사



현성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회장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에서 '우리마을 가꾸기'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50여 학생들과 함께 전개했다.

직지사서 교직원 수련

법산 동국대 정각원장 스님은 27~29일 김천 직지사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계 수련법회를 개최한다.

태아영가 천도법회



자우 금강사주지는 낙태아를 위한 천도법회를 30일부터 8월 17일까지 49일간 봉행한다. (02)993-3744

통일교육원 연수실시

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스님은 12~13일 회원 50명과 함께 통일교육원에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관문점과 제3땅굴 등을 시찰했다.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



선일 인천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단장은 14일 인천 청천동 부근에서 6백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가운데 '유해환경 근절 및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캠페인'을 개최했다.

장애인불자회 야외법회



선진 도봉포교원장스님은 산하단체인 법륜회(회장 이영균)와 법륜장애인불자회(회장 유봉건) 회원 80여명과 함께 용인 에버랜드에서 야외법회를 개최했다.

대불 전국대표자 대회



명호근 대불련 총동문회 '대불' 이사장은 7월 8일 오전 11시 롯데호텔 2층 에머랄드실에서 '대불련 총동문회 전국대표자 대회'를 개최한다. (02)723-9811

미얀마·일본 성지순례



박상길 군불교진흥회 회장은 회원 30명과 함께 6월 27일~7월 4일(7박8일) 미얀마·일본 성지순례를 떠난다.

'원리전도몽상' 윤독강의

권영일 한국스카우트불교지도자회 회장은 21일 불교방송 15층 회의실에서 김석문선생을 초청, '원리전도몽상'에 대한 윤독강의를 열었다.

'러' 화학워크숍 참가

이준 건국대 교수(교불련 부회장)는 러시아 국립교원대에서 열리는 화학 워크숍에 참가하고 공동협력연구를 위해 20일 러시아로 출국했다. 7월 2일 귀국.

'현대시 시어사전' 출판회

김재홍 경희대 교수(국어국문학)는 18일 고려대학 인촌기념관에서 〈한국 현대시 시어사전〉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MK택시 유회장 초청강연

신용태 동국대 일본학연구소장은 27일 예술극장에서 일본 MK택시 유태식회장을 초청, '세계화와 국제화를 지향하는 정신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갖는다.

"대승불교 배우러 왔습니다"

미타종 초청 첫 방한 테풍승왕



20일 미타종 초청으로 한국에 온 캄보디아 승왕 테풍스님(66)은 "세계의 불교가 하나임을 보여주기 위해 왔다"고 한국불교방문 소감을 밝혔다.

"중국, 스리랑카, 태국 등과 불교교류에 합의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교류는 한국이 처음입니다. 특히 한국불교에 대해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타종과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이후 한국불교와의 교류에는 적극적이라는 것이 테풍스님의 설명이다.

매년 한-캄 학승교류 등 협력강화

아직 한국불교가 캄보디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불교를 소개하고 싶다는 테풍스님은 한국불교를 통해 대승불교를 연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캄보디아 불교는 해마다 2명씩 미타종에 유학을 보내 언어와 한국불교를 배우게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훈 할머니'와 관련해 테풍스님은 "훈 할머니가 한국에 오기까지는 여권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다"며 "캄보디아 불교계가 이를 돕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나설 수 없다는 설명이다.

캄보디아는 인구1천만중 9백만이 불교신자인 전통적 남방불교국가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신을 불교가 지배하고 있다.

테풍스님은 29일까지 열리는 미타종 국제마정수기법회에 참석한 후 30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할 예정이며, 7월1일 출국한다.

한명우 기자

"부처님 원음 배우러 오세요"

21일 창립 한국팔리성전협 전재성 초대회장



"팔리성전은 팔만대장경의 토대이며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가리켜 '부처님 원음'이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죠"

21일 한국팔리성전협회를 창립한 전재성 초대회장.

전회장은 "〈쌍윳따니까야〉의 '경장부'가 7월중 출간될 것"이라며 "주석서도 포함시켜 총 2백여권이 번역·출간될 이번 번역작업은 팔리협회의 목적과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회장은 역경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팔리어학당'을 개설하는 한편 한국팔리성전협회 회원도 모집하고 있다. 한국팔리성전협회는 세계팔리성전협회 회장인 리차드 곰브리지교수(옥스포드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됐다.(062)222-7801 〈욱〉

"수행인 자세로 시정 임할 터"

부산광역시의회 정각회 권영적 회장



"불교의 뿌리가 깊은 부산에서 시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방의회로는 대구광역시 정각회에 이어 두 번째로 17일 창립된 부산광역시 정각회 권영적 회장.

권회장은 "부산시의회 의원 61명 중 과반수인 32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월 1회 법회를 가져 신행을 다질 계획을 밝혔다. 또 부산 정각회는 적극적 봉사활동을 통해 불교위상을 높이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권회장은 "불교수행자의 자세로 모든 시정에 임할 것"이라며 신행과 시정활동이 하나되는 정각회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천미희 기자

"비구니 경승 포교효과 커요"

성동경승실장 상덕스님 모범사례 발표



비구니 경승의 장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한불교경승단(총재 월주)이 20~21일 화성 신흥사에서 개최한 '97 경승연수'에서 경승활동 모범사례를 발표한 성동경찰서 경승실장 상덕스님(미타사·사진)은 "90%이상이 남성으로 구성된 경찰서에서는 비구니스님의 모습 자체로도 시각적인 포교효과가 크다"고 말해 눈길.

상덕스님은 또 "비구니스님들이 친밀감을 갖게끔 섬세하게 법회를 진행하면 경찰직원들이 신선한 느낌으로 인상깊게 설법을 청취한다"며 "그러다보니 업무이행과 가정 생활에도 설법내용을 활용하는 예를 많이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상덕스님은 바람직한 경승활동을 위한 7개의 필요사항을 제시했다. △경찰서내 정보입수와 유대강화를 위한 경승실 상근자 근무 △통일된 설법과 정보교환을 위한 경승법회지 발송 △지속적인 행사 참여와 후원금 모금을 위한 신도 경승후원회의 조직 △경승법회 활성화를 위한 경찰서 임직원불자모임의 결성 △경찰가족 법회의 운영 △경찰관 자녀 대상의 장학금 수여 △재범예방을 위한 구치인 교화 등이 그것이다.

김재경 기자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본부 모금 현황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 6,027,140원 △부산불교교육대학 3,649,900원 △정토불교대학(서초) 2,140,000원 △기립사 1,000,000원 △서울대 환경대학원생 413,000원 △청년정토회 107,300원 △충렬초등학교학생 46,560원 △최호견 1,220,000원 △강현숙 500,000원 △하현균 100,000원 △안리라 외 15,480,912 △밥한공기 나누기 운동 1,284,200원 △한끼굶기운동 1,929,000원 〈18일 현재 총 550,336,623원〉

- 후원금 접수(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재일불교도총련 이명수부회장 별세

교포사회 신행토대 개척

이명수(68) 재일본한민족불교도총연합회 부회장이 불사중 얻은 과로로 16일 오후8시15분 오사까마쯔이(松井)기념병원에서 별세했다. 고인은 재일교포 사회의 불교신행을 개척한 인물로서 한·일 불교교류에 힘을 기울여 왔다.

18일 오후 12시 재일본조계종총본산 보현사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서옹 고불총림 방장, 법홍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무애 재일조선불교도협회 총무부장 등 사부대중 3백여명 참석.

게시판

♣ 알림

불교학교지도자연수회=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스님)는 28~29일 서울 구룡사에서 제19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한다. 여름불교학교의 준비, 실시와 운영, 불교교리의 전달, 찬불가 율동지도, 신앙심 함양방법 등에 대해 교육한다. 참가비는 3만5천원. (02)738-7860

선 토론회=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 학술연구분과는 30일 오후6시30분 종단협 사무실에서 '선이 현대사회에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이라는 주제로 6월 정기토론회를 개최한다. (02)732-4885

♣ 모집

불교대학 학인=영광 진제암(주지 진제)은 제1기 한국승가대학원 부설 불교대학 학인을 모집한다. 3개월 과정. (0686)53-9121

여름캠프 참가자=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스님)은 7월 24~26일까지 과산 다보수련원여름캠프를 열고 초등학생 1백여명을 모집한다. 참가비 3만5천원. (02)852-0525

파출원 교육생=대전 법동사회복지관(관장 보안스님)은 7월 7~11일까지 실시하는 제6기 파출원교육에 참가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042)633-1141

♣ 이전

(재)동방연서회(이사장 김응현)는 6월 1일 사무실을 종로구 견지동 88 천도교 수운회관 5층으로 이전했다. (02)733-0131

봉선사 서울포교당

천·일·기·도·도·량

방배동 광명선원

천일기도 회향 100일전 큰스님 초청 대법회 10만배 참회 정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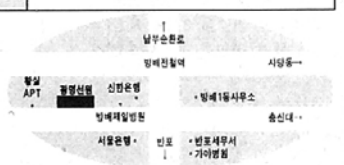
소납이 포교의 원력을 세워 법당 및 유치원 불사를 위한 50만배 참회정진으로 천일기도를 시작한지 900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천일기도 회향 100일을 앞두고 한층 정진력을 더하여 매일 천배씩 10만배 참회 정진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향공덕을 함께 하고자 만등불사를 준비하오니 자비의 등·소원의 등·화합의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1년 6월 27일(금) - 10월 5일(일)(100일간)

6월 27일(금) (오전 10시 30분)		월운 큰스님 · 동국 역경원장 주제 : 기도의 공덕	10만배 참회 정진기도 (백일간 매일 천배씩) 오후 2시~4시 30분 · 토·일요일 오후 1시 30분~4시
28일(토) (오전 10시 30분)		밀운 큰스님 · 봉선사 주지 주제 : 나도 성불할 수 있습니까	
29일(일) (오전 10시 30분)		무진장 큰스님 · 前 조계종 포교원장 주제 : 우리가 해야 할 일	
30일(월) (오전 10시 30분)		초격 스님 · 광명선원 원장 주제 : 기도방법과 자세	

· 동참방법 : 10만배 참회 정진기도(100일 축원) 30만원
온라인 계좌 : 30901-3142806 (서울은행) 예금주 : 남 기 영
· 만등불사 : 1인 1등(영가등 포함) 만원

♦문 의 : (02) 584-1108, 587-3753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894-18호(방배동 황실APT 입구)



◈ 버스노선 일반 : 1, 29, 288, 87, 87-1, 88-1
좌식 : 42
★ 방배 1동사무소앞 하차
◈ 지하철 이용시 : 방배전철역 하차, 방일초등학교 출구 마을버스(광명선원 갈 하차)

"참사람 수행결사"

고불총림 백양사 참선 수행 법회

불기 2541년 제 1회 "참사람 수행결사" 수련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일 정 표

차수	기 간	모집인원	신청마감	연령	대상
1차	7월21일(월)~25일(금) (4박 5일)	50명	6월20일~7월10일	19세~50세	일반인

모집요강

- A4 용지에 우측 양식대로 기재한 참가 신청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십시오.
- 동참금은 7만원입니다.
- "참사람 수행결사"에 동참하게 되면 이시대 최고의 선지식이신 서옹 큰스님으로부터 화두와 참선지도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별도의 참가신청서는 없으며, 아래의 기재사항을 A4 용지에 빠짐없이 기재한 후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

1. 이 름	(한 글) (한 자)	2. 주민등록 번 호	
3. 주 소	(주 소) (우편번호)	4. 직 업	
5. 전화번호	(자택) (직장)	6. 종 교	
7. 수련법회 경험 유·무 (수련법회 경험이 있으면 년도, 수련법회 참가사찰명 기재)			
8. 참가하고자하는 이유(상세하게 기재)			

* 팩스(FAX)로 신청하실때는 접수후 꼭 전화 확인바랍니다.

■ 문의처 : 전 화 (0685)92-7502(오전7시~오후6시까지만 가능) FAX (0685)92-2081
■ 접수처 : (우)515-850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 고불총림 백양사 참사람 결사 수련원

대한불교조계종 제 18교구 본사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지선

일본불교 답사기



◇조계종포교원은 6월 7일~13일 전국 포교국장단 일본 포교현황 연수를 실시했다. 맨 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가 필자.

성수스님 〈조계종 포교국장〉

지난 7일 아침, 조계종 사상 최초로 '전국 본사 포교국장단 해외 포교현황 연수'가 실시되는 일본 오오사까 지역으로 출발하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오오사까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백제에서 일본에 불교를 전했다는 사천왕사였다. 사천왕사는 불교의 전래 당시를 재현하는 '사천왕사 왔소'라는 축제를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사천왕사 방문을 마치고 이십여년간 일본지역에서 포교에 진력하신 보현사의 태현스님을 찾아뵙고 입재식을 거행한 뒤 스님의 말씀을 들었다. 오랫동안 일본지역에서 경험하신 노고가 가슴에 절절하게 스며들었다.

이튿날부터 교토와 나라 지역을 중심으로 하루 세곳 정도의 사찰을 방문하는 강행군이 이어졌다.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고 해당 사찰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직접 우리를 인도하여 사찰의 곳곳을 안내한 뒤 우리 일행이 탄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산문 앞에 나와 손을 흔들어 주던 그곳 스님들의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이 한일불교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할 것이라는 기쁨과 함께, 그들의 친절과 환대가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빚을 지고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셋째날 아침, 현대식 납골당을 구비한 장묘시설을 견학하였다. 지은원과 무량수당, 고야산 금강봉사는 오래전부터 장묘 및 납골시설로 유명한 사찰이다. 무량수당은 현대식 건물에 잘 정돈된 대단위 납골 시설을 완비하고 있었다. 이들 장묘시설을 둘러보면서 지은원의 스님이 납골당을 소개하며 하던 말이 생각났다.

"요즘 사람들은 종교심이 없다. 사찰에도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를 찾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은 반드시 하기 때문에 납골시설을 만든다면 적어도 1년에 몇차례 사찰을 찾게 된다. 납골시설은 신도의 생활과 연결된다."

이 말은 오늘의 조계종의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포교와 현대인의 삶과의 연결은 한일불교 모두의 화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량수당의 납골시설을 견학한 후에는 이층에 들러 임진왜란 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원혼들을 위로하였다.

또한 일본불교의 2대 발상지인 비예산의 천태종 연역사와 고야산의 진언종 금강봉사는 그 유서 깊은 사찰의 풍모나 울창한 산림 속에 위치하여 일본불교의 역사를 응변하고 있는 듯하였다.

그리고 가슴 속에 가장 깊은 인상으로 남는 것은 나라의 법륭사(호오류사)에 들러 담징이 남긴 금당벽화와 백제 관음보살상을 대하던 때의 감동이다. 우리 선조의 숨결, 우리 조상의 깊은 신심이 탄생시킨 저 걸작을 타국의 유리관 속에서 바라보며 왠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은 나만의 나약한 심사가 아니었으리라.

일본 연수기간인 1주일 동안 일본불교를 모두 보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산사의 숙소에서 밤을 지샌 유치원 어린이들이 아침 예불에 들어가 법당앞에 가지런히 벗어놓은 신발들에서, 천년 고찰을 찾은 수학여행에서 가이드의 설명을 경청하는 중고등학생의 얼굴에서, 신도들의 삶과 밀착하여 생활속의 불교를 이끌어가는 스님들의 모습에서 일본불교의 앞날과 한국불교의 갈 길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부로 느낀 생활불교

사찰마다 현대식 납골당 '눈길'

적십자 보은여성회 발족

팔굴암신도 46명 "이웃에 희망전달"

대한적십자사 보은대원봉사회(회장 이상희)가 10일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결성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보은 팔굴암(주지 용수) 부녀회 신도 46명으로 구성된 대원봉사회는 지난 2월 불자 22명이 모여 부처님의 자비와 보시를 바탕으로 여성봉사회를 만들기로 뜻을 모아 이번에 결성식을 갖게 됐다. 이날 회원들은 대한적십자 충북지사 이택원회장으로부터 회기와 배지를 수여받고 대사회 봉사를 결의했으며, 보은고 박정식군 등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상희 회장은 "자비정신 구현과 국제적십자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지역의 어렵고 불우한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서원했다.

장애법우에 PC통신비 보시

하이텔 불교동호회 전국수련대회

하이텔불교동호회 칠연회(회장 이승덕)는 21, 22일 청주 보문정사(주지 묘정)에서 전국모임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1년에 두번 전국모임을 갖는 칠연회는 PC통신 하이텔을 통해 불교를 공부하고 있으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법우들을 위해 자가용이 있는 동호회 회원들이 차량을 제공, 사찰에서 함께 법회를 갖는 모임.

1백여명이 참석한 이번 전국모임에는 15명의 회원이 그림을 기증, 경매를 통해 생긴 기금과 회원들이 모은 보시금을 참석한 20여명의 장애법우들에게 통신비용으로 전달했다.

이번 수련대회는 예불 및 개회식 법회, 자기소개 및 장기 자랑, 참선 및 관음예문 기도, 도량청소, 평가토론, 지장재일 불공축원 및 법문 등으로 진행.

황산벌 떠도는 전쟁원혼 천도

영·호남 지역감정의 진원지인 황산벌에서 천도대법회가 1천3백년만에 열려 눈길을 모았다.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자웅)는 15일 나·당 연합군에 맞서 산화한 백제 계백장군의 애혼이 서린 충남 논산시 연산면 황산벌에서 천도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최헌식 同회연합회장, 류종민 교수불자연합회장, 문징호 예비역장군 등 서울, 광주, 포항, 대전 등 전국각지에서 모인 6백여명의 회원들은 정오를 기해 법회를 열고 〈금강경〉 1독과 미륵존여래불 정진, 참배와 함께 천도해탈을 발원했다.

지난 74년 이후 매년 현충일마다 호국영령을 위한 천도재를 지내온 금강경독송회는 5년전부터 역사속의 전투지를 찾아 무주원혼을 천도시켜 왔다. 이날 천도된 원혼은 백제군 5천여명과 신라군 1만여명.

김재웅법사는 이날 법문에서 "이번 천도법회를 계기로 전라도와 경상도의 뿌리깊은 한이 녹아내려 동·서간의 화합이 이뤄지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도록 기도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천도재를 마친 회원들은 북한동포돕기 성금을 모금했으며, 계백장군묘에 들러 천도해탈을 발원했다.

김재경 기자

금강경독송회

지역감정 진원지 영호남 화합 발원 북동포돕기 모금도



◇금강경독송회 회원 6백여명이 15일 계백장군묘 앞에서 〈금강경〉을 독송하며 무주고혼의 천도를 기원하고 있다.

우리 모임에선

'좋은모임' 청년회 발족

좋은일하는사람들의모임(사무총장 오희창)은 18일 사무실에서 청년회(회장 나영채) 발족식을 가졌다. 30여명의 청년회 회원들은 북한동포돕기 모금활동, 환경보존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지킴이, 군법당 돕기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울산경불련 효정원 위문

울산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회장 류관희)은 7월13일 사회복지시설인 효정원을 방문, 지체부자유인들의 몸을 씻겨주고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친다. 울산경불련은 이에앞서 6월25일 정도사로 순례법회를 떠난다.(0522)72-2033

동대 보현회 수덕사 순례

동국대 교직원불자모임인 보현회(회장 김용철 사업부장)는 20, 21일 1박2일간 수덕사, 개심사로 순례법회를 다녀왔다.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의 법문, 참선 정진 등이 있었다.

하나로포럼 7차회의

하나로포럼선정회(상임공동대표 고준환)는 7월 17~20일 제주도 약천사에서 '한국 선불교와 세계불교'를 주제로 제7차 포럼을 개최한다. 선수행, 백록담 등정, 존자암지 등 성지순례 예정. 30일까지 접수마감. 회비 14만원. (02)735-7540

사회교육원 청년회 창립

동화사포교원 관오사 부설 불교사회교육원(원장 지도)은 27일 오후7시30분 청년회창립법회를 봉행한다. (053)784-3669

교사불자회 독후감 모집

전국교사불자회(회장 박중현)는 오는 9월말까지 '제1회 청소년 불교도서 독서감상문'을 모집한다.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은 교사불자회 추천도서 60권중 한권을 읽고 초등학생 5~10장(2백자 원고지), 중·고등학생 8~15장 분량의 감상문을 보내면 된다.(02)995-2911

충청 교정인련 창립2돌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충청지부(지부장 정남복)는 21일 대전 중앙불교회관에서 창립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

중앙불교회관 주지 경원스님, 혜명정사 주지 혜명스님과 중앙·경인·영남·호남연합회 회장단, 불자 교도관들이 참석했다.

부산운불련 봉사회 발대

부산불교운전기사회(회장 백봉도)는 22일 밀양 선우사에서 지현스님을 증명법사로 개인택시 불교자원봉사자 발대식 법회를 봉행.



생명나눔실천 위한 후원의 밤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는 12일 강남 뉴월드호텔에서 어려운 환자를 위한 수술비 지원과 복지법인으로의 발전을 꾀하는 '생명나눔실천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월운스님(동국역경원장), 설정스님(조계종 종회의장), 광우스님(전국비구니회 회장), 변응전의원, 서영석 고대교수, 박선영 동대교수, 박광서 서강대교수, 권오경 구의원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불교 금강선원 임원 취임

한국불교금강선원(원장 이점례)은 15일 불교방송국 3층 대법당에서 '총재추대 및 이사장, 원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재로 추대된 안덕암스님을 비롯해 한정섭 이사장, 이월담 원장, 송춘희 백련장학회장, 김덕명·박월산 한량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한정섭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수십년간의 포교경험을 바탕으로 포교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은시인 '萬人譜' 출판기념회

고은시인 '만인보 10~15권 〈70년대 사람들〉 출판기념회'가 19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김수환추기경, 숭산스님(화계사 조실), 김대중총재(국민회의), 서돈각이사장(대한불교진흥원), 조정래씨(소설가), 백기완씨(재야운동가), 고건 국무총리, 김종규회장(삼성출판사), 권오현전무(불교방송), 김창국교수(상지대), 최원식교수(인하대) 등 각계인사 5백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불심회 창립10돌 기념

서울특별시불심회(회장 제타룡 서울시 감사실장)는 1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창립10주년 기념 및 정도실천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혜창, 조계사 주지 현근, 동방불교대학 부학장 종연스님, 대한불교약사회 홍성용 회장, 송춘희 백련장학회장, 서울광역시의회 김재경 내무위원장, 김태수 서울시 재무국장, 조정봉 민원조사담당관 등 2백여명이 참석.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7 학년도 동산불교 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성철큰스님의 백일법문(上, 下)을 부교재로 선택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 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1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강사

1년 교과목	법화사상, 화엄사상, 반야사상, 포교방법론, 불교학개론, 선종사상, 밀교사상, 불교미술, 불교사회복지론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종법스님(승가대교수), 권탄준(동국대교수), 성본스님(동국대교수), 한정섭(상락향원장), 박종(인성개발원장), 윤열수(동국대교수), 종석스님(승가대교수), 보각스님(승가대교수)
2년 교과목	근본불교, 대승불교, 비교종교론, 불교상담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정토사상	정락스님(전포교원장), 권기종(동국대교수), 인환스님(동국대교수), 암도스님(전포교원장), 정병조(동국대교수), 오국근(동국대교수), 정승석(동국대교수), 차차석(동국대교수), 묘주스님(동국대교수), 장휘옥(전동국대교수), 허경구(동국대교수)

3. 모집 방법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장소	비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1997년 6월15일~ 7월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불교회관 및 동산법당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자만 가능

4. 입학 일시 1997년 8월2일(토) 오후 6시(총무원 1층 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732-1206~8, FAX : 732-1207) (☞110-170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웅전젤러리4층)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425-4097) ◎ 대전 : 보문서점(257-0161)
◎ 광주 : 불일서점(232-7542)

특전사항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97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00명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 교 학 과	2년	•주간	•야간	•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 포교사(타종 승려·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통신		
중 국 어 과	2년	•주간	•야간		
불 교 미 술 과	2년	•주간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	•통신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 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 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분교체결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96. 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7.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 취득예정(위탁교육 수료후)
97. 2 제6회 졸업생 배출 예정

3. 특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각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7년 7월 18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우편 당일소인 유효)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본교 교학과 : 511-2026~8
본교 수행도량 해인사 : 953-2782~4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511-2026~8, 511-1080)

삼 화 불 교 대 학
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511-2026 팩스 : 511-1080

법회안내

이리 관음사(0653)54-1578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2시
학생부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2시30분 ◇주지 일행스님
청년부법회 매주 일요일 저녁7시
일반신도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합창부법회 매주 금요일 오후2시
선법회 매주 월요일 오후7시
기초교리법회 매주 수요일 오전11시~오후1시
대불련법회 매주 화요일 오후6시30분
초하투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
지장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

호국 원광사(02)796-0230



화요법회 매주 화요일 오전11시40분
사boy법회 매주 수·일요일 저녁7시 ◇주지 한상길법사
인등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30분
보름기도 매월15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30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삼척 삼장사(0397)73-2487

어린이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3시
학생부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6시
청년부법회 매주 목요일 저녁8시
일반신도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

미타정사(02)862-5261

경전공부 및 기도 매일 오전4시~5시, 오후8시~10시(정토심부경, 화엄경 등)

해동 용궁사(051)722-7744

성지순례방생법회 매월 5일(음)
화엄신장기도법회 매월9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법회 매월24일 오전10시30분

원각사(02)742-0065

발원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인등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
신행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가족법회 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금선사(02)981-8078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이렇게 들었다

전쟁 칼보다 지혜로 악을 이겨라

민족상잔의 6·25동란이 있은지 어언 47년. 반백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북한에 구호식량을 직접 전달하는등 이제 통일의 기운이 서서히 움트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통일은 전쟁 억지력에서 시작됨을 잊어서는 안된다. 잎이 없는 나무 아래서 전쟁을 막고자 하셨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새겨 평화를 전제로한 통일을 이룩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명일 것이다. 불교의 전쟁관은 어떠한지 경전·어록에서 듣는다. 〈편집자 주〉

▨ 전쟁에서 수백만을 정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정복한 사람은 정복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이다. 〈아함경〉

▨ 칼과 몽둥이 등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항상 바른 지혜에 입각한 방법과 수단으로 도든 악을 쫓아야 한다. 〈대반열반경〉

▨ 다른 나라의 군대가 침범해 왔을 때, 그 강약을 잘 관단한 다음에 방편으로서의 지혜를 써서 평화리에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런 사람은 의당 천주(天主=帝釋天)가 될 것이다. 〈제법집요경〉

▨ 적과 싸워서 무기로 해치면 동조옥(銅爪獄: 악귀가 구리로 된 손톱으로 할퀴는 지옥)에 떨어진다. 〈육취윤회경〉

▨ 싸움터에 나가 천번 싸우고 천명의 적을 이기느니보다 자기에게 이기는 자야말로 최상의 전사이다. 〈법구경〉

▨ 싸움이란 참으로 이상한 것이다. 이기면 다시 이겨야 하고 항복받으면 다시 항복받아야 하며, 해치면 다시 해쳐야 한다. 〈중아함경〉

▨ 그들을 내 몸과 바꾸어 비교해 보아라. 산 생명을 죽여서는 안된다. 또 남을 시켜 죽이게 해서도 안된다. 〈숫타니파타〉

▨ 보살은 세세에 무기를 만드는 일이 없다. 자탑들로 하여금 서로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는 가시, 기와조각이나 돌멩이, 언덕 따위는 저절로 제거된다. 〈보살행오십인신경〉

▨ 카필라를 노리고 있던 코살라국이 마침내 쳐들어오고 있었다. 부처님은 이 소식을 듣고 길목에 있는 가지만이 앙상한 고목밑에서 뙤약볕을 받으며 앉아 계셨다. 코살라의 왕 비루다카는 말에서 내려 부처님께 절한 다음 여쭈었다. "부처님, 우거진 나무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잎이 하나도 없는 앙상한 나무 아래 앉아 계십니까?" 부처님은 답하기를 "친족이 없는 것은 여기 그늘이 없는 나무와 같은 법이다." 젊은 왕은 부처님의 뜻을 깨닫고 군대를 돌려 코살라로 돌아갔다. 〈경집〉

▨ 무기를 드러내 사람들을 위협해 서로 해칠 경우에는 교화해서 화합케 하여 정법으로 인도해야 한다. 〈대반열반경〉

▨ 6·25전쟁이 한창일 때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에는 방한암스님 혼자 절을 지키고 있었다. 국군 대위는 스님에게 절을 태우는 것이 불가피한 작전임을 설명하고 어서 몸을 피할 것을 전했다. 그러나 스님은 조용히 법당 앞에 드러누웠다. 그렇게 숨을 거둔 것이다. 이에 스님의 깊은 불심에 감동한 국군은 절에 불을 지르는 대신 상부의 명령에 불복종 할 수는 없어 문짝 몇 개를 떼어 불을 지르고 돌아갔다. 〈방한암스님 행장〉

신행수첩

백양사 '참사람수행' 결사

'인간주의 초월한 참사람주의는 병든 현대문명을 치유하고 새역사를 창조하는 지름길이다.'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지선)는 '참사람 수행결사' 참선법회를 7월21일부터 25일까지 4박5일간 전남 장성군 백양사 참사람결사 수련장에서 개최한다.

참가자들은 조계종 종정을 지낸 서옹(고불총림 방장)스님의 화두와 참선지도를 직접 받을 수 있으며, 참사람 결사운동의 회원이 될 수 있는 특전도 주어진다.

이번 법회는 인간성 회복과 불국정토 구현의 서원을 세우고 실천의 마음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접수신청은 7월10일까지. (0585)92-7502

직지사 참선·EQ개발 수련

불교사회복지 까치마을회(촌장 법전스님)는 7월25일부터 31일까지 김천 직지사 북암 수련원에서 제10회 전국여름수련대회를 개최한다.

'부처님 품안에서 참선으로 효 실천과 EQ교육을'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에는 참선법을 응용한 감성지수 교육, 〈부모은중경〉 독송, 찬불가배우기, 사물놀이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자연의 푸르름을 보며 부처님 품안에서 효행심 함양과 감성지수를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02)838-3385

북동포돕기 하루찻집

차 한잔의 보시공양으로 어려움에 처한 북녘동포를 돕자.

영등포구 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성스님)는 2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신길3동 서울병원옆 칸타나 커피전문점에서 북녘동포돕기 자비의 하루찻집을 연다.

차 한잔 마시며 법우들과 신행담도 나누고 북한동포돕기에 일조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 (02)848-95241

'생활속의 불교문화' 특강

일반인들에게 사찰문화를 소개하고, 그 속에 깃든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한 공개강좌가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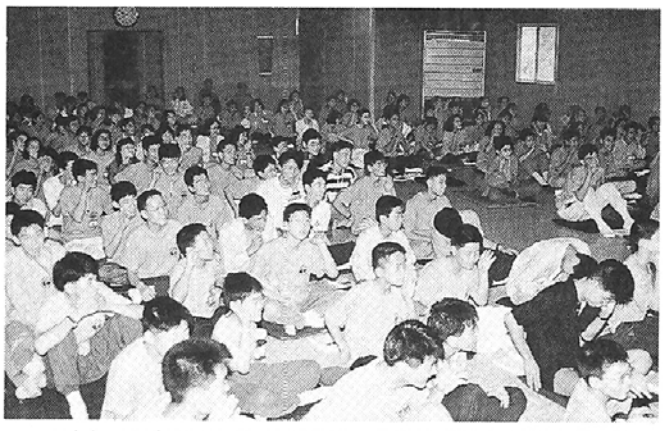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은 28일 유문용 문화재전문위원의 '한국의 불교문화'란 주제로 토요공개강좌를 실시. 우리 민족의 삶 속에 깊이 스며있는 사찰문화를 통해 한국인의 정서와 미의식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 7월5일에는 이호관 前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이 '금속공예-금·은 입상감공예'를 특강할 예정이다. 주제와 관련한 영상과 강의로 이뤄지는 이 강좌는 누구나 오후2시 박물관 사회교육관 강당으로 오면 들을 수 있다. (02)393-5083.

1백일 10만배 참회법회

1백일간 매일 1천배. 육체적으로는 더없이 힘든 수행이지만 현대사회의 온갖 스트레스와 번뇌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 방배동 광명선원(원장 초격스님)은 27일부터 10월5일까지 1백일간 10만배 참회 정진기도를 봉행한다.

이번 기도에는 선지식 초청법회도 마련된다. △27일 월운스님(동국대 역경원장) △28일 밀운스님(봉선사 주지) △29일 무진장스님(前 조계종 포교원장) △30일 초격스님(광명선원 원장)



◇사진은 제9회 까치마을회 전국여름수련대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즐거워하는 모습.

봉은사서 28~29일 '알뜰 재활용시장'

현대불교신문과 종단협 소비자보호위, 맑고향기롭게모임은 재활용 알뜰시장을 연다. 28~29일(오전 10시~오후 5시) 봉은사(02-545-1448)에서 열리는 이번 알뜰시장은 재활용을 통한 절약정신의 생활화와 환경보호 차원에서 마련됐다.

재활용이 가능한 불교용품 및 생활용품(의류, 세제류, 장난감, 화장품…)과 가전제품(냉장고, 탈수기…), 먹거리, 우리옷 등 다양한 물품이 전시된다. 현재 알뜰시장에 내놓을 물건을 접수중이다.

■ 종단협 소비자보호위 (02)3452-7485
■ 맑고향기롭게모임 (02)741-4696

나의 수행일기



박 창 규

'진탐치' 통장개설 삼독녹이기

불혹 넘어 만난 불교 '내 인생의 좌표'

나는 모태신앙으로 불교를 믿었다. 삼귀의도 모르고 〈반야심경〉도 몰랐지만 스스로도 불교를 믿는다고 했고 제3자들도 이를 믿어 주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절에 다니냐고 물었는데, 이는 음식을 너무 깨끗이 먹는 것과 반말을 안하고 경어를 쓴 덕분이 아닌가 믿어진다.

학창시절은 물론 경기은행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난 종교와는 거리를 두고 생활했다. 교리를 몰라 무지한 탓도 있었겠으나 불교건 기독교건 교리보다는 학교의 교칙과 직장의 복무규정만 잘 지키면 더이상 바랄것도 없고 어느곳에서나 살 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던 것이 86년 7월 검사부 발령을 받으며 바뀌었다. 나의 인사와 관련된 지점이 술렁댄다는 얘기를 두곳에서 들었다. 나름대로 수긍이 가기도 했고 나도 앞일이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판결을 잘못하여 판사직을 그만 두신 큰스님 얘기도 생각나고, 고의던 과실이던 직장에 피해를 끼친 잘못을 보고 그냥 모른척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럴 경우엔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주 토요일 나는 몇 달만에 조계사를 찾았다. 이때부터 조계사내의 신행단체에서 기초교리를 배웠고, 여름 휴가때는 사찰의 4박5일 수련대회에도 동참했다. 풋과일처럼 경전을 읽고, 참배를 드리고, 삼매에 빠지는 등 교리강습과 수련회를 통해 불법수행의 가닥이 잡혔다. 그러던 중 당시 같은 직장에 있던 윤병규씨가 불교인 모임을 만들자고 제의했다.

생각지도 않고 필요를 느끼지 않은 일이어서 어정쩡하게 지내는데 손수 인원까지 발굴해 제시하니, 결국 어쩔수 없이 모임을 만들었다. 회비를 수납할 통장이 필요해 버려야 할 3독(탐진치)을 상기해 '진탐치'(1989년 3월6일 통장 개설)라고 이름을 지어 오늘까지 그대로 불려지고 있다.



처음에는 인천 주안의 용화선원 정기법회(매월 첫 일요일 오후2시)에 동참하여 송담 큰스님의 법문을 듣고 근처의 다방이나 곡찻집에서 세상사 얘기를 나누면서 불심을 다져나갔다. 많아야 10여명, 적으면 2~3명. 그러나 우리는 당시 개국한 불교방송국에 단체와 개인의 자격으로 성금을 보냈고, 교도소와 군부대에 불교신문과 잡지도 보냈다. 동료들에게 수련대회 동참을 독려하여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의 4박5일 출가에 부부가 동참하는 등 작은 활동은 계속했지만 직장이라는 테두리 때문에 더이상의 발전은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비슷한 시기에 김인규거사와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를 소개받아 모임에 활력소가 스며들었다. 김인규거사의 안내로 강화 무애원에서 1박2일의 법회등 몇차례에 걸쳐 경전, 목탁, 참선 등 불교를 체험할 수 있었다.

금불련의 실무자들은 금년 부처님오신날을 기해 우리 은행의 불교인 모임을 결성하는데 많은 제언과 조언을 해주었으나 우리의 뜻이 결정되지 못해 현재까지 우리는 비공식 모임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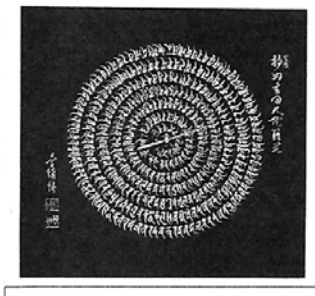
지난 5월엔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에 성금을 보내 '밥 한공기 나누기'에도 동참을 했는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모임의 결성에는 소극적이어서 안타깝지만, 이것도 부처님의 뜻이라 믿어진다. 아직까지 나를 포함한 우리 동료들의 불심이 더 무르익어야 한다는 경책이실 것이다.

미력하나마 경기은행불자회의 창립을 다시금 발원하며 불혹을 넘어 만난 불교에 감사드린다.

〈경기은행 여신관리부 수석부부장〉

"스스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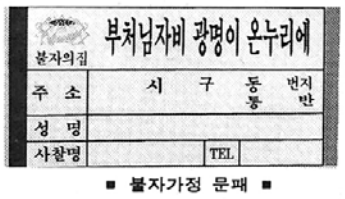
불교 상품을 직접 제작해온 삼보기업에서 불자의 자부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획상품을 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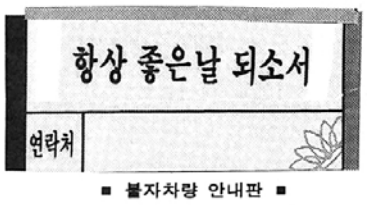
기획상품

· 상 품 명 : 신묘장구 대다라니 액자시계
· 제품 사양 : 크기 - 가로 40cm × 세로 40cm
재질 - 원목 사용. 무번금분 사용.
원목위에 사찰명 기재가능.
· 제품가격 : 35,000원
※ 원하시는 경전문구로 제작가능. 다량주문시 제작원가로 보급.

● 삼 보 기 업 의 기 획 시 리 즈 ●



■ 불자가정 문패 ■



■ 불자차량 안내판 ■

● 크기 : 19cm × 11cm ● 재질 : 연질 포맥스 (씰크인쇄)
● 150매 이상 주문시 1개당 1,500원



스님들께서 신도님들께 나누어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삼보기업 서울 중구 오장동 69-2 방림 B/D 4층
T)279-2715 F)275-3739

제 1 회

인 도 불 교 성 지 순 례 수 련 대 회

■ 장 소 : 인도 바라나시 한국사원 녹야원
■ 참가대상 : 불교도와 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고·대학생 우선)
■ 출 발 일 : 제 1차 7/22~8/02 제 2차 8/05~8/16 제 3차 8/26~9/06 제 4차 9/13~9/23
■ 동 참 금 : 일반 및 대학생 ₩1,299,000 학 생 ₩1,249,000(중·고등학생)
※ 단, 제4차의 경우 ₩1,349,000
■ 모집인원 : 선착순 32명(1회당)
■ 신청접수 : 참가신청서 및 신청금(1인당 ₩200,000)
국 민 은 행 023-21-0597-848 예금주 유갑순(보광명)
■ 준 비 물 : 세면도구, 필기구, 1인당 쌀 1되 (성지구간 요리사 동행 한정식 제공)
■ 문 의 처 : 서 울 TEL (02)738-5781(직) (02)738-1303(대) FAX (02)737-7797 E-MAIL : kwj @uriel. net
부산불교신도회 TEL (051)463-1408 FAX (051)441-6992

● 수련대회 일정표 ●

일자	행 선 지	일 정	초 빙 강 사
1	서울/델리	뉴델리 도착	
2	델리/바라나시	입제식 및 초전법륜탑 참배	녹야원 주지 도웅스님
3	바라나시	뭇빗사나의 입문 인도 불교의 역사(인도 불교 철학 교수) 인도 민속 고전무용단 공연 인도인과의 대화	Ven.Guru Dhammo 인도스님 Prof.r.s.Tripathi 바라나시 고전 무용단 유명 인사 다수
4	바라나시	겐지스강 가트순례 인도 불교의 현황 요가강좌 및 실습 티벳 불교 입문 인도 고전 음악 연주회	녹야원주지 도웅스님 Ven.Sasan Lasmi 인도스님 Mr.Yogi 요가전문가 Ven.Lobsang Norbo 티벳스님 바라나시 고전 음악단
5	바라나시/보드가야	부처님 성도지 마하보디 대탑 참배 및 108배	불교성지 전문인 동행
6	보드가야	예불 및 참선(성도의 배경과 의의) 전정각산 순례	
7	보드가야/파트나	법화경의 성지 라지기르 영취산, 죽림정사 순례	
8	파트나/쿠시나가르	유마경의 성지 바이살리, 부처님열반지, 다비터, 최후설법지 순례	
9	쿠시나가르/룸비니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 동산 순례	
10	룸비니/스라바스티	카필라바스투, 기원정사, 앙굴라마라 동굴 순례	
11	스라바스티/델리	델리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문화 유적 순례	
12	델리/서울	서울도착	

주 최 : 녹 야 원 (한국사원)
후 원 : 부산불교신도회, 에어인디아항공
주 관 : 성지순례 사업단

불자 세상보기

청소년들의 육체와 정신을 좀먹는 주원인은 각종 음란물과 술 담배 마약 등 환각물질이다. 이것들은 지금까지 청소년들에게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 수 없으며, 음란간행물은 포장을 해서 팔아야 한다. 또 각 방송국은 청소년 유해프로그램에 반드시 청소년 시청불가 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문화체육부는 17일 청소년을 유해약물과 유해업소, 유해매체 등으로부터 완전 격리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했다. 시행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했다.

시행령은 이미 판매가 금지된 마약류 외에 환각물질인 본드와 부탄가스,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약품, 술, 담배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성기구 취급업소, 전화방, 단란주점 등 유해업소에는 청소년 출입제한 표시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같은 법이 없지는 않았다. 시행령은 처벌을 강화하고 금지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불교계를 비롯한 민간단체의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소년에 술·담배 팔면 '처벌'
문체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확정

서울하늘 이젠 '오존과 전쟁'

오존 주의보 올들어 10번…기준치 초과 39일
자동차 배출가스 주원인…패혈증세 유발

서울지역에 14일부터 3일연속 오존주의보가 발령돼 수도권의 대기오염 상태가 위험수위에 이르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다. 지난 95년부터 오존경보제가 도입된 이후 96년 한해 동안 서울에서만 11차례의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올해는 벌써 10차례의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시골지역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한국교원대 한중대기과학센터가 충북 청원지역을 대상으로 93년 7월부터 3년여에 걸쳐 매일 오존농도를 측정한 결과 주의보발령수준인 0.12ppm을 초과한 횟수만도 13차례를 기록했다. 18일에도 0.146ppm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오존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지상 16km 이상 성층권의 오존층은 피부암 백내장 등을 유발시키는 자외선을 차단해준다. 그러나 지표에서 10km 이내에서의 높은 오존농도는 인체는 물론 농작물에도 피해를 끼치는 '살인가스'가 된다. 주의보수준인 0.12ppm일 때는 눈·코를 자극, 두통, 호흡수 증가 등의 증세를 보인다. 중대경보(0.5ppm) 시에는 폐기능저하와 기관지 자극, 폐혈증세를 보인다. 0.1ppm을 넘어서면 기침 숨참 등의 자각증상을 느낄 수 있다.

오존농도를 높이는 주원인물질은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이 물질들이 햇빛과 반응해 오존농도를 높인다. 따라서 배기가스의 철저한 규제, 저공해 자동차 기술이 개발이 오존농도를 낮추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경직적이고 오랜 시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오존의 위협을 막는 지름길이다.

한편 환경부는 7월부터 일기예보 때 오존경보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오존예보제를 실시한다.

정성운 기자



◇서울지역에 사흘째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오존의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청된다.

물고의 눈 — 차량운행 자제 '최선책'

환경부 교통공해과 이수철씨는 "서울 대기오염물질의 80%는 자동차 배출가스"라며 "시민들이 자동차운행을 자제해주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대 환경학과 정용승교수는 "수은주가 올라가고 공기유동이 안되는 날에 매연이 증폭되면 오존농도는 다시 올라갈 것"이라며 "자신의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자동차운행을 하는 것은 자신은 물론 남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전에서는 남을 해롭게 하는 행위를 극구 경계하고 있다. "사람의 생각은 어디에도 갈 수 있다. 그러나 언제 어디로 가든 자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그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는 더없이 소중한 것. 그러기에 자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해서는 안된다."〈남전대장경 제12권〉

시론

"감사합니다"

굶주리는 북한동포들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남한동포들이 보내는 식량이 지난 12일부터 신의주와 남양 도문지역을 통해 북한측에 전달되기 시작했다.

이번 식량 전달은 5월 26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사회담 합의에 따른 것으로 전달될 총량은 옥수수등 모두 5만톤이다. 남한측은 이 5만톤 전량을 오는 7월까지 남북 적십자사 경로를 통해 북한측에 전달키로 되어있다.

옥수수에 담긴 동포애

남한 동포들이 정성들여 모아 보낸 이 식량이 굶주리는 북한동포들에게 차질없이 정확하게 전달돼 북한동포들의 기아해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또 우리의 대북 식량지원은 단순히 북한동포들의 배고픔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을 뛰어넘어 남북대화와 화해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여 영 무
〈경희대 객원교수〉

이민족 지배하 일제시대 때도 우리동포들은 수재를 당했을 때 남과 북을 가리지 않고 재빨리 의연금을 거둬 수재지역 동포들에게 전달했던 것이다. 하물며 일제가 물러간 지금 남북 동포들이 어려울 때 서로돕는 것은 우리민족 전래의 미풍일 뿐 아니라 동포로서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한다.

북한의 식량 배급체제가 무너졌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1인당 하루 700g을 먹어야 할 어른들이 300g 또는 100g씩의 적은 배급량으로 모진 목숨을 지탱하고 있어 대부분 북한동포들은 빈사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런 상태가 아무런 외부 도움없이 방치될 때 김정일이 정권유지 탈출구를 위해 대남무력도발도 서슴치 않을 것이라는 섬뜩한 예측도 흘러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남한동포들은 김정일이 전쟁도발을 할까 무서워서가 아니라 순수한 동포애와 인도주의 원칙에서 이번에 식량을 모아 북한동포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북한동포들은 우리의 이런 순수한 동포애를 액면 그대로 받아주기 바란다. 그리고 이번 대북 식량지원이 반세기 이상 끊어진 남과 북의 민족적 혈맥과 유대를 다시 잇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식량지원은 단순한 식량지원 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남북대화와 화해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북한에 식량을 보내주었다고 해서 시혜자연 하는 고자세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같은 동포로서 어디까지나 북한동포들의 아픔을 올바로 이해하고 어루만져주는 겸허한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우리가 식량을 보내줬으니 당신들도 어떻게 해라 하는 식으로 교환 조건식 접근방식을 취해서도 안될 것이다. 식량지원을 위한 모금에 있어서도 각 단체마다 생색을 내기 위해 개별적으로 대북접촉 창구를 만들려고 경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전례로 보아 북한측은 남쪽 단체들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내부교란을 위해 악용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측도 납득할 만한 필요한 성의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리가 북한쪽에 요구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적절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런 예의란 먼저 북한 적십자사가 감사의 뜻을 공식적으로 남한 동포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12일 이호림 북한적십자사 대표단장은 남측이 전한 옥수수가루를 전달받고 "옥수수를 기증한 전경련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말이 진정 동포애에 대한 감사의 뜻이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구조 확립을 위한 대화에도 나와야 할 것이다. 북한이 4자회담에 빨리 호응해 오는 것도 그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분배 투명성 확인 철저

군량미를 민수용으로 방출해서 식량난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한다든지 혹은 대남 비방중상 방송을 중단하는 성의도 보여야 할 것이다. 또 우리가 보낸 식량이 착오없이 북한동포들에게 제때 분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한 적십자요원들이 식량 분배과정에 참여토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대북 식량지원이 북한동포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지계 금주 파계

시민단체 돈정치추방 앞장

●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44개 단체는 10일 '돈정치 추방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18일 처벌조항강화, 정당 기탁금제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치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실향민 옥수수 5백톤 기탁

● …16일 동향사람 3명과 함께 황해도 배천군(옛 연백군)에 보낼 옥수수 5백톤(약 6천5백만원어치)을 우리민족서로돕기에 지정기탁한 이찬주씨(74). "남한으로 와서 어렵지 않게 살았으니 전재산을 모두 기탁한들 북의 가족들에게 보상할 수 있겠느냐"며 기탁자가 나서주길 호소했다.

맥주 1병에 1원 '통일기금'

● …조선맥주는 북한동포를 돕기 위해 20일부터 2개월간 하이트맥주에서 병당 1원씩 모아 통일조성기금으로 출연키로 했다. 회사측은 2억4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구청직원 매주 자비봉사

● …14일 서울 중구청 직원들로 구성된 '사랑의 나눔 자원봉사대' 회원 1백여명은 근무를 마치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무의탁 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의 집으로 향했다. 도배, 장판교체, 보일러수리 등 모두 124가구에 이들의 따뜻한 손길이 스며있다.


'정주영 밀가루' 18일 제일제당 직원들이 북한으로 보낼 밀가루 포대에 기증자인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기증자 표지를 붙이고 있다.

조선족 유치원에 교재보내기

● …"조선족들은 한글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장춘 조선족유치원에 교재·교구를 전달한 중국조선족유치원 후원회장 유지령씨(월간 〈유아〉 발행인). "그나마 있는 교재중에는 김일성전집 등이 대부분"이라며 교재보내기 운동에 동참을 호소했다.(02-274-9510)

경부고속철 환경평가 졸속

●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관련, 환경영향평가마저 졸속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5일 천안~청원 등 4개 구간은 시속 160km의 일본 신칸센 방식을 적용해 방음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신칸센 방식이 적용된 구간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된다.

방화·시비끝 살인 잇따라

● …방화와 시비끝에 사람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북부경찰서는 17일 자신이 좋아하는 여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가구주택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3명에게 부상을 입힌 강모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용접공 김모씨(40)는 18일 시내버스안에서 시비끝에 다른 승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했다.

불법복제 CD판 21명 구속

●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6일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 불법복제한 CD를 판매한 혐의로 21명을 구속했다. 한글과 컴퓨터사 이찬진사장은 "불법복제가 만연하는 현실에선 '한국의 빌 게이츠'는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한탄했다.

농협 도시락서 대장균 검출

● …농협중앙회 급식센터에서 판매하는 김밥도시락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위생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는 17일 도시락 제조업체 150곳에 대한 위생단속을 실시, 4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또 56개 업소의 김밥도시락을 수거해 대장균 검출 여부를 조사, 위생상태가 불량한 15개 업소를 적발했다.

10대 남녀 아기출산 살해

● …10대 남녀가 아기를 낳아 숨지게 한 후 번기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유모군(18·무직)과 안모양(17·H고3)은 16일 서울 모여관에 투숙, 안양이 아기를 낳자 아이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하고 번기에 빠뜨렸다. 이들은 여관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교재價 조작 4백억 부당이익

● …한국교육방송원(EBS)이 방송교재 가격을 부풀려 출판사들과 4백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18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전·현직 사업국장 등 간부 5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불기 2541년 광운불교 교양대학(주간부·야간부)
신 입 생 모 집 안 내

■ 학과목 안내
기초교리(불교학개론)
불교역사(인도·중국·한국불교사)
천수경·반야심경
사찰과 불자의 예절

■ 교육기간
1년(1997년 6월 ~ 1998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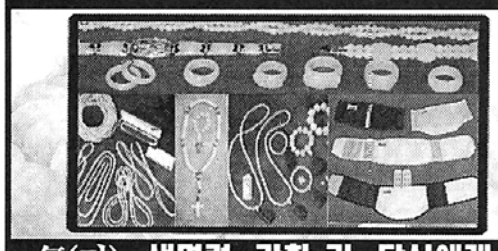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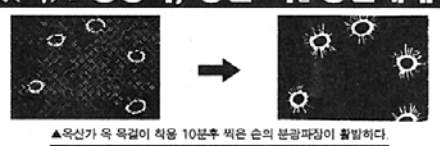
■ 강의요일 및 시간
- 주간부 : 매주 금요일(오후 2~4시)
- 야간부 : 매주 화요일(오후 7시30분~9시30분)

■ 강 사 : 우청운 스님

■ 이런 분들께 권합니다.
- 불교를 알고자 하는 직장인 남·녀 및 가정주부
- 체계적인 교리 공부와 바른 신행생활에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
- 포교활동에 뜻이 있으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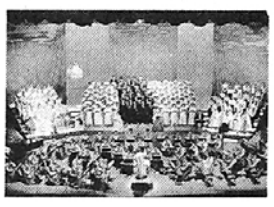
※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광 운 포 교 원
부설 : 광운불교교양대학
122-043 서울 은평구 불광3동 484-78
☎ 389-8966(FAX:387-8529)

춘천옥산가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산가 옥 목걸이 착용 10분후 찍은 손의 분광파장이 활발하다.
연옥 사용전 1.5㎷ 연옥사용후 3.0㎷로 체내전압 상승
알파파(α) 형상으로,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20여종의 뇌내모르핀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정혈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두통, 불면증, 심장병, 귀울림, 치매, 신장병,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홧병,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서울신문)
玉山家 옥만을 꼭껴어서 사아만 효과가 있습니다.
玉山家 옥이 희박품은 이닙니다. 그러나 한의서 本草綱目에 진옥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是空 合掌
玉山家 777-0105 (우편판매가)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雲藏) 法師의 생필(眞本)
반 야 심 경

금강경, 법구, 각종 불서, 병풍
불자님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般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事業은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敎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 事業실패 불행한사건 불행한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은분 난치병, 疾病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
◆ 神秘의 般若心經을 수지독송하면은 부처님의 神通한 영험이 있습니다.
전국 佛子가정에 1本씩 보시합니다.(단체주문은 사절)
※ 모사본에 속지 마세요.
●선착순 한정본(품) ●주문 신청방법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작가약력
· 중화민국 문화대학 국제서법학 전과정 수료
· 서울미술문화상 수상
· 중화민국 서법교육학회초청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창작미술 대상수상
· 대한민국 89년도 최우수작가상 수상 · 대한민국 현대서예대전 심사위원장
· 대만 국립 고궁박물관 소장 물목(약70만점)조사논문 발표
· 고 미술서법학회 회장 · 한국 불교문화예술원 원장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研究會
☎ (02)242-0331 · 242-0255 (야)216-0307

우리 국악으로 지장경을 독송합니다!!
창작국악 교성곡
불밭에 피는 꽃
불밭에 피는 꽃은 '지장경을' 우리 말로 옮긴 창작국악교성곡이다. 악업의 불꽃이 타오르는 지옥에서 중생구제를 위해 애쓰시는 지장보살. 그 모습은 한떨기 청아한 연꽃이다. 처절한 참회와 지극한 기도, 그리고 환희의 카타르시스가 있는 이 곡은 국악과 양악의 적절한 만남 그리고 범패의 현대적 재창조로 찬불가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글/반영규·곡·지휘/김희경
합창/수원포교당 가릉빈가합창단
중앙대 성악과 남성합창단
연주/중앙국악관현악단·피아노/함경아
특별출연/김성녀·김영임·성기훈
연정숙·한미경·덕신스님
지구레코드 CD발매(2장)/정가 17,000원/사찰에서 다량 주문시 할인 가능
전국의 유명 음악사 및 조계사 앞에서 판매 중/문의 ☎ (0331)255-2692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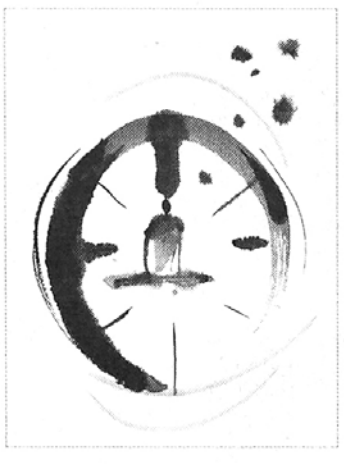
해중의 수레

月巖和尙問僧, 奚仲造車一百輻, 拈却兩頭, 去却軸, 明甚麼邊事. 無門 曰, 若也直下明得, 眼似流星, 機如 電. 頌曰, 機輪轉處, 達者猶迷, 四維上下, 南北東西.

*월암화상이 어느 스님에게 물었다. "해중(奚仲)이 일백폭짜리 수레를 만들었는데, 바퀴 양쪽을 붙잡고는 굴대(軸)를 빼버렸다. 이는 대체 무엇을 알리자는 것일까."

*나 혜개가 말한다. "이 일이 단박에 선명해진다면, 눈은 유성처럼 나르고, 마음은 번개처럼 번쩍일 것이다."

*송하여 가로되, 바퀴가 구르는 곳, 현명한 자 역시 헤맨다. 사유(四維)와 상하, 남북인가 하면 동서.



해중(奚仲)은 그 아득한 시절 하(夏)나라에서 처음 수레를 만든 기술자이다. 수레에 끈과 깃발을 달아 신분의 차등과 위계를 설정했다 한다.

첫줄의 해석에 의아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대개들 '수레 일백폭(造車一百輻)'을 '수레 일백대'로 번역하고 있다. 폭(輻)은 수레를 세는 양사가 아니라 수레바퀴의 살을 말한다. 수레를 세는 단위로는 승(乘)이나 량(輛)이 어울린다. 폭(輻)이란 바퀴(輪)에서 전해지는 하중을 바퀴통에 전대(漢代)의 부조를 보면 바퀴살이 대개 20개 정도를 넘지 않았다.

또 해석상의 문제 하나가 있다. 이어지는 구절을 나는 "바퀴 양쪽을 붙잡고는 굴대를 빼버렸다(拈却兩頭, 去却軸)"고 번역했다. 그런데 다들 이 구절을 "양쪽 바퀴를 떼버리고 굴대도 빼버렸다"고 번역하고 있다. 염(拈)은 부처님의 염화미소의 그 염(拈)으로, '집어들다'는 뜻이다. 선어에서 염기(拈起), 염제(拈提), 염롱(拈弄) 등이 모두 이 뜻의 가족들이다. 그런데 유독 염득(拈得)과 염각(拈却)만 '탈각시키다' '걷어치우다'라는 뜻으로 읽고 있다. 각(却)이 갖고 있는 '떨쳐냄'의 의미가 너무 강해서인지도 모르다. 그렇더라도 지금 여기서는 본래의 뜻으로 읽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수레바퀴에서 바퀴테는 남겨져 있어야 한다! 그래야 월암의 상징과 비유가 보다 명징하고 적실하게 울린다. 무문의 송을 보라. "바퀴가 굴러가는 곳"이라 하지 않았나. 바퀴마저 빼버리면 수레는 주저앉는다. '바퀴마저 없는 수레' 또한 본분의 기틀을 알리는 상징적 도구일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아무래도 긴장과 역설의 맛이 떨어진다.

굴대없는 수레바퀴가 사방(四方)과 사유(四維)를 굴러간다! 사유란 동서남북 사이의 네 방향을 가리킨다. 여기에다 동서남북의 사방을 합하면 지상의 모든 방향이 여기에 담긴다. 이 수레는 어디고 아니 가는데가 없다. 위 아래로도 간다니? 아니 무슨 수레가 날개도 없이 하늘 위와 땅밑을 구름처럼 날아다니느냐고 물을 수도 있겠다. 혜개는 그 의혹에 대해 "하늘을 못 나른다면 땅으로도 갈 수 없다"고 주장자로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

수레의 굴대는 일상적 인과(因果)의 고리를 말한다. 우리는 아득한 시절부터 생래적으로 심어진 무명(無明)의 바람에 의해 이것과 저것을 가르고 좋고 싫음을 나누며, 그리하여 생사의 윤회를 세세생생 거듭하고 있다. 굴대는 세속의 삶을 지탱해주는 중심이지만 저 너머의 언덕으로 가기 위해서는 떨쳐야 할 짐이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 놓으면 꼭 죽을 것만 같다. 앞서간 스승들은 말한다.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진일보(進一步)!" 인디아나 존스의 성배의 비밀처럼, 천길 낭떠러지 끝에서 한발을 쑤욱 내디디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곳을 혜개는 "눈은 유성처럼 나르고, 마음은 번개처럼 번쩍이는" 자리라고 일러준다. 선은 속도이다. 머뭇거리면(躊躇) 다시 생사의 쳇바퀴 속으로 떨어진다. 지구 자전보다 더 빨리 돌아야, 칙칙한 군더더기, 분별의 점착을 빨래 털 듯 떨쳐낼 수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축' 없는 수레 인과 없는 경계

"천길 낭떠러지 끝서 새 세상 보려면…"

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바퀴통 사이를 굴대(軸)가 꿰고 있어 수레가 비로소 굴러갈 수 있다. 옛날의 우마차나 용인민속촌의 대장간 옆을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은 이 바퀴의 구조를 대강 알 것이다. 요컨대 '수레 일백폭'은 '일백개의 살을 끼워넣은 바퀴'를 말한다. 오해를 불러일으킨 이유는 병풍을 셀 때 미끄러진 연상과, 보통 때와는 달리 형용어가 뒤에서 꾸미는 문장구조 탓인 듯하다.

어째 나처럼 해석한 사람이 없을까 이모저모 뒤져보았더니 동지(?)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인터넷에는 불교관련 정보가 지금만해도 바다를 이루고 있다. '문 없는 문(gateless gate)'으로 검색했더니 수십개의 사이트가 떴다. 그 가운데 한 미국인이 일본판에 의지해 영역해 놓은 무문관이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다. "Keichu, the first wheel-maker of China, made two wheels of fifty spokes each." 이 사람은 일백폭의 살을 두 바퀴에 나눠 주어 각각 오십폭씩이라고 해석했다. 그것도 그럴 듯하다고 무릎을 쳤다. 기실 백개의 살은 바퀴 하나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다. 〈노자(老子)〉라는 책을 기억할 것이다. 이 책은 바퀴통 중간의 '비어있음'을 통해 바퀴가 제 구실을 하듯 인간 역시 정신의 비어있음을 통해 무위(無爲)의 자연스런 공용(功用)을 구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런데 거기서 든 바퀴살의 수가 30개이다. 한

김 용 운

法數로 배우는 불교

〈21〉

사성제 (下)

멸도 滅에 이르는 8가지 바른길

온갖 고통사라진 열반경지

스스로가 깨달아 이루셨듯 부처님의 관심사는 중생들을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였다. 이는 "여래는 고통과 그 소멸에 관하여만 설한다"고 한 〈아누라다〉 경전을 보고서도 알 수 있다. 말했듯이 중생은 괴로운 존재이고 그 원인은 무경과 갈애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누구든지 마음속의 무명과 갈애를 제거하게 되면 온갖 고통은 사라지고 즐겁고 안온한 경지가 펼쳐질 것이다. 이것을 고멸성제(苦滅聖諦)라고 한다. 여기서 '멸'이란 고통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라는 뜻이다. 흔히 알고 있는 열반의 경지, 해탈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가 모두 이곳을 두고 한 말이다. 멸의 상태는 나고 죽음이 없고 허무하고 추악함이 없다. 이곳은 극락이며 정토며 진여의 세계로 모든 중생들이 돌아가야 될 곳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멸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가?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 무명과 갈애를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것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뱀에 물려 독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훌륭한 의사가 독을 제거하는 처방을 내리듯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받는 중생들에게 무명과 갈애를 없애는 방편을 베푸셨다. 이것을 고멸도성제(苦滅道聖諦)라고 하는데 (줄여서 멸성제) 여기서의 '도'는 멸에 이르는 길 즉, 방법, 수단을 가리킨다. 마치 누가 부산에서 서울로 가려면 고속도로를 통하든지 철길을 통하든지 국도를 통하든지 해야하는 것처럼 중생이 고통을 소멸시키려면 그에 이르는 도를 실천해야만 한다. 물론 이 도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길로 여덟가지 올바른 길인 팔정도(八正道)가 제시된다. 팔정도는 고·집·멸·도 사성제중의 일부이므로 함께 설명하지만 실은 불교를 상징하고 대변할 만큼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 팔정도는 한마디로 우리 불자들의 생활 신조며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음의 여덟 덕목으로 구성된다.

정지견·정사·정어·정업·정명·정정진·정념·정정이 그것이다.

첫째 정지견(正知見)은 바른 견해다. 중생들이 지닌 그릇된 가치관을 버리고 올바른 소견을 갖는 것이다. 여기서의 바른 소견이란 우선 부처님의 설법을 잘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확립된 인생과 우주관을 말한다. 예컨대 무상·무아·고와 같은 삼법인의 법문에 입각하여 정립된 견해를 가리킨다.

둘째 정사(正思)는 올바른 의지이다. 이는 앞의 정견에 대해서 한층 깨닫아 보겠다고 일으킨 의지심에 해당한다. 마치 서울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자신도 한번 서울에 가보겠다고 의지를 일으킨 것과 같다.

셋째 정어(正語)는 올바른 언어사용이다. 정견에 입각하여 정사를 일으킨 사람은 바른 말을 해야 한다. 거짓되고 악하고 꾸미고 이간질하는 말대신 진실되고 착하고 깨끗한 말을 해야하는 것이다.

넷째 정업(正業)은 올바른 행위이다. 수행자는 말만 진실해서는 안된다. 몸으로도 착한 업을 지어야 하는데 살생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 항상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익된 행을 해야하는 것이다.

다섯째 정명(正命)은 올바른 생활을 가리킨다.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의지 그리고 올바른 말과 행위로써 생활을 영위해 간다. 그야말로 신·구·의 세가지 행위가 잘 갖추어진 생업을 해나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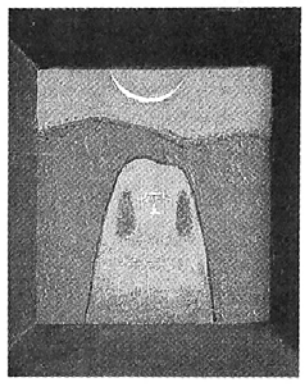
여섯째 정정진(正精進)은 물러나지 않은 올바른 노력이다. 정정진은 앞의 다섯가지 올바름과 뒤의 두가지 올바름을 깨달을 때까지 쉬지않고 닦는 것을 가리킨다.

일곱째 정념(正念)은 올바르게 관찰하는 마음이다. 밖을 향해 일으키는 일체의 분별과 번뇌를 항상 집중적으로 관찰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여기서의 '념'은 '주의해서 본다'라는 뜻으로 자신의 육체와 정신의 작용을 관찰하는 것이다.

여덟째 정정(正定)은 올바른 집중이다. 정정은 앞의 정념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닦아서 몰입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정은 나중에 다시 정견을 증득하게 하여 지혜를 일으키고 무명과 갈애가 소멸된 멸에 이르게 한다.

이처럼 네 진리 여덟 길은 중생이 결박을 풀고 멸을 얻는 최상의 가르침인 것이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송수님화집 '자연과 명상'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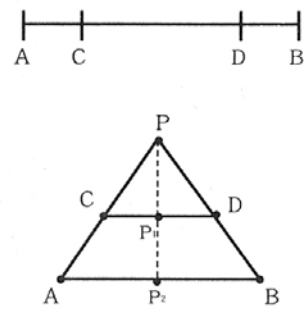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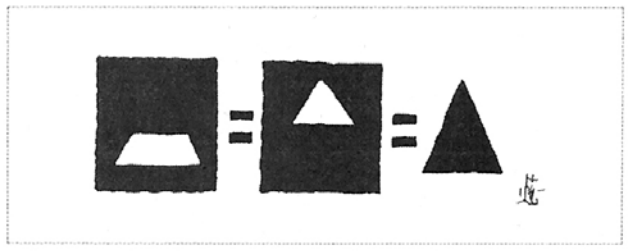
불교와 수학 ⑭

불교와 무한 ③

서로다른 무한집합 일대일 대응

연화장세계 전체-부분 질서유지





하나의 무한집합 속에 자신과 같은 정도의 무한집합이 정연하게 전체와 부분 서로의 질서를 깨뜨림 없이 존재한다. 간단한 1, 2, 3, …으로 구성되는 수 중에도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 2, 4, 6, … 2n 또는 1, 3, 5, … 2n-1과 같은 짝수, 홀수 전체의 집합이 있다. 이들은 부분으로써 전체와 같은 정도로 많은 무한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어디 그것뿐인가. 그 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전체와 같아질 수 있다. 이 엄청난 무한의 이법(理法)이 공간적, 시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화엄경〉에서는 세존의 입 안의 이(齒)사이로부터 수없이 많은 빛이 방사되고 시방(十方)의 세계를 비치고 있다고 묘사했다. 그 빛을 받은 보살은 연화장(蓮華藏) 세계를 볼 수 있고, 그 연화장 세계에는 무한의 세계가 있고 그 하나하나의 세계에는 각각 부처가 있다. 또 하나의 연화장 세계를 중심으로 무한의 연화장 세계가 각자의 부처를 중심으로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수학에서는 가시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주어진 선분 AB의 일부분에 불과한 선분 CD속에 포함되어 있는 점의 개수는 전체 AB속에 포함되어 있는 점의 개수와 같다고 한다. 수학은 다음과 같이 증명한다.

위〈그림〉의 직선 선분 AB에서 선분 CD를 들어 올려 그림과 같은 삼각형을 만든다. 점 P에서 CD상의 한 점(P_1)을 지나 AB와 만나는 점을 P_2로 한다. CD위의 점과 AB위의 점이 완전히 일대 일로 대응하는 것이다.

자연수 전체(1, 2, 3, … k …)와 짝수 전체(2, 4, 6, … 2k …)가 같은 정도로 많은 요소를 갖는다는 것은

1↔2
2↔4
3↔6
⋮ ⋮
k↔2k

라는 식으로 완전히 일대 일 대응하기 때문이다.

AB의 한 부분을 지나지 않는 CD위의 한 점은 완전히 1:1 대응이 됨을 알았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과부족이 없는 같음이 증명되었다.

위 사실은 선분의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또 아무리 짧아도 같은 정도로 무한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와 그 일부분은 같은 질서를 유지하면서 동등한 세계로 존재한다'는 주장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며 엄밀한 수학적 논리에도 검증된 것이다. 그뿐인가! 이보다 큰 집합이 존재하고, 이어서 얼마든지 큰 무한집합이 한없이 존재한다는 것 역시 논리적으로 입증되어 있으며, 엄연한 수학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모든 불토(佛土)를 부처의 일모공(一毛孔) 속에 넣어도 남음이 있다. 부처의 자비란 허공과 같이 광대하다"〈화엄경〉

무한세계의 무한한 확장을 말한 것이다. 무한세계에 사유의 첫발을 디딜 때, 얼핏 모순 덩어리로 보이는 그 질서에 아연실색한다. 무한세계는 부분이 전체와 같은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의 세계이며, 또 '여하한 무한도 최대의 무한이 될 수 없다'는 인간의 현실 감각을 벗어난 세계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격조높은 작품·감동적인 영상 — 불교TV 영상물

불교TV 영상물은 한 잔의 맑은 차처럼 山寺의 향음이 그윽합니다.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 1집

불교TV 영상물에는
역사의 깊이가 녹아 있습니다.
고승대덕의 법문이 살아 숨쉽니다.
부처님의 숨결을 함께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불교TV 영상물에는 한국문화의 정수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불자들을 위한 수행정진의 바른 길잡이 역할을 다하도록 기획·제작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어느 순간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기획영상물, 불교TV 특집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에서 큰스님의 숨결을 함께 느껴 보십시오.



지혜의 빛·자비의 샘
btn 불교TV 영상포교사업단
(02)3272-0781~5/706-3502~5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 1집

① 서옹 큰스님 (고불총림 방장)
백양사 주지 지선스님이 은사스님의 치열한 구도정신을 가르침 받는 성찰의 소리

② 서암 큰스님 (전 조계종 종정)
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불자가 큰스님의 고고한 자태와 함께 청량한 삶을 조명

③ 월하 큰스님 (조계종 종정)
탤런트 고두심 불자가 통도사를 배경으로 큰스님께 청해 듣는 이시대 깨침의 말씀

④ 석주 큰스님 (칠보사 조실)
동화작가 정채봉 불자가 큰스님의 구도정신을 탐색하는 감동의 영상

⑤ 월산 큰스님 (불국선원 조실)
영남대 김성규교수가 자연속에 동화되어 생활이 곧 선이 되어 버린 큰스님의 삶을 취재

⑥ 성수 큰스님 (법수선원 조실)
승가대 송찬우교수와의 대담으로 큰스님의 독특한 수행과정이 전개되는 감동적 영상

⑦ 고송 큰스님 (파계사 조실)
수행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탤런트 엄앵란 불자에게 설파

⑧ 비룡 큰스님 (월정사 조실)
관음보살같은 자비스런 깨달음의 말씀을 불교조형연구소 이기선 소장과 대담

⑨ 원담 큰스님 (덕숭총림 방장)
판화가 황남채 불자가 속세의 발길이 닿지 않는 큰스님의 산중권지를 전함

⑩ 월타 큰스님 (전 조계종 전계대화상)
현대인의 가슴에 촉촉한 봄비같은 청량감을 주는 말씀을 연화장세계 임기준 대표가 진행

※ 위 차례는 방송된 순서임

비디오 테잎·10개 1세트 / 구매가 : 170,000원

구입문의 :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02)3272-0781~5/(02)706-3502~5

시방세계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 수속
불교성지순례 전문
(주) 혜초 여행사
안국동로터리(조계사앞)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빌딩3층
전화 : (02)733-3900

"통일이여 어서오라" 넋들의 기원

6·25 47주년

호국영령 안식처 양양 영혈사

설악산 전투 생존자 '36동지회' 42년째 전몰 167명 위령재 그들이 조국에 청춘 바쳤기에 우리는 자유와 평화 누린다 "부처님품서 극락왕생하소서"

영혈사는 6·25전쟁에서 산화한 특전대(36지구대) 영령들의 안식처다.

설악산 대청봉 동남쪽. 관모봉아래 아트막한 산자락에 위치한 양양읍 화일리 영혈사(靈穴寺). 겉으로는 다른 사찰의 풍경과 다름없지만 고개숙여 합장하면 마음까지 빨려든다. 그래서인지 이곳엔 6.25전쟁에서 군번도 없이 조국의 통일을 위해 싸우다 꽃다운 청춘을 바친 1백67명의 호국영령들이 부처님품안에 잠들어 있다. 그들에겐 이곳이 극락인 셈이리라.

"한국전쟁당시 설악산 전투가 가장 치열했다더군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조국통일만을 위해 싸우다가 설악산 능선과 계곡에서 한줌의 흙으로 사라졌습니다. 영혈사에 모셔진 호국영령들은 당시 최고 정예부대였던 특수부대원들의 영령에 불과합니다."

영혈사 주지 현각스님은 수많은 무명용사의 영령들이 50년간 설악산의 능선과 계곡을 떠돌며 울부짖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을 천도하는 것 또한 불제자의 도리라고 강조한다.

휴전이후 영혈사는 6·25전쟁에서 산화한 무명용사들의 넋을 기리기 시작했다. 처음 이곳에 특전대 영령을 모시게 된 것은 1955년. 특전대 대원이었던 김동석씨(36동지회 명예회장)가 꿈을 꿨던 것이 계기가 됐다.

"6·25전쟁 당시 순직한 대원들은 설악산 자락 넓은 바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바위 한가운데서 연꽃이 활짝피었고 대원들은 그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편안하게 보였습니다"고 김동석씨는 말한다. 김씨는 그곳을 찾기위해 설악산 일대를 찾아다니다 당시 영혈사 주지스님도 똑같은 꿈을 꾸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결국 영혈사와 특전대원들은 군번없이 순직한 대원들의 위패를 법당에 안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확사자로 파악된 1백54명의 위패를 처음으로 안치하고 편안히 잠들 것을 기원했다.

"이곳은 전우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우리들은 동지영령들과 더불어 영원히 같이 살 것입니다. 동지들의 전공이 후세에 영원히 빛나도록 후배들은 골육지정(骨肉之情)으로 더 더욱 일치단결하여 맡은바 애국시민으로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동지들 아무걱정 말고 부처님 품에서 극락왕생하소서."

〈36동지회 기원문 중에서〉



◇위패가 안치된 지장전과 참전병사들의 발원으로 세운 충영각비.



▲영혈사 지장전에는 특전대(36지구대) 호국영령 167위가 안치돼 있다.

조국통일을 위해 부모와 형제, 모든 세속의 인연을 끊고 총탄이 빗발치는 최전방에서 숨져간 전우들. 이들의 넋을 위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생존한 대원들의 마음은 더욱 아팠다. 영혈사에 위패를 안치한 특전대원들은 자발적으로 36동지회(회장 주인식)를 조직, 동지영령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먼저 간 전우들의 넋을 마음으로나마 기리기 위해서였다. 그것이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전우애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36동지회 회원들은 매년 부처님오신날이면 어김없이 영혈사에 모여 합동위령재를 지낸다. 올해가 42년째이다.

처음에는 회원들마저 가슴속깊이 각인된 전쟁의 한이 복받쳐 위령재는 아수라장(?)이 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부처님의 대자비에 감화됐는지 회원들은 늘어났고 위령재도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결국 92년에는 36동지회의 서원이었던 지장전을 건립, 대웅전 한켠에 있던 위패를 이전했다. 이처럼 위령재가 더욱 여법해진 것은 불자들의 정성어린 마음도 한몫을 톡톡히 했다. 그중 위령재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불자는 바로 황일선보살(69·영혈사 신도회장). 특전대 대원은 아니지만 대관령 전투에서 순직한 남편의 위패도 함께 안치하고 42년동안 위령재의 제물준비와 뒷바라지를 해 온 황보살은 '특전대 대모'로 통할 정도로 헌신적이다.

"전쟁의 아픔은 전사자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아픔입니다. 그리고 현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분들의 넋을 추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들의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평화와 자유를 쉽게 누리는 것입니다."



▼영혈사는 매년 부처님오신날 합동위령대재를 지낸다.

호국영령들의 위패를 모시고 위령재를 지낸다는 입소문이 퍼지자 군(軍)과 관(官)에서 관심을 가졌다. 군에서는 도로·포장을 해 주었고 양양군청에서는 위령재를 지역행사로 확대해 이제는 타 지역의 호국위령재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가 됐다. 그러나 대원들은 속이 상한다. 영령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거창한 위령재가 아니라 통일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안락만을 위해 사는 것보다 조국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6·25 전사자들.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들은 평화와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다. 영혈사에 안치된 호국영령들은 42년째 통일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글=김중근 사진=고영배 기자

호국영령 1052位 모신곳 "선배전우 뜻 받들겠습니다"

고성 건봉사 22사단 전입신고장

강원 고성 건봉사(주지 영수)는 초임장교들의 신고식장으로 변해 이채롭다. 22사단은 전입해오는 초임장교들에게 가장 먼저 선배전우들의 영령이 있는 건봉사에 분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선배전우들의 뜻을 받들어 통일을 위해 한목숨 바치겠다는 의지와 22사단인임을 확인하는 신고식이다.

현재 건봉사에는 6·25전사자와 사단창설이후 순직한 1052위의 위패가 안치돼 있다. 이 위패들은 주로 건봉사 일대 전투에서 순직한 군인들로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방치돼 오던 것을 6·25 직후 건봉사에 하나둘씩 안치된 것으로 전해온다. 건봉사는 93년 대웅전을 중창하면서 옛 대웅전을 지장전으로 바꿔 위패를 새로 안치했다. 이때부터 건봉사와 22사단은 현충일과 백중날 두차례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호국위령천도대법회를 봉행한다. 또 매주 일요일에는 군인법회도 실시한다.

민간인의 출입이 가능해진 92년부터는 6·25 전사자들의 위패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가족의 생사를 확인, 위패를 모셔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건봉사 지장전에는 22사단 지역 6·25 전사자와 사단 창설이후 순직한 1052位의 위패가 안치돼 있다.

42년째 영혈사 위령재 모신 황일선보살 "전쟁만큼 참혹한 건 없어요"



"군번 6200206. 이름 박창권. 누가 이런 군인을 아십니까. 1951년 1월 대관령 전투에서 통일을 외치며 숨져간 제 남편입니다."

"……."

42년째 영혈사 위령재를 모시고 있는 황일선보살(69). 그의 머리는 '6·25 전쟁'으로 꽉차 있다. 보통여성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처절한 비극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1951년 1월 대관령전투였다. 적군과 아군이 밀고 밀리는 전투가 밤낮없이 이어졌고 황씨는 동족상잔의 참혹함과 남편의 죽음을 가냘픈 여자의 몸으로 감내해야만 했다.

"적군의 포탄에 맞아 내장이 파열된 남편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6·25를 겪어도 이처럼 비참하게 겪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황보살은 남편의 파열된 내장을 일일히 복부속으로 집어넣고 꿰매었다. 그리고 남편의 군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남편의 군복으로 갈아입고 후송길에 올랐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간절한 마음을 모른 채 싸늘히 식어갔다. '내 남편만은…' 이라고 생각했던 간절한 소원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고 회고하는 그는 끝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황보살은 남편의 죽음을 계기로 조국을 수호하다 산화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영혈사 위령재의 제물준비등 뒷바라지를 해 오고 있다.

포탄맞은 남편 튀어나온 장기 집어넣고 꿰맸으나 끝내 주검 "北 식량지원도 통일준비"

그는 대관령전투 현장을 이렇게 말한다. "높은 대관령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고 시체로 가득해 능선과 계곡을 메울 정도였습니다. 온 산하가 시체, 화약냄새, 핏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후에 생각해 보니 군가중의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가 바로 그 현장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황보살은 대관령전투의 부상당한 3천28명을 태운 후송선(LST)을 묵호항에서 탔다. "어머니를 목메어 부르다가 죽어가는 병사, 아픔을 참지 못해 절규하다 쓰러져간 병사를 비롯 시간이 지날수록 후송선에는 산 자보다는 죽은 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결국 부산항 도착했을 때 살아남은 병사는 4명에 불과했습니다"며 지금도 생각하면 꿈이 거꾸로 솟는것 같다고 울먹였다.

황보살은 휴전이후 강원도 양양으로 돌아와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한 일이면 무엇이든지 발벗고 나섰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영혈사 무명용사 위령재가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3·1열사추모재를 비롯 예비군 훈련장, 학교 등 각종 단체 행사에 참석, 6·25 체험담발표를 해오고 있다.

황일선보살은 "굶어죽고 있는 북한동포를 돕기위해 식량을 보내는 마음이 모이면 통일의 그날은 성큼 다가올 것이다"며 "남편이 이루지 못한 통일을 이생에 보는게 소원이다"고 말한다.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방일품(放逸品) ②

正念常興起 정념상흥기
行淨惡易滅 행정악이멸
自制以法壽 자제이법수
不犯善名增 불범선명증

바른 생각을 항상 일으켜서
행을 청정히하면 악은 쉽게 사라지리니
스스로 법으로써 생을 다스리면
계를 범하지 않고 착한 이름 더하리라

發行不放逸 발행불방일
約以自調心 약이자조심
慧能作定明 혜능작정명
不返冥淵中 불반명연중

일을 벌임에 방일하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고루잡으면
지혜는 능히 밝음이 되어
어둠의 바다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愚人意難解 우인의난해
貪亂好諍訟 탐란호쟁송
上智常重愼 상지상중신
護斯爲寶尊 호사위보존

어리석은이는 깊은 뜻 몰라서
棄惡爲大智 기악위대지

지혜로움이 어리석은 사람 보는것은
마치 산이 평지를 대함과 같아
어지러운 속에서도 몸이 바르니
그는 홀로 깨달은 이
그의 힘은 사자보다 더하며
악을 버리고 큰지혜 이룬다

睡眠重若山 수면중약산
癡冥爲所弊 치명위소폐
安臥不計苦 안와불계고
是以常受胎 시이상수태

잠이란 무겁기가 산 같아서
어리석은 어둠에 갇힌셈이라
편히 누워 고통을 헤아리지 않나니
그로써 언제나 태를 받는다

不爲時自恣 불위시자자
能制漏得盡 능제루득진
自恣魔得便 자자마득편
如獅子搏鹿 여사자박록

스스로 방자할 때가 없도록 하라
능히 제어하면 번뇌가 다할 것이다
방자하면 마구니가 틈을 엿본다
사자가 사슴을 치는 것처럼

방일하면 허물쌓여 지옥불로 향하고

계 범할까 항상 삼가하면 번뇌벗어나

탐하는 산란심에 다투길 좋아하고
지혜 밝은이는 항상 삼가하여
마음 지키기를 보물 지키듯 한다

莫貪莫好諍 막탐막호쟁
亦莫嗜欲樂 역막기욕락
思心不放逸 사심불방일
可以獲大安 가이획대안

탐하지 말고 다툼을 좋아말라
또한 욕락을 즐기지도 말라
생각깊어 방일하지 않으면
큰안락을 얻을 수 있다.

放逸如自禁 방일여자금
能却之爲賢 능각지위현
已昇智慧閣 이승지혜각
去危爲卽安 거위위즉안

방일을 스스로 금하고
능히 물리쳐 어질게된 이는
이미 지혜의 누각에 올랐으니
위태로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다

明智觀於愚 명지관어우
譬如山與地 비여산여지
居亂而身正 거란이신정
彼爲獨覺悟 피위독각오
是力過師子 시력과사자

能不自恣者 능불자자자
是爲戒比丘 시위계비구
彼思正淨者 피사정정자
常當自護心 상당자호심

능히 스스로 방일하지 않는이
그는 계행 비구라
그의 생각 바르고 깨끗한 이
항시 스스로 마음을 지킨다

比丘謹愼樂 비구근신락
放逸多憂愆 방일다우건
變靜小致大 변쟁소치대
積惡入火焰 적악입화염

비구가 삼가하길 즐기지만
방일엔 근심 허물 많아서
적은 다툼이 큰 다툼을 만들고
악을 쌓아 지옥 불로 뛰어든다

守戒福致善 수계복치선
犯戒有懼心 범계유구심
能斷三界漏 능단삼계루
此乃近泥洹 차내근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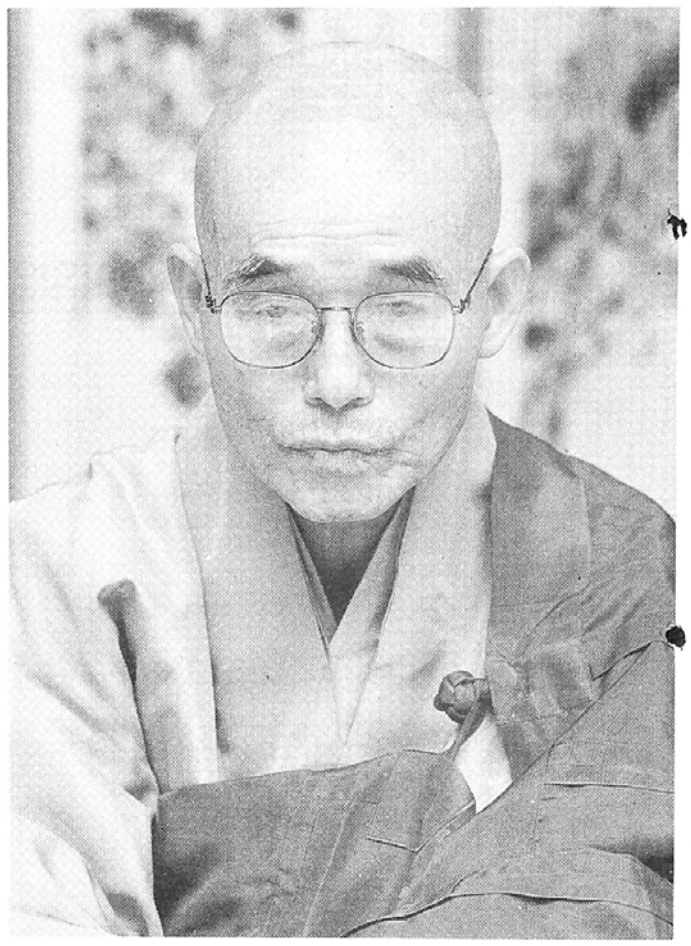
계율의 복을 지켜 선업 이루고
계율 범할까 두려운 마음이면
능히 삼계의 번뇌를 끊나니
이는 열반에 가까운 것이니라 龍眼

큰 스님 수행한담

"부처님말씀 따르면

혜암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道는 주고 받는 물건이 아닙니다 스스로 깨닫는 길 밖에 없어요 매일 세끼 밥먹듯 공부하세요"



약력
- 20년 전남 장성 生
- 45년 해인사에서 인곡스님을 은사로, 효봉스님을 계사로 득도
- 93년 해인총림 방장
- 現 해인사 원당암 주석

일반 신도들에게 법문을 할 때는 '아미타불'을 염하고 나서 법문을 시작합니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한번 부르면 나고 죽는 큰 죄, 팔백겁의 죄를 녹여버리는 공덕이 생깁니다. 나무아미타불을 한번 부른 공덕이 이러할진데 참선의 공덕은 말할 것도 없지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게 생기는 좋은 일, 나쁜 일 모두가 자신으로부터 비롯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모두가 남의 탓만 하고 있어요. 이는 죄 받을 일, 죽을 일을 만드는 것과 똑 같습니다. 모두가 '내 놀음'입니다. 내 마음, 내 공로만큼 받는 것이지 가만 있는데 부처님이 복을 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매일 세끼 밥을 꼭 챙겨 먹으면서도 법문을 듣는 것에는 게으릅니다. 법문을 듣고 앉아 있으면 다 아는 얘기 같거든요. 그러나 행이 따르지 않는 앎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불하기 전까지는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법문을 밥먹듯이 듣고 이를 부지런히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문을 수없이 들어도 돌아서면 잊어 버리는게 우리 중생들이예요. 아무 일도 없으면 심심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을 만듭니다. 일이 없으면 공연히 걱정스럽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모두 헛 것인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죄지을 일을 만들어 냅니다. 육근(六根)이 무사할 때 다시 말해서 여섯 도둑놈이 일이 없을 때가 제일 좋은 때인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귀 도둑놈, 눈 도둑놈, 코 도둑놈을 만들어 지옥에 가는 일을 만드는 판국입니다. 이래가지고도 도를 닦지 않는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눈 밝은 이가 보면 고생길이나 죽을 길만 일부러 찾아 다니는 것과 같아서 안타까워요.

천지의 은혜보다 귀중한 것이 불·법·승 삼보입니다. 성불할 때까지 이 삼보에 의지해서 쉼없이 정진해야 합니다. 좋은 법문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말입니다.

나는 일찍이 일본에 건너가 동양철학을 공부하면서 불교서적을 탐독했지요. 그 가운데에서 〈선관책진〉이라는 책과 일본의 유명한 선승 일휴선사의 어머니가 쓴 유언서를 읽고 나서부터는 도를 닦고 싶은 마음 간절했습니다. 그 뿐 아니라 그전부터 내게는 화두 비슷한 묘한 의문이 있었는데 '눈은 왜 두 개가 앞에만 있는 걸까?' 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그 시절 나로서는 강한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임제종의 유나(維那)로 계시던 서옹스님을 뵙고 〈금강경〉 한권과 '참선을 하라'는 말씀을 얻은 뒤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때 내 나이 스물다섯 되던 해 였습니다.

"六根 일 없을때 행복한데 사람들은 심심해 어쩔줄 몰라 고생 길·죽을 길 찾아다녀요"

그러나 출가의 길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첫째가 부모님의 결혼 간청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두 번씩이나 선을 봤지만, 남의 처녀한테 못할 짓 하는 것 같아 세 번째 혼담이 나왔을 때에는 출가의 뜻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결혼 한 뒤에 출가하면 안 되겠느냐고 더욱 간절히 부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어 "비구 스님에게라도 시집 올 여자가 있다면 결혼하겠습니다"고 말씀드렸죠. 이말에 두 어른은 며느리감을 두루 찾아 다니시다가 백양사 근처의 어느 절에서 노 비구니스님이 '스님과 결혼할 처녀가 있다'고 한 농담을 들으신 것입니다. 귀가 번쩍 뜨이셨겠지요. 저를 데리고 그곳을 찾아 가셨습니다. 결국 그 노스님과의 인연으로 나는 그 즉시 해인사로 가 출가하게 되었지요. 아무튼 부처님의 인연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렇다고 가는 길로 쉽게 출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일본식으로 '하이칼라'를 한 겉모양 때문인지 대중공사를 세 번이나 한 끝에 '중노릇 할 위인'이 못 된다는 이유로 해인사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임을 믿고 나뭇간이며 공양간 등에서 자고 하루에 한끼만 먹으면서 불 때고, 물 긷고 밥을 하면서 일주일쯤 출가에의 강한 집념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옹스님을 다시 만나 나중에 은사가 되신 인곡스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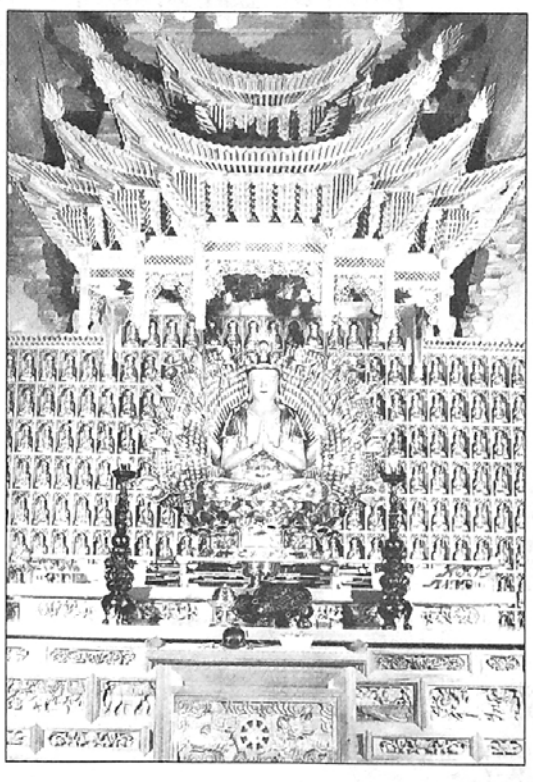
출가하고서 맨 처음에 한 것은 공양주였습니다. 가던 날부터 거의 잠도 못자며 불구를 닦고, 밥을 지었습니다. 밥 짓는 양도 잘 맞춰 나중에는 쌀 곳간의 열쇠를 받아 미감의 일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또 신발도 손수 지어 신고 헌옷 한 벌로 밤 새워 공부했습니다. 고된 행자 생활을 하던 어느날, 주걱으로 밥을 푸다가 문득 '나도 도를 닦으러 왔는데 딴 스님들 공양 준비만 해 주다 시간 다 흘려 보내는구나'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옆에 있던 스님한테 "배가 아프니 오늘 아침만 좀 해 주오"라고 부탁하고는 그 길로 떠났지요.

어렴풋이 백련암 뒤에 환적스님이 공부하던 '환적굴'이 있다는 말을 들은 바 있어 무조건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일주일만에 꼭 도를 깨치겠으며, 그러지 못할 때는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전당 **불 교 조 각 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02)738-8447~8

대표 이진형 합장

큰 스님 수행한담

그대로가 극락이지요"



◇1988년 천안 독립기념관 앞에서 법전(해인총림 방장) 일타(은해사 조실)스님 등과 함께한 혜암스님(오른쪽에서 두번째).

'일주일만에 도 깨치겠다' 한주 한주 참선정진 하다보니 40년 장좌불와 했어요

行 따르지 않는 앎은 아무 소용없어요 "남의 탓하지 맙시다…자업자득 아닙니까"

죽어도 좋다' 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환적굴을 찾지 못하고 대신에 다른 새로운 굴에서 '깨달음의 공부' 에 들어갔습니다. 굴 속에서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육일을 지내고 나니, 귀가 바글바글 울리고 손발 마디마다 빡빡하더군요.

그렇게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정진하면서 지금까지 사십년 '장좌불와' 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장좌불와를 하게된 동기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일주일만에 도를 깨치겠다' 고 마음먹고 매주 한 주일을 새로 시작하고 하다보니 어느새 사십년을 계속해 장좌불와를 하게 되었을 뿐인게지요.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에 걸림없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는 오래하고 있는 것보다 일도양단해서 간절히 할 때에 힘을 얻고 덕을 보는 것이지, 그저 오래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아무리 더 없을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내 마음' 을 몰라가지고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질이 풍부하든 그렇지 못하든 내 본 마음을 모른다면 귀신이 중간에 끼어들어 속이고 다니며 죽을 길로 끌고 갑니다. 어느때 어느 곳에서도 나의 주체성을 잃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입니다.

옛 도인의 말씀에, 태어나면 소금장사 밖에 할 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조금치라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 가서 행복을 찾으려고 야단이니 큰일입니다. 어서 빨리 자신의 마음 찾는 공부를 해야지요.

우리가 끌고 다니는 이몸은 길가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줍듯이 주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뚱이는 분명히 나의 것이면서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을 천번, 만번 소중히해 다시 태어나도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살아 보아야 괴롭기만 하지,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밥먹고, 세수하고, 화장실가고, 남을 돕거나 해치는 일, 뭐 그런거지, 그밖에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길에서 몸을 주웠듯이 몸보다 더 중요한 불법을 만나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 보물이 있는데 엉뚱하게 밖에서 구하려고 하니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콧구멍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 있고, 귓구멍 속에 한량없는 부처님 나라가 다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깨치고 보면 시방세계가 모두 나로부터 나오고, 하늘과 땅, 해와 달 역시 내가 만들어 낸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내 마음 자리에서 보면 수없이 스러졌다 일어서는 바다의 파도만도 못한 것입니다. 경전에 있는 말을 바로 알아야지 행여 짐작으로 안다면, 이는 크게 어긋나는 일입니다. 도는 모양이 없는 것이어서 물건과 같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천 분이 나타나신다 해도 나의 일은 모릅니다. 자기 마음은 오로지 자기가 깨달아 써 먹어야지요.

팔만대장경을 다 왼다고 하더라도 '이뭐꼬?' 하며 참선하는 사람을 당하지 못합니다. 도라는 것은 오직 내가 깨닫는 것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는 말이며 참선보다 더 큰 기도는 없습니다. 참선은 곧 활구(活句)요, 정법이요, 부처입니다. 도 앞에서는 부처라는 글자도 보잘 것 없습니다. 부처의 불(佛)자를 몰라도 부처님이 참선을 해서 부처가 되었다는, 이 뜻을 아는 사람은 그대로 '살 길' 을 만난 겁니다.

사람의 몸을 받았으니 참선 공부를 해 볼만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이러한 법을 만났다면 이보다 복이 많은 사람은 없겠지요. 이러한 법을 안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일지라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마음자리에서 보면 모든 인간관계가 터럭끝만도 못한 것인데 사람들은 '내 아들', '내 딸' 하면서 집착합니다. 이 집착을 버려야 병이 고쳐집니다.

사람이나 귀신이나 자식에게 집착하는 버릇은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부처님 시대에 어느 집에서든 아이만 낳으면 잡아다가 자기 새끼에게 먹이는 귀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귀신의 버릇을 고치려고 그가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막내아들을 빼앗아 왔습니다. 귀신은 애가 타서 부처님을 찾아와서는 "내 막내아들이 없어졌으니 부처님의 도력으로 찾아주십시오"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부처님은 "너도 자식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왜 사람의 아이를 잡아다가 네 새끼들에게 먹여 남을 슬프게 하느냐?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고 싶거든 이제부터는 사람을 잡아다가 먹이지 말아라"하시며, 바릿대에 담아 두었던 귀신의 막내아들을 내어주셨답니다. 이때부터 귀신은 바릿대 물을 먹고 살았고,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사람이나 귀신이나 할 것없이 모두 자기 자식에게 집착하여 죽을 길만 찾아다니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얼핏보면 부모와 내가 가까운 것 같아도 사실상 멀고 먼 관계입니다. 늘상 나를 따라다니는 내 몸도 내 본성과는 거리가 먼데, 하물며 부모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부모가 생기기 이전부터, 나아가 하늘과 땅이 생기기 이전부터 우리는 있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으니 육체로 보아서는 부모와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닌 것을 안다면 부모다, 자식이다 하여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중생들은 내 부모, 내 자식에 끄달려 죽을 길만 찾아 다니니, 부처님 법 아니면 어디서 이러한 바른 법을 깨우치겠습니까?

대구 관음사에 법문을 하러 갔다가 주지실에 잠깐 들렀는데, 그 방의 벽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걸려 있어요.

'삼생원가(三生怨家)
윤회본인(輪廻本因)'

이글은 효봉스님이 예전에 동화사 조실로 계실 때 써 놓으신 여러 현판 가운데 하나입니다. 효봉스님의 손상좌인 관음사 주지스님의 말이 현판식을 하려고 현판을 찾아보니 유독 이것만 없어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더니 뒷 방을 고치려고 마루를 뜯다가 마룻장 밑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비로소 명언이 빛을 본 셈이지요.

이 글의 뜻은 살아서 복짓는 일이 전생, 금생, 후생이라는 삼생의 원수요, 윤회의 근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을 짓고 살아봐야 나고 죽는 씨앗이 되어버려 천상의 불구덩이밖에 못가고, 불구덩이에 가면 도로 지옥에 가지요. 지옥과 천상은 한 집안이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만이 고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고 있어서 그렇지, 나고 죽으러 다니는 고생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뼈마디가 다 녹아들도록 괴롭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경전에 보면 나고 죽을 때의 괴로움이 모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고 죽은 일이 없는 극락세계가 있는데 왜 사서 그런 고생길을 만듭니까?

중생이 이러한 고통을 받지 않게 하려고 길잡이하러 나온 이가 바로 성인입니다. 성인은 부처님의 하인노릇을 하려고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우리도 이를 본받아 부처님의 하인노릇을 하려는 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대로가 극락이니까요.

정리=도필선 기자

관법이 기도·염불보다 낫습니까

문 스님께서는 불자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기도나 염불에 대해서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대신 마음공부와 관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까닭을 다시 들을 수 없겠는지요.

〈장오월·강원도 정선군 북면〉

답 우리들 몸 속에 지금 많은 모습과 수십억개, 아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습과 의식들, 생명들이 들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치 한 나라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것과 같은데 그 하나 하나가 다 각각이면서 동시에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말해 그 중에 어느 어느 것만이 그 나라이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할 수 없지요. 큰 회사에서 각각의 공장이 있고 직원이 있다고해도 공장이나 회사, 사원이나 사장이 둘이 아니지요. 그게 둘이라면 두 회사고 두 나라이지 한 회사, 한 나라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몸에도 수많은 의식과 생명이 있지만 그게 하나요 한마음인 것입니다. 물론 이 몸뚱이는 시자노릇을 하고 마음은 주인노릇을 한다지만 저 자동차가 움직일때 차와 운전기사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듯이 내 마음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몸이 자동적으로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라는 것 말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선업·악업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그래서 갖가지로 망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어쩌지 못해서 그만 쩔쩔매고 울고 웃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게 도무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니까 마음대로 대처하지를 못합니다. 운전기사가 운전기사 노릇을 못하고 사장이 사장 노릇을 못하고 맙니다. 가령 차가 어디에 고장이 생겼다고 할 때, 나라 한 구석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다고 할 때 그것의 나온 곳을 알아야 처리하는 도리도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면서 고작 한다는 일이 내가 한다, 내가 먹는다, 내다, 내다…, 하기만 하니 그러다가 몸 떨어지면 그야말로 헛고생하고만 셈이 됩니다.

내게 다가오는 일들이 유전성에서 온 것인지 영계성에서 온 것인지 업보성에서 온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녹여 버리든지 할텐데 그걸 모르니까 새 물을 먹을 줄은 모르고 하고한날 묵은 물만 먹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가 뭔지도 모른채 '아이구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한다든가 '어디 영험한 곳은 없나' 하고 두리번 거리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그런데에 매달리라고 이 불교를 세우셨다고 보십니까? 불교란 '불' 하면 영원한 생명에너지요 '교' 하면 사생이 유위·무위로 통하며 돌아가는 이치를 말하는 것인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영원한 진리를 터득해 누구라도 자유인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지 밖으로 형식이나 형상에 매어 달리라고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란 말입니다.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빛깔도 없지만 그 그릇 아닌 그릇에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담을 수도 있고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아니 미치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근본 마음자리는 무한량이요 위대하면서 그 묘용이 이루 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뭐가 아쉬워서 망상에 끄달리고 경계에 묶여 울고 불고 애를 태워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한번 잘 새겨 들어 보세요.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오지않았으니까 없고 현재는 공했으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내가 딛고 온 발자취를 불들고 늘어집니까? 앞으로 내딛는 발자국을 미리 생각하면서 떼어 놓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 딛고 서 있으니 그냥 그렇게 딛고 서 있을 겁니까? 어느 것 하나라도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불바퀴는 돌고 돕니다. 바로 지금.

그런데 그걸 붙잡고 늘어져요? 영원히 계속 될거라고?

그래서 나오는 건 나오는 대로 연방 되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나온 그 자리에다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된다고 합니다. 안된다는 생각도 돌고 도는 불바퀴에서 나온 것이니 되놓아야 하지요.

그러기에 되는 것 안되는 것이 다 돌고 도는 거기서 나온 것이니까 안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 되는 것을 안되게 하는 것도 그자리 밖엔 없다 하고 놓는 것입니다. 해주시오 하는게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관법입니다. 그 자리에 놓고, 맡겨놓고 관찰하고,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참선이 따로 있어서 참선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튀어 나오는 악업·선업의 의식들을 나온 즉시 되놓아 녹이는게 바로 참선이요 계·정·혜 삼학인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공부 이외에 또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된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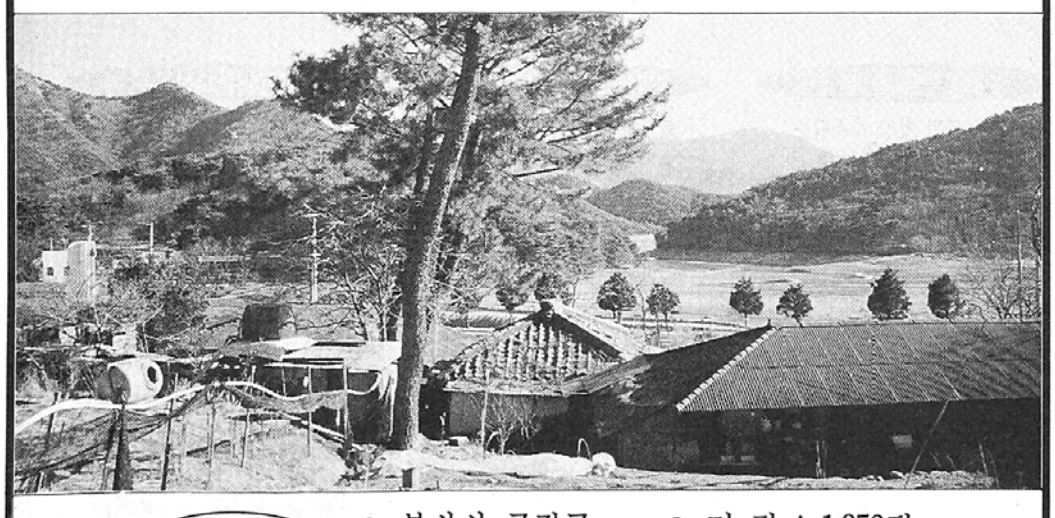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사찰·수련원·휴양시설·노인복지회관 부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오륜수원지 인접

동래관광호텔에서 단 15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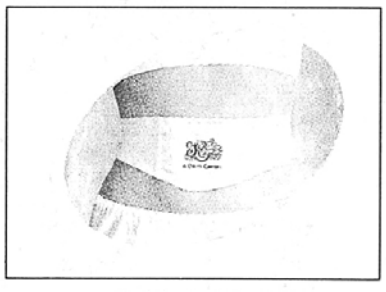
소재지 ● 부산시 금정구 ● 면 적 : 1,352평
● 건 물 : 4동 (법당, 요사채, 식당으로 사용)

불사에 원력을 세우신 스님, 불자님들께서 직접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 상담문의 : (051)516-9997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저는 1남 1녀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몸이 약하고 힘든 탓인지 2-3년 전부터 불면증과 방광염이 생기면서 얼굴에 기미가 끼기 시작하더군요.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있었는데 언니가 한약재 성분으로 만든 "향비" 라는 배꼽에다 착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먹고 바르는 약이 아니라서 부작용이 없을것 같다고 사용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신 반의 하는 마음으로 착용해 보았더니 얼마되지 않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면증이 없어지면서 사람들로부터 피부가 고와졌다 예뻐졌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아도 화장도 잘 받고 기미도 얕아지고 혈색이 잘도는것 같아서 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 6개월이 되었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꼰기 있게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착용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향비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저처럼 기미, 불면증, 방광염, 생리통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권해보고 싶은 제품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 지 희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고은 불교대하소설

지옥순례 ①



131



"중생 가운데로 함께 갑시다" 불이는 흑승지옥서 한 중생을…

"아직은 손 쓸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구경하는 것이 우리의 짓거리인가요" 보살일행은 지옥광경에 망연자실했다

그런데 지옥은 아귀나 아수라가 그런 것처럼 인간계의 어떤 곳까지도 슬며시 이어져 있는지 모른다. 지장보살이 보살로서는 가장 비장한 서원을 하고 간 지옥이 지옥의 가장 밑바닥인 아비지옥-무간지옥-인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당장은 인간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삶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불가촉천민의 그 극빈과 질병 그리고 끝없이 감당해야 하는 억압과 중노동의 현장을 그 첫걸음으로 삼은 것은 거의 틀림없다.

합두보살이 무전보살의 말에 한마디 대꾸를 준 것은 그들이 있는 곳으로 저쪽에서 누군가가 다가올 때였다.

"지장보살은… 아마도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말뚝으로 흙에 박히기를 바라지 막대기로 물에 떠다니는 것을 바라지 않는 보살이기에…."

그들에게 다가온 보살은 사바세계 승신주에서 인간노릇을 한 보살이어서인지 키가 유난히 크기도 하였다.

"나는 파우라 합니다."

섬투주의 수많은 말보다 그의 말은 아주 높은 음정이었다. 그 키와 그 몸집은 꼭 땅이라도 쭉 끼지도록 우람한데 정작 그런 몸에서 나오는 말소리는 새소리에 가까웠다.

불이, 합두, 무전보살은 그의 티없는 마음씨가 환히 보이는 듯한 파우보살을 진정으로 맞이하였다.

그들은 허공 중의 습기가 자아낸 아주 작은 이슬방울로 만든 차를 한 잔씩 마셨다. 차 한 잔으로 몇겁을 함께 살아온 것처럼 서로 친밀해졌다. 그것은 이쪽의 빛이 저쪽을, 저쪽의 빛이 이쪽을 비추는 일로 어우러지는 그런 기쁨을 낳았다.

"함께 중생 가운데로 갑시다. 보살이란 중생없이는 보살도, 보살의 옷자락도 아니겠지요."

"갑시다."

"갑시다."

합두가 춤추는 것처럼 앞장섰다.

지옥의 첫번째가 등활지옥이다. 그곳의 하루 24시간은 인간계의 9백만년에 해당한다. 길고 긴 시간의 단위인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고통을 받는 중생은 그곳 시간으로 5백년의 형기(刑期)를 채워야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으니 인간계의 시간 1조4백25년이나 걸리는 셈이다.

이런 긴 시간의 고통은 살생을 한 죄업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다. 산 것을 죽이는 일이 죄가 되는 줄 알고 있는 것이 사람 밖에 없다면 이 살생죄로 인한 이곳의 고통은 결국 사람부터 단죄하는 것이 그 목적인가.

여기서는 말대가리 옥졸이 쇠몽둥이로 사정없이 내리쳐 사람 형상의 지옥중생은 그 몸이 박살나고 만다. 그런 몽둥이질 말고는 칼로 살을 난도질하는 고통도 받게 된다.

물론 이곳의 중생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더라도 그들끼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것이다. 그런 싸움으로 그곳에서의 살생죄를 짓는 일도 많다.

과연 지옥중생은 그만큼 살벌한 성정을 보여준다. 누구나 다 그런 살벌함 때문에 걸핏하면 싸움이 나고 그 싸움 끝에 누군가가 죽게 되는 것이다.

불이보살을 비롯해서 합두 무전보살과 전생 승신주에서 살다가 보살로 화현(化現)한 파우들이 그들이 보살이기 때문에 보살이 고통받는 중생의 벗으로서 이곳에 온 것은 당연하다. 쥐가 쥐구멍에 들어온 것처럼.

그들은 이 등활지옥의 무덥고 습기 많은 지옥에서 맨먼저 그곳에 와있는 중생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불이보살은 전생에 익힌 화엄경의 한 마디도 정작 이곳에서는 파초 잎사귀 너울거리는 한가한 미풍의 마당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삼천대천세계의 겨자씨만한 어느 곳도 보살이 중생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지 않은 곳이 없도다.

이런 말이 지극히 경건한 것일수록 이 지옥의 현장에서 쇠몽둥이에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울부짖는 고통 앞에서는 아무런 실감도 없었다.

오로지 이곳에서는 끝없이 온몸이 박살나는 아픔과 칼에 난도질 당하는 아픔만이 이어질 따름이었다.

불이보살 일행은 이곳에 와서 아무런 일도 할 수없이 망연자실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곳의 방과 바닥에서는 피투성이로 쓰러진 중생도 있고 쓰러지기 직전의 중생도 있었다.

그런데 불이보살은 그런 고통으로 가득한 곳이지만 거기서 일정한 운율(韻律) 같은 것을 알게 되었다. 영땅진창의 형벌로 된 혼돈이 아니라 거기에는 일정한 음악에 가까운 법칙이 있었다.

일단 쇠몽둥이에 얻어맞거나 칼에 마구 찔리거나 해서 비명조차 지를 수 없게 되는 그런 고통 뒤의 중생은 의식을 잃고 죽게 된다.

바로 그때 그렇게도 무더운 그곳에 한 갈래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었다. 그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여기저기 널부러진 피투성이로 망가진 시체에 다시 제대로 손발이 생기고 알아볼 수 없게 된 머리통에 눈과 코와 귀 그리고 입이 생겼다. 아니 그 무시무시한 고통과 죽음의 공포조차 잊어버렸는지 빙그레 웃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과연 생명의 바람이었다.

그런데 그 서늘한 바람이 조금 뒤 찬바람으로 바뀌어지며 죽었던 중생이 이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되어 일어났다.

아마도 이렇게 죽었다가 깨어나 살아나기를 벌써 몇천만번 몇억만번이나 한 모양이지만 그 중생은 처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새로운 생명에의 희망을 살려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곳이 어디이겠는가.

그런 서늘한 바람이나 찬바람이 아니더라도 옥졸 쇠대가리나 말대가리가 쇠갈퀴로 바닥을 두들겨 깨어나거나 공중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내어 깨우거나 해서 다시 살아난 그 중생은 어떤 기간의 여유도 주지 않고 다시 쇠몽둥이질로 피투성이를 만들거나 온몸을 벌기 퀴르기로 칼질을 하는 것이다.

등활(等活)의 뜻은 그렇게 토막토막으로 살아났다가 고통끝에 죽어야함이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살아난 한 중생에게 무전보살이 물었다. 그러자마자 그 중생이 "이따위 새끼가 주둥이를 달고 뭘 중얼거리는 거야. 이 새끼가" 라는 욕설을 퍼부어댔다. 무전보살은 일단 물러났다. 그 험상궂은 등활지옥의 중생을 함부로 가까이하여 제도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노릇이었다.

불이보살이 그런 무전보살을 데리고 저만치 갔다.

"아직은 우리가 손을 쓸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자 무전이 볼멘소리를 하였다.

"그렇다면 저렇게 해골바가지가 터져 골수가 쏟아지고 피범벅이 되도록 맞고 찔리는 고통을 그대로 구경이나 하는 것이 우리 보살들의 짓거리란 말입니까."

"자 함께 갑시다" 라고 합두보살이 나섰다.

등활지옥 밑에는 흑승지옥이었다.

시꺼먼 빛깔의 먹줄은 대개 목수들이 집을 짓기 위해 재목에 먹줄을 튕겨 직선을 긋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그 먹줄 튕겨진 직선을 따라 톱질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 먹줄이 이 지옥에 떨어진 중생의 몸에 그어지는 것이다. 가로세로 열십자로 네모꼴 칸을 만들어 온통 몸뚱어리가 바둑판처럼 먹줄이 그어진 다음 이곳 옥졸들은 그 먹줄 선을 따라 쇠도끼나 톱으로 절단하는데 그런 형벌의 과정에서 생겨난 주사위와 비슷한 살덩어리가 피투성이로 흩어지는데 그 악형의 고통은 무어라고 형언할 수 없다.

비록 도끼로 쪼개거나 톱으로 써는 형벌이 아니더라도 이미 불에 시뻘겋게 달구어진 쇠끈으로 묶인 몸 자체가 받는 그 뜨거운 고통은 더이상의 고통을 모를 정도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도끼질과 톱질 그리고 뜨거운 쇠줄로 묶이는 형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높은 벼랑과 벼랑 사이에 쇠줄이 걸려 있다. 그 쇠줄 밑으로는 아스라하게 뜨거운 불이 펄펄 끓어대고 있는 커다란 가마가 있다.

흑승지옥에 온 중생은 그 쇠줄을 타는 위태로운 곡예의 명령을 받는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곡예를 잘하는 중생이 만에 하나 있을지라도 어김없이 쇠끈 중간에 와서는 발을 헛디디게 되어 있다.

그 천길 밑의 끓는 물 쇠가마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거기에 빠진 중생의 몸뚱이가 튀겨지는 고통이다.

어디 그뿐인가.

다른 바탕에서는 쇠줄 그물이 불에 실컷 달구어져 그 그물에 형벌 받아야할 중생을 밀어뜨려서 그 뜨거운 쇠줄그물이 옥죄어드는 고통을 받게 되는데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 부채질까지 하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 이를테면 12조8천9억년동안이나 토막내는 처형이 한 중생의 몸에 되풀이되기도 한다.

불이보살은 바로 이 흑승지옥에서 전생 인간계의 어느 곳에서인가 만난 적이 있던 중생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중생은 한 고을만한 땅을 독차지함으로써 많은 소작인과 노비를 부리던 전직 감사의 아들이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그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두 동생을 무고하여 역적으로 죽인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곳은 도둑질로 무엇을 가질 수 있는가를 밝혀주는 천당이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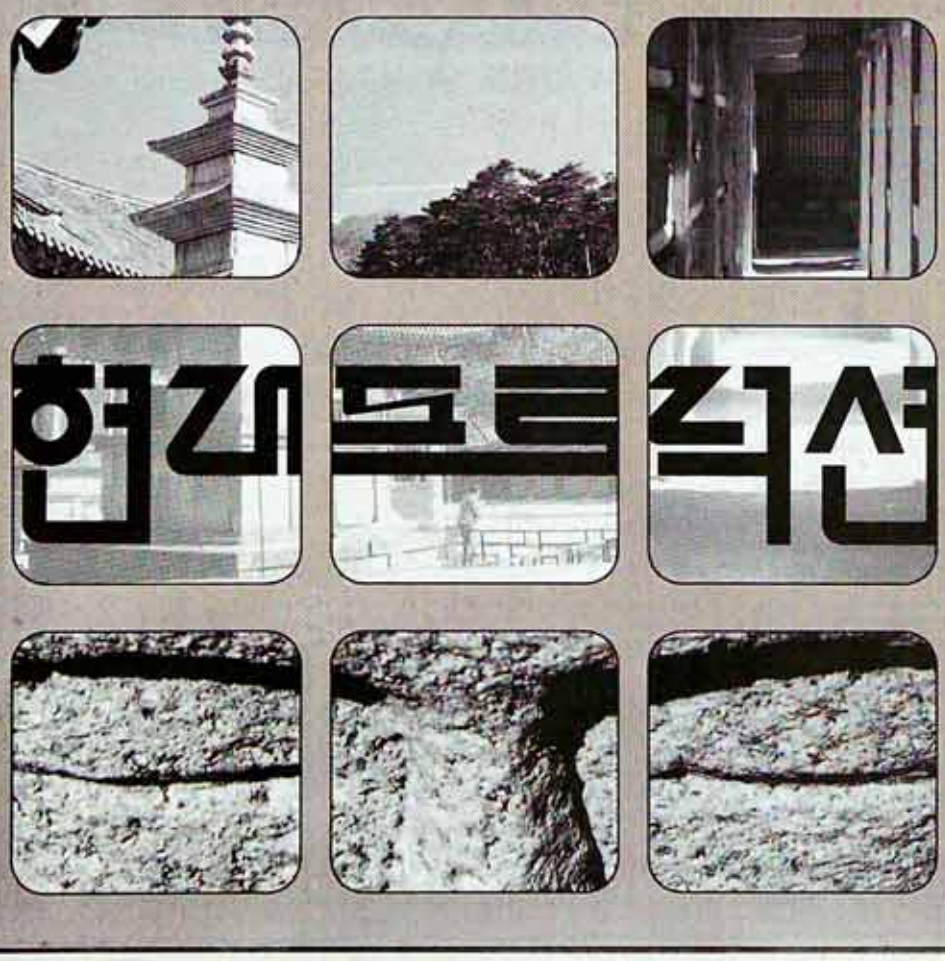
그런 큰 뜻말이 서 있는 것 같았으나 그 뜻말을 누군가가 가려서 더는 볼 수 없었다. 그래서 합두보살만이 그 뜻말의 글씨를 읽었다. 그 글자는 범어도 아니고 한자도 아니었으나 보살들은 읽을 수 있는 글자인 것은 분명하였다.

소유에 사로잡힌 도둑질, 아니 소유의 의미 자체가 이미 도둑의 의미가 아니면 무엇이던가. 물론 절도나 강도와 함께 소유 자체도 도둑질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이곳 흑승지옥은 많은 강도들이 형벌을 받는 곳이었다. 그런데 이곳에는 가령 의적(義賊)은 오지 않는 대신 권세를 주름잡은 대신이나 사또들 그리고 백성의 피를 빨아댄 아전들은 영락없이 와 있었다.

그렇다면 인간의 물욕 소유욕이 도달한 곳이 바로 여기였던 것이다.

그림·조향숙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비하여 불교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점단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 현대불교신문의 발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다피아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제작
-사찰의 역사, 배출한 인물, 고승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사찰·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삶의 현장,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야 할 21세기 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 사찰·불교 단체 행사 촬영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중계
-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 법회·행사 기획·연출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행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연출

•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 걸맞는
종합불교언론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주소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2-1 강남B/D 202호

전화
(대) 02-737-8881 / (직통) 02-305-9320

팩스
02-375-4143

DMZ 문화재 보호 무방비 상태

운장리석불상등 훼손방치
도굴실태 파악 불가능
원형보존대책 세워야

휴전선 부근 군사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의 사각지대인가.

민통선을 비롯한 군사보호지역내 문화유적이 거의 무방비상태로 방치돼 있다. 심지어 도굴꾼에 의해 훼손 사장되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임진강변 모부대에 위치하고 있는 파주 마애사면석불은 한강 이북 지역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돼 뒤늦게 도지정(유형문화재 156호)을 받았지만, 마멸이 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해 보호각 설치 등 보존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군사보호구역은 비무장지대·민통선지역·민통선 이남으로 구분돼 있다. 비무장지대에는 단 한 건의 지정문화재도 없다. 주위가 온통 지뢰밭이라 조사나 그에 따른 문화재보호가 거의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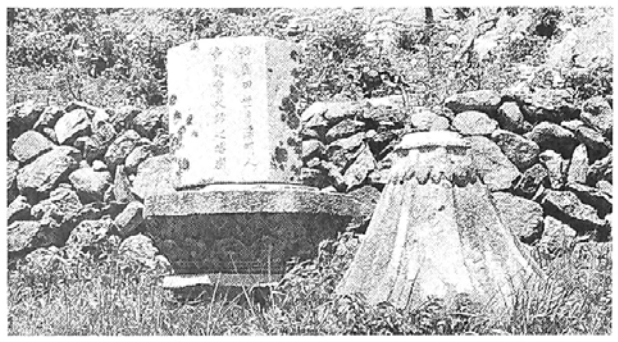


◇철원군 운장리 석불상. 아무런 보호시설없이 우거진 수풀속에 방치돼 있다.

민통선지역내에 있는 고려시대 묘는 봉분은 물론 석실안이 통째로 도굴당한 채 파헤쳐져 있다. 많은 부장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지난 50년간 남북의 대치상황에서 방치돼 도굴된 문화재 실태조차 전혀 파악할 수 없다.

파주군청의 전상호씨는 "휴전선 이남의 군사보호구역은 정부도 민간인도 군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각지대라 도굴꾼들이 농번기때 일손을 돕는 척하다가 문화재를 반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조선시대의 석불상으로 추정되는 운장리 석불상은 무성한 풀밭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

민통선 이남도 사정은 마찬가지. 군부대나 훈련장 등 군사시설이 밀집돼 있어 사전조사없이 군부대 임의대로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연천 심원사지는 부대 안에 있어 조사나 발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부도군(경기도유형문화재 138호)만이 군부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절터의 돌축대와 와편 등은 아무렇게나 널려있다. 인제군의 경우 최근 환경영향평가없이 군사종합훈련장이 만들어져 부근의 탑 3기가 그대로 땅 속에 묻힐 뻔했다. 강원도청이 이를 문화재자료 118호로 일괄 지정해 이전해야만 했다.



◇정비된 외관과 달리 옥개석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땅위에 내버려져 있는 부도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동현)는 통일을 대비, 개발로 인한 문화유적의 파괴방지를 위해 91년부터 휴전선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조사, 현황파악에 나서고 있다.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이 조사는 현재 연천·파주·철원·화천·양구 등 5개군을 마친 상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실 김성배씨는 "우선 민통선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10개시군의 지표조사를 통해 중요한 문화유적은 국가나 시도문화재로 지정하고, 이를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뒤늦게나마 휴전선 부근 문화유적보호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지표조사를 통한 현황파악만이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윤기석 기자

경기국보전 금은입사공예전 민속자료전

박물관특별전 '볼거리'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국·도립박물관들이 잇따라 특별전을 마련, 관람객들을 시원한 전시실로 이끌고 있다. 경기도박물관의 '경기국보전', 국립중앙박물관의 '금·은입사공예특별전', 국립민속박물관의 '예용해선생 기증민속자료전' 등 세 곳의 전시회가 그것.

경기도박물관(관장 장경호)은 개관 1주년을 기념해 21일부터 8월3일까지 특별전시회 '경기국보-포용과 슬기의 자취'를 열어 국보 186호인 양평출토 금동여래입상을 비롯한 국보7점, 보물23점, 도유형문화재5건 등 총 1백15점을 선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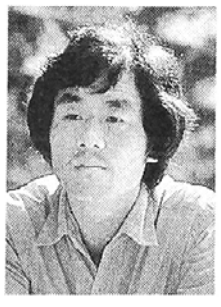
또 전시기간 중 2차례에 걸쳐 학술강연회도 열린다. 27일에는 '경기도의 불교문화'(홍윤식 동국대교수) '분원과 조선도자'(정양모 국립중앙박물관장)가, 7월11일에는 '경교명승첩과 겸재'(최완수 간송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조선시대 선비의 삶과 멋'(정옥자 서울대교수)이 발표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은 새 박물관으로 이사후 처음으로 특별전시회 '금·은입사공예특별전'을 7월1일부터 8월1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현존 최고(最古) 향완인 표충사 은입사향완(국보75호)을 비롯 청동은입사표류수금문정병(국보92호) 등 우리나라 금속공예의 백미로 꼽히는 금·은입사공예품 1백30여점이 소개된다.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조유전)은 25일부터 7월28일까지 '예용해선생 기증민속자료전'을 마련하고 있다. 언론인으로 민속학자로 평생을 전통문화의 수집과 보존에 힘써온 故 예용해선생은 지난 94·95년 총 2백90점의 민속공예품을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했다. 이 중 조상의 체취와 생활의 멋이 배어 있는 60여점이 전시되며, 곱돌·대리석·화강암 등 다양한 석제품들이 소개돼 그 재질과 쓰임새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승원 자전소설 '해산가는 길'

"존재의 참의미찾는 여행"



"길을 생각할 때마다 석가모니를 생각합니다. 석가모니는 길에서 태어나 맨발로 열사의 땅 인도를 걸어서 전도생활을 하셨으며 결국 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석가모니가 갔던 그 길이 곧 내가 가고 있는 운명의 길이요, 누구나 걷고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연꽃바다〉 등의 작가 한승원씨(59)가 최근 〈해산가는 길〉(문학동네 刊)을 펴냈다. 아들인 한동림씨가 작품 발문을 써 화제가 되고 있는 소설 〈해산가는 길〉은 한씨의 자전소설로 작가의 유년기와 소년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의 호이기도 한 해산(海山)은 바다속에 있는 높이 1천미터 이상 되는 큰 산이라는 의미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

한씨는 자신의 소설이 "비가시적이며 근원적인 존재와 가시적인 존재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의미와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주내용"이라며 "어떤 이야기를 통해 주제를 드러낸다는 것은 1차적인 의미전달일뿐이고, 자신의 절실하고 참담한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2차적이며 본질적인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책은 작가의 고향인 전남 장흥의 시골 마을로 가는 도정을 떠올리면서 시작해 주인공이 35㎞정도 되는 길을 따라 쌀짐을 짊어진 채 학교에 등교하는 것으로 끝난다.

한씨는 소설의 대미를 이렇게 쓴 것에 대해 "이 길은 샛길이 아닌 물어가며 우회하는 낯선 길로 내 운명과 동일시되는 상징"이라며 "몇 년 후 맞이하게 될 회갑때 청년기의 방황·절망·열정을 담은 2부를 내고 싶어 만든 연결고리지만 얼마나 치열하고 진실되게 그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연〉



◇강익중 作 '오페라를 부르는 붓다'

"3인치 회화 모여 포용의 세계"

강익중씨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상 수상

'산타 부처' '쵸코렛을 먹는 붓다' '영어를 배우는 붓다' 등 동양정신을 대표하는 붓다시리즈로 유명한 재미작가 강익중씨(37)가 제47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백남준(93년 황금사자상), 전수천(95년 특별상)씨에 이어 한국미술가들이 3회 연속 수상했다.

15일 개막한 세계최고 권위의 미술제 베니스비엔날레에서 강씨는 사방 3인치의 '오페라를 부르는 붓다' '비빔밥 만들기' '한자를 배우자' 등 1만3천여개로 이루어진 목각부조 설치미술을 출품, '오페라를 부르는 붓다'는 동양정신을 대표하는 부처가 서구문화의 핵심격인 오페라를 배우는 작업을 상징화했다.

강익중씨는 1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행크 아론은 야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구를 하는 자신을 관조한다고 했다. 나도 미술을 한다기보다 미술을 하고 있는 자신을 관조하며 삶의 높은 곳에 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익대를 졸업하고 지난 84년 뉴욕에 건너가 프랫 인스티튜드에서 수학한 강익중씨는 가로×세로 3인치(7.5㎝)의 작은 캔버스에 일상에서 만나는 사물을 새긴 3인치회화를 즐겨 작업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작은 공간에 주변의 작은 일이나

목각 부조 만3천여개로 만든 4가지 형태 설치미술 출품



스쳐가는 풍경, 일상생활의 관찰이나 기억, 염원 따위를 파편적인 이미지나 휘갈긴 낙서 또는 경구로 새겼다. 이 작은 그림들이 수백 수천개의 형태로 또 다른 전체를 창조하며 우리 전래의 문화적 포용성 융통성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거침없이 표현해내 주목을 끌었다. 강익중씨의 작품 8천여점은 미국의 가장 영향력있는 미술관인 LA MOCA (Museum of Contemporary Art)에 한국작가로는 첫 별도 전시실에 소장될 만큼 백남준이후 국제미술계에서 주목받는 한국 작가이다. 〈숙〉

문화 소식

팔만대장경 변상도 전시

해인사는 7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해인사 구광루에서 팔만대장경 변상도 전시회를 갖는다.

경전의 주요 내용을 함축적으로 그려 불교의 오묘한 진리를 그림으로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회에는 화엄변상도 등 변상도 30여점과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해인사의 변모를 한눈에 볼수 있는 자료사진, 해인사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담은 풍광사진도 함께 전시된다. (0599)31-1023

이선옥씨 뉴욕 선무공연

재미무용가 이선옥교수(뉴욕대)씨가 행선(行禪)의 원리를 춤에 응용한 선무공연을 28일과 7월 8~9일 뉴욕에서 갖는다. 28일 뉴욕 링컨센터에서 열리는 아시아 무용필림 페스티벌과 7월 8~9일 다니케이 극장에서 열리는 제3회 아시아 현대무용제에서 갖는 이번 공연에는 선무 '바라밀다Ⅱ-1997'이 선보인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 총 6부로 구성된 이 작품은 사물놀이패 한울림이 출연해 동서양의 조화를 이루는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도선사 설산스님 시비 제막

"…연(緣)은 무상이요 정(情)은 환멸인데 산에서 사는 사람은 마음이 없다하오…."

도선사 경내에 이같은 내용의 시비가 세워져 13일 제막식을 가졌다. 참배객들에게 불법을 시어로 집하게 하는 이 시비는 주지



◇도선사 경내에 세워진 설산스님 시비.

故 임군홍씨 미발표작품전

갤러리 도올(대표 신동은)이 마련하는 특별기획전 임군홍(1912~1979) 미발표작품전이 25일부터 7월 8일까지 관훈동 갤러리 도올에서 열린다.

우리나라 근대미술사에 한획을 긋는 임군홍씨는 6·25때 납북되어 북한에서 활동하다 1979년 타계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임군홍의 '보살상' '불상' '골목인상' '소녀' 등 60여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02)739-1406

동광스님이 1천일 기도 성취 회향을 기념해 세운 것. 시는 설산(정토사 주지)스님의 '산거(山居)'.

◇기사넘쳐 '불심시심' 쉽니다.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는 실천이지 이론이 아니다. 하지만 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따라서 기도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성취 만큼이나 중요한 일인 것이다."

생활 속의 기도법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인 ≪기도≫의 발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기도 방법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저는 현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옳은지요?"….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저자로서의 책임을 느낀 스님께서는 다시 집필을 시작,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 ≪생활 속의 기도법≫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 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세세한 일타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B6 / 160면 / 값 3,500원
제1장 〈기도 성취의 지름길〉 제2장 〈생활 속의 기도법〉 제3장 〈특별 기도 성취법〉 제4장 〈영가 천도 기도법〉

祈禱 기도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 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체험담을 엮은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가 실린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Ⅰ.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Ⅱ.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Ⅲ. 업병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Ⅳ. 목숨을 구한 일념의 기도
Ⅴ.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Ⅵ. 기도인을 바른 길로

일타큰스님의 알기 쉬운 불교책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값 4,500원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범망경보살계1~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변(無碍辯)을 기록·편집한 책 신국판 / 1~5권 각권 값 6,000원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샘솟는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0,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팩스 : (02) 586~9078

15번째 시집 발간 서 정 주

황 수 영 연구 총정리 작업

팔순 아랑곳 "아직 현역"





80소년… 93년 이후 작품 44편 수록

미술사학계와 시문학계의 최고봉이면서 '원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왕성한 현역활동을 펼치고 있는 초우 황수영박사(80)와 미당 서정주 시인(83). 각자의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을 이뤄온 두 거목이 그간의 연구를 총집결한 전집과 15번째 시집을 발표한다.

불상, 탑파 연구의 권위자로 우리나라 미술사학계를 대표해 온 황수영박사(전 동국대 총장)가 다음달 초 〈불교와 미술〉을 시작으로 5권의 전집을 발간한다. 이 책은 황박사의 팔순을 기념, 후학들이 마련한 〈초우 황수영박사전집〉 전(全) 5권중 첫번째로 출간되는 것.

특히 이 〈불교와 미술〉은 광복직후 황수영박사가 주관했던 각 불교유물 발굴과정과 에피소드 등 황박사의 풍부한 발굴 경험속에서 녹아나는 이야기들을 담았다.

이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한국의 불상 上〉, 〈한국의 불상 下〉, 〈불교미술〉, 〈금석문〉등 5권을 차례로 펴낼 계획이다.

이들 책에는 그동안 황박사가 〈고고미술〉 등 각종 학술지에 발표했던 논문들은 물론, 미발표 논문들까지 함께 수록한다.

〈한국의 불상 上〉에는 삼화출판사에서 출간됐던 〈한국불상의 연구〉등이 실리며, 〈한국의 불상 下〉에는 반가사유상에 관한 논문들과 불국사, 석굴암 관계 글들이 주로 포함된다. 불상외에 사경 탑파 공예 등 불교미술에 관한 연구물들은 〈불교미술〉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된다. 또한 〈금석문〉편에는 황박사가 그동안 수집했던 각종 불교관련 금석문들을 고스란히 엮어낸다.

1941년 〈화사집〉이래 60년간 불교적 기본정서속에 토속적인 으리네 정서와 삶을 노래해 온 미당 서정주 시인은 얼마전 15번째 시집 〈80소년 떠돌이의 시〉를 탈고했다.

시와 시문학사에서 곧 출간될 이 시집은 93년 출간한 〈늙은 떠돌이의 시〉이후 올초 까지 써온 44편의 최근 시를 묶는다.

'아내손톱/ 말쑥이 깎아주고/ 난초 / 물 주고나서//무심코 눈주어 보는/ 매화 꽃 피는/한 봄날의 햇살이어//도로아미타불의/도로아미타불의/그 뜩히 빛나는/내 햇살이여'

'도로아미타불의 햇살'에서 시인은 일상적인 삶의 단상들을 불교적 정서로 풀어낸다.

'한국의 불상' '금석문' 등 5권 초우전집

또한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선운사 부근의 고향과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꼬리아홉달린 여우이야기, 초등학교 시절의 첫사랑이었던 여선생님 등 아련한 유년시절의 추억을 시상으로 그려내고 있다.

'모란꽃은 시들어 떨어져서/꽃빛만이 더높이 날아 올라서…그 빛깔까지 다 벗어 던져 버리고 /색계와 무색계 넘어/열반에 들 자취도 없이 앉아 계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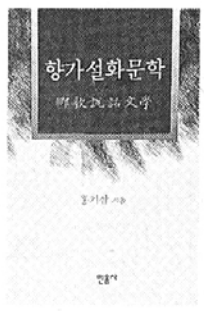
'한송이 모란꽃'에서는 자신의 생사관을 그대로 투영시켜 세속을 초월하는 대자유인의 경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번 황수영박사의 전집 발간과 서정주시인의 시집은 불교계 두 원로들의 평생의 연구업적을 한데 묶고 또 농익은 네면을 새롭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결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은자 기자

향가설화에 담긴 불교사상 분석

향가설화문학 | 홍기삼 지음



삼국유사에 담긴 설화가운데 향가 설화라고 불리우는 '수로부인', '처용랑 망해사' 등 12편의 설화를 대상으로 종교적, 역사적 맥락에서 우리나라 향가 설화문학을 재조명했다.

'효소랑대 죽지랑'은 불교적 윤회전생의 사상을 담고 있으며 '분황사 천수대비 맹아득안'설화는 불교의 예배대상인 탑과 불상의 유래와 수용 등을 나타내고 있다고 저자 홍기삼교수(동국대 국문과)는 설명한다. 홍교수는 향가 관련 설화들의 개별적인 분석을 통해 전설장르의 특성을 존중하는 해석과 분석방법을 탐색하고 있으며, 더불어 설화를 통해 한국 고대의 불교가 무속신앙을 비롯한 여타의 신앙이나 종교에 대해서도 개방적이고 절충적이었음을 고찰한다.

〈민음사 2만5천원〉

화제의 책

종단·사회문제 등 다룬 테마칼럼

대중공사 | 남현 지음



불교계내의 각종 제도에서부터 남북관계, 미래사회, 민족과 민중, 제반사회문제 등을 하나의 논제로 삼아 불교의 역할을 망라한 테마형식의 이 칼럼집은 남현스님(한일문제연구소장)이 집필했다.

총 11장 100편으로 구성된 이 칼럼집에서 스님은 근본불교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오늘날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취약점을 중점적으로 짚어 그에 대한 지론을 제시한다. 스님은 특히 조계·태고분규사찰문제, 불교방송문제등 불교계의 현안문제들을 비롯 한보사태, 노사갈등, 대권문제 등 우리사회의 현실까지도 날카롭게 짚어낸다. 이같은 글들을 통해 스님은 21세기 문명사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교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평 8천5백원〉

출판소식

고전자료센터 운영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정기영)은 개인이나 서원, 사찰 등에서 소장한 고서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 수집하기 위해 '한국고전자료종합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02)535-6306

'전등록' 번역 출간

1700공안이 수록된 선종 최고의 고전 〈전등록〉이 바로보인 출판사에 번역 출간된다.

이 책은 송나라 도원의 원저 30권 가운데 제1권에서 제8권까지를 한권으로 발간하고, 나머지 제9권에서 30권까지를 원문과 함께 전 5권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사찰 그속에…' 재출간

91년 교보문고에서 출간돼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을 수상한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원장의 〈사찰, 그속에 깃든 의미〉가 6년만에 도서출판 효림에서 새롭게 재출간됐다.

동양미술대전집 발간

한국과 중국의 미술사를 그림을 곁들여 총정리한 〈동양미술대전집〉(총 8권, 아트파크)이 발간됐다.

경희대 최병식교수(미술교육)가 집필한 이 책에는 한국편 4백여 작가 1천여점, 중국편에는 7백여 작가 1천4백여점의 작품이 실려있다.

서점가 류시화 열풍

'…101가지 이야기' 등 4권 인기 꾸준





요즘 서점가를 휩쓰는 베스트셀러를 눈여겨 보면 한 작가의 이름이 유난히 눈에 띈다. 시인이자 명상가인 류시화씨다. 류씨가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기위해 번역했다"는 번역서〈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1, 2〉(이레)는 작년말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진입, 줄곧 1위를 지켜오고 있다. 얼마전 제3권을 출간했다. 여기에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열림원),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열림원),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푸른숲) 등도 베스트셀러 수위에 올라있다.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책들은 모두가 인스턴트 문화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에게 일상에서 스쳐 지나는 작은 것들에 대한 소중함과 마음의 성찰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해 최근의 명상서적 붐에 일조를 하고 있다.

〈마음을 열어주는…〉는 명상가로서의 류씨의 간결하고도 개성있는 문체가 번역에 그대로 투영돼 가족과 사랑의 훈훈함을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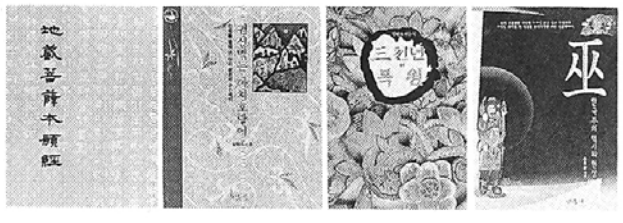
가장 최근에 발간된 〈하늘 호수로…〉은 류씨가 지난 10년동안 인도 티벳 등을 여행하며 만나고 체험했던 날날의 일들을 에피소드식으로 모아 엮어내 잔잔한 감동을 안겨준다.

시집 〈외눈박이…〉와 〈그대가…〉 또한 하나하나의 시어가 독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잠시 명상에 잠길 여유를 제공하는 심오하면서도 편안한 시집으로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은〉

새로나온 책

▲지장보살본원경=1492년 중국 신종황제가 직접 쓴 지장경 원문을 실은 사경서. 이 책은 각 품에 대한 한글 번역문도 실었으며, 올바른 지장경 사경을 위한 참회와 발원의식도 첨가했다. 〈양진원 1만원〉

▲귀신먹는 까지호랑이=민화 전문가인 김영재씨가 민화를 하늘 그림, 땅 그림, 사람 그림으로 나누어 그림에 담긴 우리민족과 우리문화의 원형을 좇아 민화를 재해석했다. 이 책에는 정통불화의 구도와 상호에 연연하지 않고 그려진 문수보현도와 보살신중도 등 자유로운 표현으로 그려진 '만유만민의 민불화'도 소개하고 있다. 〈들녘 1만2천원〉



▲3천년의 복원=제7회 불이상을 수상한 제천 진주동물병원장 김연호씨의 산문집. '초롱꽃에 띄운 기원' '수의사의 봄날일기' '샘물에의 향수' '발우공양의 정신' '3천년의 북원' '마음은 편합니다'등 불자로서 수의사로서 살아온 삶에 대한 편린들을 담았다. 〈대흥기획 6천5백원〉

▲한국의 자생풍수 1·2=전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였던 최창조씨가 우리나라 풍수 연구에 몰두해 온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모았다. 한국풍수의 비조 신라말 도선스님의 풍수사상을 중심으로 한국 전통 풍수사상의 뿌리를 캐고, 그 특질을 밝히고 있다. 또한 방대한 자료섭렵과 현지답사를 토대로 전국의 마을들을 풍수적으로 해설, 사전식으로 정리했다. 〈민음사 각권 2만3천원〉

▲한국무의 역사와 현상=단군이래 부여, 고구려 등 고대무의 종교적 체계를 살핀 책. 고려시대 팔관회와 연등회를 중심으로 한 무불습합을 거치면서 왕실과 민중속에서 신앙되었던 한국무의 역사와 제반 현상에 대해서 여러사료를 통해 연구, 검증하고 있다. 〈민족사 8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2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3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	유 필 화	한 언
4	한국사찰음식	김 연 식	우리출판사
5	삶은 苦가 아니다	혜 원	여시아문
6	현대인이 만난 부처의 마음	혜 원	가람기획
7	암자로 가는 길	정 찬 주	좋 은 날
8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9	한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	진 현 종	들 녘
10	마음을 다스리는 법	김 정 빈	둥 지

구입문의:(02)737-0695

명산고찰의 사찰음식을
대중건강식으로

한국사찰음식

30년 연구의 결실, 필생의 역작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 미국 등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국내 최고의 사찰음식 연구가 김연식의 30년에 걸친 자료 수집과 연구의 결정판. 15년간의 승려생활 동안 전국 주요 사찰의 조리법을 익힌 저자의 피와 땀으로 엮은 필생의 역작.

한국사찰음식의 주옥편

이제까지의 신문이나 여성지, 여성백과나 요리백과에서 빨악하게 소개된 사찰음식의 파편들이 아닌 우리나라 사찰음식의 정수만을 모아서 옥구슬을 꿰듯 정성스레 엮은 한국사찰음식의 주옥편.

산사의 솔향기 가득한 유명 사찰음식 총망라

유서깊은 산사에는 독특하고 유명한 사찰음식이 전해 내려오는 법. 송광사 · 해인사 · 범어사 · 직지사 · 불국사 · 법주사 · 해남대흥사 · 통도사 · 신흥사 · 상원사 등의 말로만 전해 듣던 유명 사찰음식 220여 가지를 체계적으로 분류, 요리법과 생생한 컬러 사진 수록.





반양장 150면 / 값 12,000원

우리출판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8
Tel: 313-5047 , 313-5056 Fax: 393-96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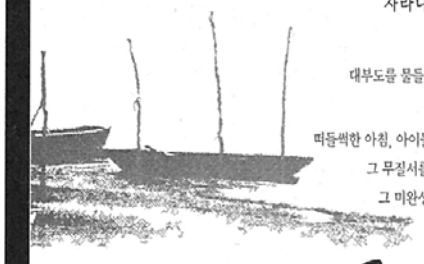
대부도 쌍계사에서 서른 명 고아들의 아빠스님으로 살아가는
법현 스님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

서 · 른 · 명 · 의 · 아 · 빠 · 법 · 현 · 스 · 님 · 의
둥지마을 이야기

법현 지음

● 아이들은 우주의 진리를 머금은 존재
● 인생은 성불로 가는 인연을 심는 귀한 농사

'나는 언젠가 큰 집을 지어서 버림받은 아이들과 함께 살고싶다.' 는 소원 하나로 껌팔이와 버스 차장을 거쳐 불공과 수행에 전념한 법현 스님의 고된 인생 역정과 '둥지마을'에서 스님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웃음과 눈물을 담았다.



부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부도를 물들이는 저녁놀 아래 출렁이는 파도더미 켜켜로 넘고 넘어
몇 만 나라 지난 곳에 있을까요.
따듯한 아침, 아이들이 등교하고 난 뒤 방바닥에 어질러진 휴지 조각과 장난감들
그 무질서를 청소하며 아이들이 그리다 뭉개버린 엄마의 얼굴
그 미완성의 그리움을 모아 부처님의 나라를 그려 봅니다.



우리출판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8
Tel: 313-5047 , 313-5056 Fax: 393-9696

신국판/216면/값5,000원

동남아 불교석학 '바쁜 여름'

7·8·9월 대규모 국제학술회의 집중

불교사상·사회윤리등 주제 다양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지향할 국제적인 학술회의가 7월부터 잇달아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학술회의들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각국의 석학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계종 봉선사(주지 밀운)와 운남성 사회과학원(원장 하요하)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지공학술세미나'는 동아시아 불교사상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지공스님(?~1363)을 조명한다. 중국 운남성 사회과학원에서 8월1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이 세미나에는 한국을 비롯 중국, 일본, 싱가폴, 인도 등 동아시아 8개국 1백여명의 불교학자들이 참여한다. 한국 대표로는 허흥식(정신문화연구원) 신규탁(연세대 철학과) 교수와 월운(봉선사 회주) 인묵(회암사 주지) 스님 등 10여명이 참여한다.

동국대(총장 송석구)가 주최하고 한국동양철학회(회장 이장수) 철학연구회(회장 엄정식) 한국공자학회(회장 송대훈) 등이 공동주관하는 '국제중국철학회 국제세미나'는 7월23일부터 28일까지 '동아시아 철학의 현대적 의의'를 주제로 동국대에서 개최된다. 230여명이 발제에 나서고 1천8백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진행될 이 세미나에서 발표될 조성택교수(뉴욕주립대, 미국)의 '불교와 사회정의' 김복자교수(홍콩대, 홍콩)의 '서구철학에서 한국의 선불교 재평가' 와리코교수(센디에고주립대)의 '지눌의 무명관' 등 불교주제가 관심을 끈다.

동국대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가 9월중 개최할 '한·중 미술세미나'는 한국과 중국의 조각, 회화, 건축 등의 비교를 통해 두 나라의 미술 전파와 수용을 고찰하는 세미나. 특히 마세장교수(북경대 박물관장)가 중국 사천지방에 있는 초기 석굴사원의 불상이 한반도에 전래된 과정을 살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고구려연구회(이사장 서길수)도 학습원대학(學習院大學, 일본) 동양문화연구소 在日조선역사고고학협회(조총련관련단체)와 공동으로 7월20, 21일 이틀간 학습원대학 창립1백주년기념회관에서 고구려 고분벽화를 주제로 '고구려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고구려벽화를 통해 본 생활풍속 복식 종교 △고구려벽화와 일본 신라 백제고분벽화의 비교연구 등을 다룬다. 이번 세미나에는 북한학자 8명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아세아민속학회(회장 김선풍)가 '제2회 아세아 민속학회 국제학술대회'를 강릉문화원에서 9월중 개최한다. 이 대회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대만, 태국, 인도 등 4백여명의 학자가 참가해 민속축제·민속과 종교·민속이론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오종욱 기자

학술단신

'석림' 1~30집 합본

동국대 석림회(회장 정필)가 〈석림논총합(釋林論叢合)〉을 한정 발간한다.

〈석림〉 1집부터 30집까지 실렸던 논문을 한데 모아 엮어질 〈석림논총합〉에는 사상·교리·문학 등을 주제로 총 6백여 논문이 게재된다.

근대불교사를 고찰해 한국불교의 정화과정을 조명한 윤영해 교수(서강대 종교학과) 인환스님(동국대 명예교수) 등의 논문과 오형근교수(동국대 불교학)의 '불교의 태아관', 조용길교수(동국대 불교학)의 '불교와 한국사회' 등을 싣고있다. 전 3권 총 4350쪽. 가격 9500원. (02)260-3693

'회당학보' 4집 발간

회당학회(회장 변종오)가 〈회당학보〉 제4집을 발간했다.

진각 50년 기념호로 제작된 〈회당학보〉에는 진언·언어·역사·사상 등의 기념·연구논문 10편을 비롯해 이종철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종교철학)의 '역주연구 〈니야야쑤뜨라〉'를 싣고 있다. (02)942-3991

"무아사상, 美 초월주의 배경"

류황태교수 '불교에서 본 에머슨의 사상' 논문



류황태교수(동의대 영어영문학)가 19세기 미국의 시대정신을 주도했던 에머슨(1803~1882)과 플러(1810~1850)의 초월주의(超越主義)를 불교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사상적 동질감을 이끌어낸 논문을 발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류교수는 지난 5일 열린 동의대 미국학연구소 정기세미나에서 발표한 '불교에서 본 에머슨의 사상'과 '마가렛 플러의 사상과 생애'에서 "두 사상가는 자아(我)라는 것이 환경의 산물일 뿐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인간 세상의 모든 관계를 '현상'으로 해석했다"며 "전쟁과 산업화의 반동으로 생겨난 미국의 초월주의 사상에서 '절대진리'(Great Spirit) '중도'(middle) '존재'(being) '자기수양'(self-culture) 등은 불교의 영향으로 나온 말이다"고 지적했다.

류교수에 따르면 인생의 고(苦), 과거에의 집착, 통찰력, 무아(無我)·허상의 인식, 고통이 사라짐, 지극한 기쁨 등으로 이어지는 두 사상가의 사유 여정은 불교의 사성제와 유사하다는 것.

류교수는 "에머슨의 '하나된 영혼'(Unity of Over Scul)은 다른 표현으로 주객일체로 불교에서의 깨달음과 비슷하지만 수행에서 우러난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에머슨의 사상이 말의 유희에만 머물렀다"며 "이것이 서양식 합리주의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범어사전 CD롬 '마무리 작업'

11월 출시…이종철-랭카스터 교수 합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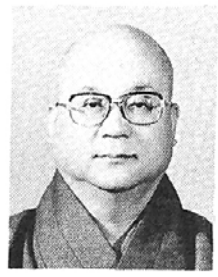
산스크리트어 사전 CD롬이 11월 출시된다. '버클리 불교학 시리즈'로 출시될 이 CD롬은 이종철교수(정신문화원 종교철학과)가 범어경전을 입력하고 랭카스터교수(버클리대 언어학)가 컴퓨터를 이용해 경전의 낱말을 색인하는 작업을 통해 CD롬으로 제작된다.

입력작업에 사용된 범어경전은 〈불교 산스크리트 텍스트〉(전23권, 인도)를 비롯해 〈보요경〉 〈능가경〉 〈대승입능가경〉 〈법화경〉 〈화엄경 십법계품〉 〈중론〉 〈구사론〉 등이다.

이교수는 "현재 입력작업이 마무리되고 있으며 11월 랭카스터교수의 지원을 받아 색인작업과 CD롬 제작을 거쳐 출시된다"며 "불교용어가 부족하고 범어의 용례도 없는 현존 범어사전의 허점을 보완한 범어사전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나와 경전 12

율장



인 환
〈동국대 명예교수〉

내가 〈율장(律藏)〉을 처음 접한 것은 1951년 1.4 후퇴때 부산으로 피난하여 출가한 부산 선암사에서 석암혜수 율사를 만나 지도를 받으면서였다. 선방에서 참선정진하며 약 1년동안 원주의 소임을 맡았다. 그때에 감사 즉 총무의 책임을 맡고 계셨던 석암율사와 함께 3일에 한 번 정도 둘이서 커다란 걸망을 짊어지고 약 십리 길을 걸어서 산을 내려가 서면의 부전시장을 찾았다. 거기서 갖가지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40명 대중이 공양할 찬거리를 사서 가득찬 무거운 걸망을 등에 지고 여름 겨울 할 것없이 땀을 흘려가면서 산사를 향해 오르내리곤 하였다.

그 때 내 나이 갓 스물이었고, 석암율사는 40세가 약간 넘으신 때였다. 그러는 동안 항상 나란히 걸어서 길을 오가면서 선법문을 주고 받거나 선방에 내려오는 갖가지 일화를 들려주시고, 특히 〈율장〉에 관한 가르침을 일년여에 걸쳐서 길위에서 배울수가 있었으니 그 은혜가 참으로 백골난망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뒤에 해인사에서 자운성우 율사에게서 구족계를 받은 뒤에 중국 상해의 빈가정사에서 출판된 대장경본의 〈율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착실하게 보게 되었다.

일본 동경대 대학원에 유학했을 때는 세계적인 불교계율연구의 대가 히라까와 아끼라교수에게서 율장을 비롯한 계율강의를 4년간 받았다. 박사학위 논문도 〈신라불교계율사상연구〉를 제출해 학위를 받았고 일본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기도 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일어로 출판되었던 박사학위논문과 그 동안에 쓴 논문들 가운데 계율에 관한 것을 모아서 〈한국불교계율연구〉(1)도 출판했다. 40여년전 석암율사에게 길위에서 구술로 배운데서 부터 시작된 나와 〈율장〉과의 인연은 이처럼 오늘까지 끈끈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불교교단이 구성되어 출가수행대중이 많아져서 여러 가지 수행생활에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불교교단의 질서를 유지하고 출가대중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처님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만들어 이것을 범하면 벌칙을 적용하여 수행생활의 규범으로 삼게한 계율을 결집한 것이 〈율장〉이다. 오랜세월 전해오는 동안 계통에 따라 5부 율장으로 나누어진다. 우리 불교에서는 〈사분율(四分律)〉을 의지한다.

우리나라에 〈율장〉이 전해온 시기는 분명치 않으나 아마도 〈율장〉은 4세기 중반에 고구려에 불교가 처음 전해진 그 무렵쯤에 전해졌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백제 성왕 4년에 해로를 따라 인도에 가서 오부율문을 가지고 백제로 돌아온 겸익에 의해서 전래되었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흔히 〈율장〉이라면 옛적 인도의 기후 풍토 습속에서 초기불교 당시 수행생활의 규범이 되었던 것으로 생활을 속박하는 무거운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날의 모든 상황에 걸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오히려 우리 시대와 사회, 그리고 승가의 갖가지 사상적 혼란, 정신적 혼미, 생활상의 부패 등의 문제를 바로잡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율장〉의 정신을 재평가하여 어둡고 잘못된 우리 중생의 삶을 밝게 비추어 주는 거울로 삼아야 한다.

소승불교는 출가자 중심이므로 그 〈율장〉도 출가자를 위한 것이 주가 되고 있으나, 대승불교의 〈율장〉은 출가, 재가를 막론하고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과 자리이타(自利利他)를 실천하는 보살들을 위한 계율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 적용범위도 넓고 또한 사회성도 증강되어 있으며,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부처님 말씀이 그러하지만 이 〈율장〉은 특히 우리 중생들이 진리의 여여한 세계로 나아가기위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를 상세하게 보여준다.

출가수행자들 뿐만 아니라 불교에 귀의한 우바새, 우바이들이라면 이 〈율장〉을 꼭 접해보기를 권한다.

우리들이 〈율장〉의 가르침대로 탐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삿된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중도의 지혜로써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악업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율장〉은 한글대장경에 우리말 번역이 되어있다. 율장연구서로 볼만한 것은 〈율장연구〉(박영길 역)와 〈율장〉(법혜 역), 〈남북전율장비교연구〉(이지관 저)등이 있다.

석암율사 구술로 40년전 율장과 인연

중생 삶 밝게 비추는 수행규범 결집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호암미술관

아미타삼존도등 2백여점 화상공개



호암미술관은 선사시대 유물로부터 현대미술품에 이르기까지 1만5천여점의 유물을 소장한 한국의 대표적인 미술관이다. 이 사이트는 소장유물중 △고분유물 △불교미술 △도자기 △서화 △근대미술 △현대미술 등 2백여점을 공개-전시하고 있다.

불교미술품에는 지장도(보물784호), 아미타삼존도(국보218호), 수월관음보살도(보물926호), 신라백지묵서변상도(국보196호), 이상좌불화첩(보물593호) 등 탱화(불상)와 금동미륵반가상(국보118호), 금동신묘명삼존불(국보85호) 등 불상 1백여점을 비롯해 용두보당, 청동범종, 금동다층소탑, 정동은입사, 봉황문, 향합 등 우리나라 불교예술의 정수를 알려주는 빼어난 예술품들이 전시돼 있다.

고려미술의 정수로 일컬어지는 불화는 현재 1백50여점이 남아있다. 이중 국내에는 호암미술관 등에 10여점이 있을 뿐이다.

이외에도 고려불화전, 조선전기국보전, 대고려국보전 등 호암미술관이 제작한 10여종의 문화재 도록도 제공돼 열람은 물론 주문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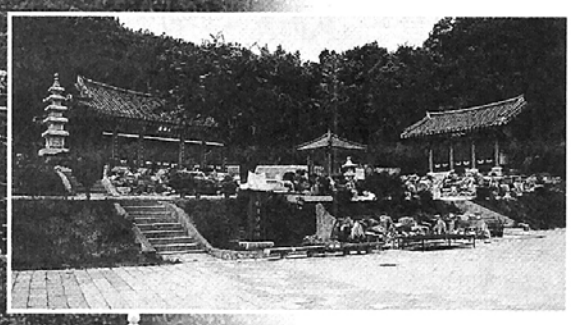
주소 http://www.hoammuseum.org/

고심사 영탑원

동남향의 아늑한 보금자리
영가여, 불보살과 함께 평안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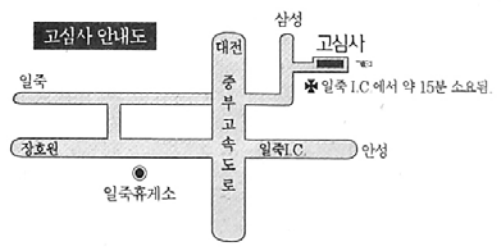
부모를 위한, 가족을 위한 영가의 안식처가 마련되었습니다

■ 영탑의 크기 : 높이 2.6m, 넓이 1.1m×1.1m ■ 봉안납골 : 가족유골 16구 봉안



영탑원이 해드리는 일

■ 장례 의식의 제반 절차와 화장 및 운구 의식 집전
■ 영탑 봉안 및 49재 등 장례 후의 의식 봉행
■ 상주와 조문객을 위한 정갈한 공양 제공
■ 매일 조석기도 봉행
■ 기제사와 백중·추석 등 주요 절기에 합동 추모기도 봉행
■ 매장을 모셨으나 이장을 원하시는 경우 과묘, 화장, 운구, 영탑 봉안 등 제반 의식 집전



사단법인 한국불교대원회 고심사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111-1 ☎ (0446)78-5408
서울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대보빌딩 불교방송국 2층 대원산업
☎ (02)701-6456~7 (02)701-5374~5 FAX:(02)3272-1389

광고문의
현대불교 생활정보 광고 효과도 좋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광고주께서 기대하시는 광고효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상품

보리수
취급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신생아작명 역학개인지도
738-2045.2046
조계사옆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전문시술원 張三洙
육·허리디스크 **중풍좌골신경통** 비법개인지도
퇴행성 · 류마티스관절염
압구정역 (주)543-7306 (아)711-4370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 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계발 및 집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철학의 길잡이
● 90분 녹음 166회(교재 4권) ●
이석영 선생님의 제자 단원 선생님 강의
대구 단원문화생 단국철학
연락처 : 012)753-2746
053)475-2746

사찰안내

부산근교 명당에서 자리잡은 암자

부처님 시봉할 분

연락처 015)5935-6738
051)558-0042

- 복터도량(대지 760평, 건평 120평) -
조용하며 맑은공기, 편리한 교통(서울 2시간 20분, 제천·영월 각20분), 신축·석탑등 2년 6개월, 크고 견고한 대웅전·산신각, 요사체·보일러시설 완비(객실10개), 현대식주방, 수세식 화장실, 대형석불, 석탑등 '최적의 기도처'
연락처 0373)374-7417

● 위 치 : 수유리
● 보증금 : 3천만원(월 66만원)
● 평 수 : 45평
● 주방, 마이크시설 완비
연락처 : 02)990-6780
※ 9:30-17:00 전화요

▶ 위 치 : 충북 제천시
▶ 부 지 : 743평
▶ 법 당 : 20평(전통 목조 단청 필)
▶ 요 사 : 50평
▶ 가 액 : 1억 6천만원 시세 절반
연락처 011)736-4447
015)124-6334 (24시간 호출요)

포교당 안내

▶ 위 치 : 평택 대로변(서울에서 1시간이내, 시장·터미널·주요관공서와 10분이내)
▶ 평 수 : 57평
▶ 보증금 : 5,000만원
▶ 시설비 : 1,000만원(최고시설)
연락처 0333)665-6688
0522)87-2276

※ 포교당 7년 운영 후 큰도량으로 옮기므로 부득이 양도함
▶ 위 치 : 마산시 석전1동 (도심지 대로변 위치, 빌딩 3층 30평)
▶ 전 세 : 3천 (월세 없음)
▶ 경전 및 장엄물 : 1천 5백
▶ 가격 : 문의후 절충
연락처 : 0551)99-2984

포교당 4년차 운영중 큰도량으로 옮기므로 부득이 양도함
▶ 위 치 : 부천시내 중동 신도시 입구 (전철역 5분거리)
▶ 평 수 : 2층 30평
▶ 가 격 : 전세 3,300만원
※ 시설 기중
연락처 032)656-7523

● 위 치 : 부산시 구포3동 (부산전문대 입구)
● 가 격 : 500만원(월세 35만원)
● 평 수 : 법당 50평(식당 20평)
연락처 : 051)332-3650

기타정보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북리 393-1
대 원 사
연락처:
0331)262-0606

사찰안내
10여년 정성으로 살아온 도량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부득이 양도하고자 합니다. 표교와 노후를 위해서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연락처 015-124-6334
02-511-4632 (조법사)

포켓용 **불자 독송집**
불자님들께서 항상 지니면서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편집·제작 하였습니다.
■ 기본판 : 국반판256p · 고급비닐커버 ▶정가 2,000원
■ 증보판 : 국반판352p · 고급비닐커버 ▶정가 2,500원
※ 법보시 하실 사람 환영합니다.

우리말 지장경
석 일 화 편저
● 크기/신국판 300페이지, 고급비닐커버
● 법보시가격/4,500원
● 부록/용어해설, 지장보살신앙영험록
※ 표지에 사찰명, 뒷장에 법보시자, 법회안내 등을 넣어 드립니다.
감로출판사 ☎ (02)723-4036~7 FAX 738-8682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신바람 단전 자동 氣 운동 열풍!!
예로부터 신선이 된다고 하는 최고의 건강법으로 알려진 단전회음 "氣" 운동열풍이 인기다. 그러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것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 아주 간편하고 쉽게 단전, 회음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잠자리에 누워 스위치만 누르면 20분간 짜릿짜릿한 미세진동파가 단전과 회음을 운동시켜 준다. 단전은 인체 에너지(氣)의 중심이며 단전운동을 통하여 20대 못지않는 건강과 활력을 찾을 수 있다.
대소변이 시원시원해지는 단전, 회음 건강운동기!!!!
■ 오래된 숙변과 소변이 힘차게 쏟아집니다.
■ 장속에 독소가 빠져서 피로가 없어지고 얼굴색깔이 달라지고 힘이 솟아납니다.
⊙ 책자를 우송해 드립니다.
(기공 방문 강좌 : 5人 이상)
韓國傳統氣健康研究會
Tel. 02)455-6944(代)



바로보인
깨달음의 정수를 바로 보이다
대원 문재현 역저
T.597-2460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옹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닥
• 아산(천관사)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닫집경닥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工 합장

간경화·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AIDS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대체의학

완치 책임보장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및 외견상 완치가 아니면 치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TEL : 0552-82-8128 · 8118
H.P. : 011-559-8128 보은암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氣치료(초능력)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병.
● 불사후 아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원 합장 0415-63-0749

不老化精 안내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현재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와에 10여종의 심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밥에 땀이 날 정도로 건장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如來健康院 合掌
☎ 053)655-2227

대불정능엄신주 관세음보살보문품
금강경 지장경
기도 회향 불공
방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① 효과적인 독송방법 ② 업장소멸
③ 자녀교육문제 ④ 건강문제
꿈바위사회교육연구소
종로구 인사동 사거리
739-5007~8

재가불자전문 수행도량
◈ 이용안내 : 각 신행단체등의 수련법회, 개인수행, 신도수련 법회 일반수행인등
◈ 편의시설 : 도서관, 세미나실, 강의실, 명상실겸 대중숙소
◈ 특 징 : 산세수려하고 소박한 고로쇠나무의 자생지이며 최소경비의 生居鎭川의 古地
두타산 심신수련마을
충북 진천군 초평면 신통리 484
전화 : (0434)32~0108~9 FAX (0434)534-3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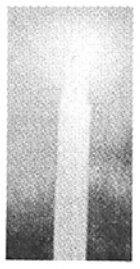
감 로 심 장 회

삶을 나누는 사회

● 환자를 도와드립니다 ●
심장병 안면기형 안과(백내장 녹내장)

● 수 술 현 황 ●
97년 4월 현재 심장 수술자 140명
백내장 10명
안면기형 2명
장기기증 2명·11명 기증 받음

●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감로심장회의 사업에 동참하실 분은 아래의 접수처로 연락바랍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감로심장회 사무국
주소 : 경남 진주시 계동 55번지 진주불교회관 (660-240)
전화 : (0591)747-0106 팩스 : (0591)747-0107
● 후 원 회 비 송 금 안 내 ●
▶ 국민은행 : 652-01-0484-878 ▶ 우체국 : 610774-0243181
▶ 지 로 : 7616413 ▶ 예금주 : 감로심장회



"부처님 말씀이 절실한 때입니다"

만약 경전의 가름침과 계속의 문건을 보시하면
해박한 지혜의 과보를 받게되며
밝은 등을 보시하면 눈이 밝아지는 과보를 받게 된다…
- 육취윤회경 -

사회의 어둠을 밝혀줄 현대불교신문을 보냅시다. **군부대 · 경찰 · 교도소 · 양로원 · 中高불교학생회 · 도서관 · 가까운 이웃 · · ·**

■현대불교신문은 2천만 불자의 긍지를 대변합니다■

■ 보낼곳
▷ 국내 : 군부대(법당, 포교당, 군승, 불자장병)
: 경찰(법당, 포교당, 경승, 불자경찰, 개인)
: 교도소(재소자중 불자, 교도관)
: 복지회관(전국 시·도·군·읍면 소재 회관)
: 대학(불교학생회 및 도서관)
: 도서관(전국 시·군·구립 및 사립도서관 열람용)
: 개인불자(시주자가 지정하는 분:지정법보시)
▷ 국외 : 해외의 한국 사찰·포교당
: 각국 불교 관련 단체

■현대불교신문이 있는 곳, 그곳이 곧 법당입니다■

■ 보시방법
▶ 법보시
본사 소정 구좌에 1,000원 이상 송금하시면 모아서 신문사가 군부대등 필요한 곳에 보내드립니다.
▶ 해외 법보시
지정법보시와 동일
1부 80,000원(우편료 포함)
▶ 지정법보시
특정인 또는 특정의 기관에 신문을 보시하는 경우로서 보낼 곳의 주소·전화번호, 보내는 사람의 주소·전화번호를 알려주시고 1부당 40,000원(1년분)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 본사 지로 이용 입금
※ 계좌 : 국민 023-25-0007-820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곁에 두면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 정기구독자 추천
친지·이웃등 현대불교신문을 구독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면 정성껏 신문을 보내 드립니다.
1년 정기구독자 4만원, 6개월 22,000원, 1개월 4,000원

● 법보시양식


구 독 신 청 서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02)732-1522, 737-8881 F. (02)737-0697

"자연사랑·모험심 배워요"



◇올해 교계의 청소년캠프는 가슴이 탁 트이는 기암절경 속에서 급류를 헤쳐가며 살아숨쉬는 계곡의 비경을 한껏 느껴볼 수 있는 탐사·탐험캠프와 문화유적지 답사캠프가 주류를 이룬다.

◇청소년캠프 일정표

단체	참가대상	기간	장소	전화
현대불교신문 탐험학교	초등4~고등2	7/20 ~8월말	월정사, 정선 평창, 용평일대	09)738-0997
청교련 국제캠프	중·고등 국내 중·고등 국외	7/31~8/4 7/31~8/6	제주 김녕해수욕장	02)735-8165
과라미타 연합캠프	중·고등	8/8~8/11	고성 젬버리수련장	02)723-6165
우리는선우 여름캠프	중·고등	8/2~8/5	경기도 용두암수련원	02)278-8672
대재마을 어린이캠프 청소년캠프	초등·중 중·고등	8/14~8/16 7/18~7/20	법주사(예정)	02)433-1507
목동청소년회관 역사유적지캠프 해외캠프	초등3~중 초등·중	7/24~7/27	경주일대 일본 큐슈지역	02)646-6819
덕유사회복지관 청소년캠프	초등5~고등	8/11~8/13	다보수련원	032)325-2161
범동종합사회복지관 아동캠프 자원봉사캠프	초등 중·고등	7/24~7/25 8/9~8/10	서대산천메저다운 충남반생종합야영장	042)633-1141
공창종합사회복지관 여름캠프	중·고등	7/28~7/30	지리산(예정)	051)363-2063

교계 '청소년캠프' 다양

30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가 준비되고 있다.

교계 청소년 및 신행단체에서 개최하는 청소년캠프는 유적지탐방, 레저·자연체험, 동굴탐사 등 보편적인 프로그램에 불교적 이념을 적절히 가미해 차별성을 두고 있어 특색. 때문에 타종교인 또는 무종교인, 초심자까지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다.

입시위주의 학교공부에서 벗어나 자기가 갖고 있는 특기를 마음껏 살릴 수 있고, 포교의 기회로도 삼을 수 있는 청소년캠프에 친구들의 손을 이끌고 참여해 보자.

예년에 비해 올해는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고,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국제캠프 및 유적지탐방 캠프가 다양하게 마련돼 눈길을 끈다. 또 대자연과 호흡하며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탐사·탐험캠프도 열린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하듯 각종 캠프에 환경보호운동과 캠페인도 감초처럼 끼어 있다.

동굴탐험·전래놀이 등에 불교접목
캠프마다 환경보호운동 필수코스
공부중압감 해소·감성지수 높일기회

특히 현대불교신문이 주최하고 조계종 포교원이 후원하는 불교탐험학교는 한국탐험학교의 전문 탐험가팀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특징. 동굴탐험 래프팅(급류타기) 등 원시경험을 통해 자연과 자아의 원초적 동질성을 느끼면서 '불성'에 대한 확신을 함께 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동청소년회관의 '역사유적지캠프'는 박혁거세 탄생지에서 포석정까지를 돌아보며 통일신라 건립이전부터 멸망까지를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식으로 배울 수 있다. 선재마을의 전래놀이 캠프는 흙내 가득한 자연 속에서 어린이들의 감성지수(EQ)를 자극한다. 공기놀이, 실뜨기, 칠교놀이, 비석차기, 긴줄넘기, 고무줄놀이 등 전래놀이 속에 깃든 불교문화를 감상할 수 있다.

도필선 기자

밀이 노화를 방지한다?

예전에는 귀한 곡물이어서 밀전병 유밀과와 같은 별식이나 간식 또는 누룩과 같은 특수한 용도로 쓰였던 것이 6·25사변 이후 국수 수제비와 같은 형태로 주식대용이 된 밀.

강원대 한국영양과학연구소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밀은 △면역증강 △항산화작용을 통한

우리밀 노화방지 효과
항산화 작용…면역·간기능개선
강원대 영양과학硏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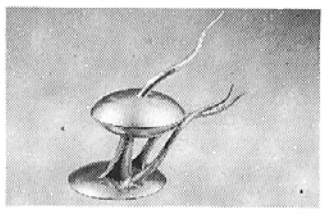
항노화 △간기능 개선에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한국밀은 수입밀에 비해 2배의 면역증강 효과와 과산화 최종 생산물인 MDA(malon dealdehyde)를 50%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현대불교신문과 종단협소비자보호위, 맑고향기롭게모임이 공동으로 28일~29일 봉은사에서 여는 재활용알뜰시장에서 밀을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새상품

시내정식소품용 향로



현대적 감각 조형미 탁월

향로는 가정에서 제사를 지낼때나 불가에서 불보살에게 향을 공양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그래서 향로는 향을 피울 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향로는 좋은 실내장식 소품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정형화된 느낌에서 벗어나 구리, 황동, 칠, 은, 나무, 분청 등의 재료를 사용, 작가들이 현대적 기법으로 조형해 세련된 멋과 예술적 감각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탁자나 선반위에 올려 놓고 은은한 향을 피운다면 나쁜냄새도 소멸되고 집안 분위기도 한결 아늑해질 것이다. (02)722-9601

"팔정도로 청소년 심성교육을"
김정호교수, 종교교육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청소년 심성교육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심성교육의 원론은 팔정도와 삼법인에 압축돼 있으며, 그 가르침과 실천방법의 현대화를 통해 청소년심성교육의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종교교육학회(회장 박선영)가 20일 원광대학교에서 개최한 97년 춘계 학술대회에서 덕성여대 김정호교수는 '불교에 있어서 청소년의 심성교육'이라는 주제



◇김정호교수

"지혜·자비·자주성 갖춰야 바른 심성"
"진로상담·명상프로 개발 서두르도록"

논문에서 청소년 심성교육에 있어서의 불교의 역할과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삼법인과 팔정도로 귀착되는 불교의 심성교육을 청소년들의 근기와 정서에 맞게 현대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불교에서 바람직한 심성은 지혜와 자비, 자주성을 고루 갖춘 이상적 인간상에서 보여주는 마음의 특성"이라며 "불교에서의 심성교육은 삼법인을 통해 지적으로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알도록 한다. 또 팔정도를 통해 일상생활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며 동시에 명상수행을 통해 체험적으로 존재의 실상을 알도록 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불교 가르침의 기본이 되는 삼법인을 전하는데 있어 김교수는 "불교의 가르침이 자칫 허무주의로 비쳐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심리학이나 물질과학 등 현대과학의 응용을 통해 심성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팔정도의 실천과정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의 근기에 따른 수기설법적 또는 응병여약식 지도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정견(正見) 정사(正事), 정어(正語) 정업(正業)의 실천을 위해 불교기초교리의 바른 이해와 지도, 청소년들에 맞는 계율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명(正命)과 정정진(正定進) 정념(正念) 정정(正定)을 위해서는 진로상담프로그램과 청소년에 맞는 명상지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교수는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은 확철대오하듯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과 점진적인 방법 등 두가지가 있다"고 전제하고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수행한만큼 조금씩 변화해가는 방법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향원



'불자의집' 교패붙이기 운동을 전개합시다 !

우리는 흔히 2천만 불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2천만의 불자 모두가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스스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로서의
긍지를 갖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나와 이웃이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가꾸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본 감로기획에서는
현대불교신문사, 법보신문사의 후원으로
「불자의 집」 교패 붙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운동은 불자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는
서원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크기 : 6cm×7.5cm



크기 : 3.5cm×10.5cm▶

▣ 특징
1. 원색칼라로 제작하였습니다.
2. 표면에 에폭시 처리하여 탈색의 염려가 없습니다.
3. 반영구적입니다.

※ 3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 보급가 : 1개당 1,000원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전화:(02)723-4306·7 팩스:(02)738-8682

우란분절법회·칠석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자 보급 안내

우란분절과 효이야기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우란분절 법어 및 발원문, 백중기도와 부모님을 위한 발원, '효'에 대한 부처님의 한결같은 가르침, 영원한 사랑이야기…칠석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법회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칠월칠석과 우란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수 록 내 용

제1부 우란분절 기념 법회
우란분절 법어/우란분절 발원문
제2부 백중기도와 부모님을 위한 발원
목련의 효행과 우란분절의 시작/우란분절과 백중/거룩한 효심, 뜨거운 실천
제3부 '효', 부처님의 한결같은 가르침
경전에서 보는 효의 말
제4부 영원한 사랑이야기…칠석
그리움으로 사는 삶…견우와 직녀/자손위한 사랑으로 회향하는 기도…칠성불공 칠성부적으로 이어지는 끊없는 기도/칠원성군 진언과 부작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명단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법보시 가격/각 권당 1,500원
◈ 크기/신국판, 80페이지

우란분재와 칠석이야기 정가/1,500원
우리말 부모은중경·우란분경·목련경 정가/1,500원

감로출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팩스(02)738-8682

종단소식

조계종

월정사 본말사주지 연수

월정사(주지 현해)는 7월 8일~9일 이틀간 속초 신흥사에서 본·말사주지 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사찰복지, 전법의 해와 관련한 강의가 진행되며, 현장학습으로 보리수마을을 위문한다.

법주사 불교대학 입학식

법주사(주지 혜광)는 27일 대웅보전에서 불교대학 입학식을 거행한다.

3개월 과정으로 실시되는 불교교양대학은 기초교리, 경전, 사찰순례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태고종

백진결사회 호국영령 천도

백진결사회(회장 일로)는 22일 3군단 군법당 봉암사에서 6.25당시 현리지구 전투에서 산화한 호국영령들을 위한 천도재를 봉행했다.

백진결사회 회원스님들은 이날 국태민안과 조국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법회에 이어 무명용사들의 원혼을 천도하는 천도재를 거행했다.

한불청 통일환경전 시상

한국불교청년회(회장 도각)는 15일 총무원 설법전에서 창립 86주년 기념법회 및 제2회 참나 청소년통일환경문화예술대전 시상식을 봉행했다.

도각스님은 인사말에서 "청소년들의 통일관과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시켜 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린 시상식에서는 김명선(이수초등학교)양이 통일원장관상을, 송지민(유석초등학교), 김미화(은석초등학교)학생이 문체부장관상과 환경부장관상을 각각 수상하는 등 모두 1백52명의 참가자가 각 부문별로 상장을 받았다.

진각종

흑룡강성 심인당 헌공

통리원(원장 성초)은 24일 중국 흑룡강성 해동심인당 건립불사를 마치고 이를 기념하는 헌공불사를 봉행했다. 이로써 진각종은 미국 LA 불광심인당에 이어 두번째 해외 심인당을 갖게 됐다.

각해 총인, 성초 통리원장 등 종단간부 15명이 참석한 이날 헌공불사에서는 중국 교도 30명을 대상으로 수계불사도 봉행됐다.

관음종

묘각사 석조관음상 점안

총무원(원장 홍파)은 26일 오전 11시 묘각사에서 대천 종정스님 및 종단간부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조관음성상 점안대법회를 봉행한다.

사찰 위쪽 자연석을 2년여에 걸쳐 조각한 높이 6m 너비 3m 크기의 석조관세음보살상은 웅대하면서도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다.

총무원은 또 이날을 기해 묘각사 대웅전 복원불사의 원만성취를 기원하는 천일기도 입제를 봉행한다.

법륜종

순국선열 수륙고혼 천도

총무원(원장 혜우)은 24일 경기 여주읍 국민관광단지에서 사부대중 2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순국선열 및 유주무주 수륙고혼 천도 대법회를 봉행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 및 유주무주 수륙고혼의 왕생극락을 발원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이번 대법회는 진혼사, 분향 및 헌화에 이어 영산대재 순으로 진행됐다.

미타종

'캄' 테풍 승왕초청 법회

총무원(종정 벽암)은 태풍 캄보디아 승왕 초청 국제마정수기법회를 22일 충북 봉암사에서 봉행한데 이어 26일과 29일 광주와 경기 이천에서 2·3차 법회를 개최한다. 〈인터뷰 4면〉

캄보디아 최고승이자 노도롬 시아누크 국왕의 왕사인 테풍스님 등 캄보디아 스님 5명을 초청해 열리는 이번 국제마정수기법회는 26일 전남실내체육관에서 2차 법회를 봉행하며, 29일에는 경기 이천 염불선원에서 무량수전 낙성법회와 마정수기법회를 여는 등 3차 법회를 개최한다.

한편 테풍스님을 수행하는 캄보디아 승려 2명은 이번 행사 후 1년간 한국에 머물며 한국불교를 공부하게 되며, 미타종의 승려 2명도 캄보디아에서 유학하게 된다.

알림 본지 20면 증면과 함께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스리랑카에 한국 한방병원

한-스 불교우호교류회 추진

현지 신도 땅 1만평 기증
전통식 한국사찰도 건립

스리랑카에 4년제 한의대와 한방병원 한국식 사찰이 건립된다.

한-스 불교문화우의교류회 회장 종운스님(해원사 주지)은 6월1일 스리랑카 싸이암종단의 신도 외타마하다(54, 의사) 부부로 부터 아로봄불라 인근 땅 1만여평의 부지를 기증받아 전격적으로 추진하게 된것.

이 불사는 한-스불교문화우의교류회 한국측 종운스님과 스리랑카측 사다난다스님(스-한불교문화우의교류회 회장), 수가타나스회장(국립병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교류협약을 체결하면서 가시화됐다.

신축될 한국사찰은 종운스님을 비롯 대은스님(해동불교대학장) 등 한국측이 맡아 오는 10월 착공 2000년에 준공된다. 또 대학과 병원은 스리랑카 의사협회에서 추진키로하는 한편 한의및 침술학등 전통의료에 대한 상호교류도 이뤄지게 된다.

한편 이에 앞서 1일 한-스불교문화우의교류회 제5차 대회가 스리랑카 아로봄불라 싸다난다 사원에서 법장스님(한-태불교교류회 회장, 수덕사주지) 이규범스님(한국불교태고원 이사장)등 조계 태고 조동종 스님등 38명과 한국신도40여명, 스리랑카 스님50여명 관광성장, 차관을 비롯 5부장관과 국회의원 및 신도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스 교류협 한국측 종운스님(사진좌)과 스리랑카측 대표들이 스리랑카에 한국사찰 한의대 한방병원을 건립키로한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이자리에서 同협회 회장 종운스님은 사원내 초등학교에 160명에게 50달러씩 장학금을 수여하고 컴퓨터와 팩스 학용품 의류1천점을 전달했다. 이어 일응스님(무형문화재 제50호)의 양국 우호증진을 기원하는 영산재 시연도 펼쳐졌다.

한편 법장스님 대은스님 등 7명의 스님들은 스리랑카 벨라나국립대학에서 명예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위영란 기자

佛放 송병욱·김선도씨 구속

前이사장·사장도 조사방침

불교방송 공금횡령사건의 피의자 김선도씨(前 불교방송 경리부차장)가 16일 오전8시를 기해 구속, 검찰에 송치된데 이어 송병욱씨(前 불교방송 상무)도 19일 전격 구속돼 수사에 활기를 띠고있다.

17일 긴급체포된 송병욱씨는 6억4천만원 횡령 및 김씨 도피자금 4천5백만원 전달 혐의로 19일 검찰에 구속됐으나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이번 공금횡령 과정에서 상부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만간 前이사장 박종하스님 조해형 前사장 등을 잇따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조계종 '불교방송사태 진상특위'(위원장 정대스님·이하 방송특위)는 20일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에 앞서 불교방송정상화를 위한 범불교대책위원회(위원장 지원스님·이하 범대위)는 17일 '불교방송 사태에 대한 범불교대책위 성명서'를 통해 △범대위의 특위 결합 △검찰의 공정한 수사 촉구 등을 조계종 방송특위에 요구했다.



◇김포공항 입국 즉시 구속돼고있는 김선도씨.

"조계종에 돌아가지 않겠다"

월간 '조선' 서의현 前원장 근황보도

"종권 탈취기도소문 사실무근"

서의현 조계종 前 총무원장에 대한 소문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종권을 되찾기 위해 세를 규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한국당의 한 실세와 손을 잡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월간 조선' 7월호는 12쪽에 걸쳐 前원장의 최근 근황과 소문에 대한 그의 견해를 자세히 실었다. 월간 조선의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북 월악산에서 3년째 생식하며 수행중이라는 서前원장은 더이상 조계종에 미련이 남아있지 않으며,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종파를 만들겠다는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편의상 조용한 종단에 들어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남겼다.

신한국당의 한 실세가 현 조계종 총무원에 대항할 세력을 만들기 위해 자신과 접촉했다는 설에 대해서도 "만난적이 없다"는 말로 일축했다. 반(反)종단세력과 규합해 종권탈취를 꾀한다는 소문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홍콩반환 불교위상 '이상無'

홍법원 성우스님등 전망

7월 1일 홍콩이 중국에 반환됨에 따른 홍콩 불교계의 변화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더라도 불교계에는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친중국계열이면서 홍콩불교계를 이끌고 있는 각광스님(홍콩불교회 회장)의 지원으로 종교세가 더 커지지 않겠냐는 게 홍콩불교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홍콩홍법원 이사장 성우스님(파계사 영산율원장)은 "반환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홍콩 불교계는 아직까지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이 홍콩에 높은 자치 수준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고, 친중국계열의 스님인 각광스님이 홍콩불교를 좌우하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스님들은 사회주의체제 속에서 종교적 자유를 봄신, 홍콩을 떠났다. 또 금불상과 불화 등이 미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홍콩 접수 후 문화재급 예술품 반출 금지 조치가 있을 것을 예상한 소장가들이 해외도피 행렬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

"베트남 종교탄압 중지하라"

참여불교협 'UVBC승려 고문' 비난 성명

국제참여불교협의기구(INEB, International Network of Engaged Buddhists)가 지난 12일 태국에서 제8차 정기회의를 갖고 "베트남 정부가 불교사원연합(UVBC, Unified Buddhist Church of Vietnam)을 합법적인 종교단체로 인정하고 탄압을 즉시 중지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1954년에 설립된 UVBC는 그동안 베트남 국내에서 평화·인권·환경운동 등을 전개했다. 그러나 현 사회주의 베트남 정부는 UVBC를 이적 종교단체로 규정하고 연합회 소속 스님들을 협박·구금·고문하는 등 탄압해 왔다. 반면 사회주의 정부 수립 후 설립된 '베트남사원'(VBC, Vietnam Buddhist Church)만을 합법적인 불교단체로 인정하고 있다.

국제참여불교협의기구는 종교화합과 불교사회운동을 위해 1989년 태국에서 설립돼 일본, 인도, 한국, 태국 미국 독일 등 현재 3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인 불교단체. 따라서 이번 정기회의에서 채택한 성명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황성공원에 체육관 '54% 반대'

경주시민 569명 설문

황성공원내 실내체육관 부지 선정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과반수 이상이 현재의 부지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동국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20세이상 경주시민 5백69명을 대상으로 황성공원내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 전화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54%가 반대를, 19%가 모르겠다고 응답했고, 찬성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는 황성공원의 역사적 숲과 녹지공간 훼손이 49%를 차지해 황성공원의 역사성과 녹지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찬성하는 이유로는 시가지에서 가까운 점이 30%를, 공설운동장 옆이라는 점을 꼽았다.

마음 내 안에 보배가 있다

엊핏 생각하기에 참 보배라면 산 넘고 물 건너 온갖 고난을 겪은 뒤 어디 머나먼 낯선 곳에서 찾는 줄 알겠지만 그렇지 않다. 바로 내 안에 그 보배가 있기에 무식한 사람이든 거지이든 누구라도 참 보배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월간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정신 육체를 얽매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병 없는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지고 인간이라는 굴레의 속성이 근절되어 높은 정신세계의 삶을 누리게 된다.

선 관 단 식

■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제산제 복용 : 기아·공복감이 없다.
· 生水, 해독차, 염분·자연당·식물성단백질 섭취
· 수련내용 : 염불삼매수련·선관삼매수련·연단수련
· 선관단식수련을 쌓고 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 (美 캘리포니아대학 호르몬연구소 발표)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 수련 희망자에게는 선관단식(禪觀斷食) 가 이 드 북 을 우송해 드립니다.

● 체 험 사 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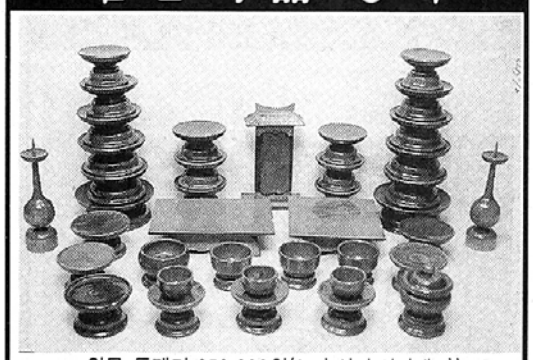
"본인은 78세의 수의사인데, 폐암말기 진단을 받고 사월초파일날 용님선원에 입소를 하였습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감잎차와 미네랄이 풍부한 산야초효소 등을 섭취하면서 커피관장을 한 결과 몸속의 노폐물이 피부 밖으로 모두 분출되고, 숙변이 2회 대량배출되어 현재는 피부와 머리카락이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앞으로는 남은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어, 오늘은 무엇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퇴소를 합니다. 1997. 6. 1. 이 승호 합장

(경남 창원시 남양동 동성 APT 5동 1203호, Tel. 0551-62-4475)

수련장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 내 : (0593)34-1115~6, 012-598-1015

정성과 얼이 담긴

남원 木器 공예



● 원목 통제기 358,000원(37피-상기 사진세트))
● 100년산 물푸레나무 288,000원

고찰 승려들의 식기, 바루 제작 과정에서 터득한 기술로 다듬어진 목기입니다.
지리산 나무로 그 특유한 향기와 정통의 재목으로 품위있고 격조높게 만들어진 목기입니다.
특히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물푸레나무를 재료로 모양과 색상이 좋고 내구성이 강하며 냄새가 나지 않고 변색되지 않아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목기입니다.

남원목기공예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46-9
전화 : (062)511-9641
대 표 임 동 주 합장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월급전액 복지단체 보시

광주여대 장우인교수 생활비 야간특강 · 원고료로


◇장우인교수

각박한 현대사회에 무소유 · 무주상보시의 삶을 살고 있는 우바이가 있어 신선한 감동이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광주여대 장우인교수(여 · 37 · 사회체육과). 그녀는 250만원 상당의 매달 교수월급 전액을 인근 사회복지단체에 보시하고 있다. 그녀의 생활비는 저녁늦은 시간 교내 사회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과외 강의로 받는 많지 않은 강사료와 원고료 등이 전부. 빠듯한 생활비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

장교수가 이처럼 무소유의 삶을 살게 된데는 이유가 있다. 무등산 광륵사에서 어린시절을 보내면서 스님들의 무소유 생활을 체험하며 자랐기 때문. 그녀는 주지 김여화(金如華)스님 문하에서 나름의 불교공부와 수행을 쌓아 일찍부터 참삶의 의미를 사색해 왔던 것이다.

그녀에게 친어머니와도 같은 여화스님은 54세때 출가하여 광륵사를 창건하였으며 25년간을 수행과 참선으로 정진한 비구니스님. 우리나라에 〈아함경〉을 널리 알린 故 고익진교수(동국대)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장교수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고불총림 백양사에 기거하면서 방장 서옹스님을 시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바쁜 강의 일정과 논문 작성 때문에 광주시내에 나와있다.

지난달 〈현대인을 위한 요가〉(서평 刊)를 펴낸 바 있는 장교수는 자신의 전공(현대무용)을 살려 불교수행과 요가를 접맥한 스포츠과학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꿈이다.

"어릴 때부터 스님들의 수행을 보면서 요가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는 장교수는 "개인 수양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나쁜 독을 제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요가의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에겐 배우고 가르치는 일 외에는 별다른 욕심이 없다.

〈김재경 기자〉

대구구도회관 건립
140여평 10월 완공

정법회거사림회와 더불어 대구지역 재가신행활동의 양대줄기를 형성해온 한국불교연구원 대구구도회(회장 권오주)가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대구시 봉산동 문화의거리 안에 대지 1백8평 연건평 1백40평 지상2층 규모의 구도회관을 이달말 착공, 10월말 완공할 예정이다. 회관건립은 창립22주년을 맞은 대구구도회의 숙원불사. 이 불사에는 자체회비 등을 통해 모금한 5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구도회관은 2층 법당을 비롯 1층에는 사무실과 일반인에게도 개방되는 불서도서실 등이 들어선다. 1층은 불교미술 전시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요정 대원각 자리에 들어선 길상사는 18일 임시법당에서 부처님 점안법회를 가졌다.

길상사 봉불점안
18일, 창건기원 백일기도

조계총림 송광사 서울분원 길상사(주지 청학)는 18일 부처님 점안 및 창건기원 1백일 기도법회를 봉행했다.

삼귀의, 헌화, 반야심경 봉독, 불교방송합창단의 축가 순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송광사 율주 보성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원학스님, 전등사 주지 장륜스님, 조선일보 공종원 논설위원, 교육개혁 위원장 김종서교수 등 사부대중 4백여명이 참석했다.

길상사 주지 청학스님은 인사말에서 "창건주인 길상화보살이 대원각을 기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업소측과 정리해야할 일이 남아있어 개원이 지연됐다"며 오는 12월 원만히 개원할 수 있도록 1백일 기도를 봉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계후 종립대 입학만 기본교육 이수인정"
조계종 교육법안 새로 마련

법주사 승가대학과 수덕 승가대학이 가인가됐다. 또 동국대와 승가대학의 경우 사미(니)계를 수지하고 입학한 자에 한해 졸업시 종단 기본교육기관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교육법안이 새로이 마련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은 17일 제28차 교육원회의를 열고 법주사와 수덕사의 승가대학을 가인가하고 2년이내에 제반요건을 갖출 경우 정식인가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종립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의 불교학과, 인도철학과, 또는 선학과를 졸업한 자는 승가대학을 수료한 것으로 한다'는 현행규정을 삭제하고 사미(니)계를 수지하고 입학하여 졸업해야만 종단 기본교육기관 이수로 인정키로 개정했다.

뉴스 & 뉴스

조계종 자양복지관 수탁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은 16일 광진구청으로 부터 자양사회복지관 수탁운영 법인으로 선정됐다. 7월 1일부터 공식운영예정인 자양사회복지관은 광진구 자양3동 553-63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에 총건평 약 2백53평이다.

'대구 생명나눔전화' 개설

생명나눔실천회 대구지부(회장 심업. 서대구전화국)는 생명나눔 홍보강화를 위한 스티커 1만여장을 배포하고 있다. 이와함께 대구지부는 생명의 전화(053-6560-911)를 개설하여 장기기증과 관련된 상담도 받고 있다.

생명나눔실천회 대구지부는 대구 본리동 불교병원, 경북대병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고귀한 생명을 살리자는 홍보를 강화하여 3백여명 불자의 장기와 사후시신을 기증받고 있다.

종교인 순례단 북성금 기탁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공동대표 지선)는 4일부터 10일까지 북녘동포돕기 전국순례를 통해 모은 성금 4백51만6천7백80원을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 범국민운동에 기탁했다.

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 상임집행위원장 효림스님 등으로 구성된 종교인순례단은 특히 전국순례를 마감하면서 대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대북지원에 직접 나설 것 △기업과 언론에 대한 규제를 해제할 것 △민간차원의 모금활동을 지원할 것 등을 촉구했다.

연변동포에 '자비의옷' 전달

부산불교신도회 중국불교방문단(단장 임채수)은 14일 연길의 조선족 사찰 교각사를 통해 연변동포를 위한 자비의 옷 전달식을 가졌다.

방문단은 3월부터 연변동포를 돕기 위해 접수받은 1만여벌의 옷을 전달한데 이어 15일 북경의 중국불교협회를 방문 한·중 불교교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육군특수전학교 불교탄압 … 범불교대책위 구성

"대통령·국방장관 사과하라"

법당주변에 인분을 대량 뿌리고 법회에 참여하려는 하후생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여 물의를 빚고 있는 육군특수전학교 불교탄압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18일 교계 17개 신행단체와 '육군특수전학교 불교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원혜. 조계종 포교부장)'를 결성하고 국방부장관·대통령의 사과와 특수전학교장 박희만중령 하교대장 이진규소령의 전역조치와 군목사 장시용대위의 경고조치를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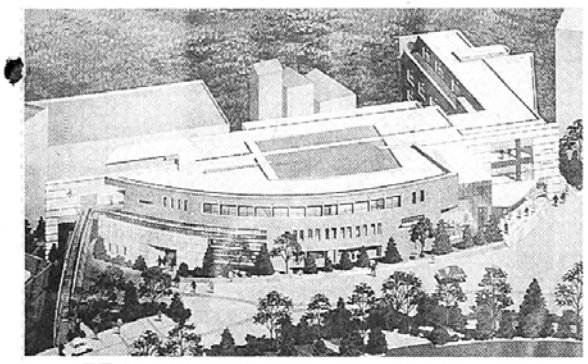
이날 불교탄압대책위는 △인분살포사건 책임자 색출 △군부대내 종교편향사례 시정및 대안마련 △24일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했으며 조치가 미흡할 경우 27일 국방부앞 규탄법회와 대대적인 불자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와함께 24일까지 각 단체 단위의 성명서 발표및 조계종 포교사단 차원의 국방부장관 면담을 요청키로 했다.

한편 국방부 박성대 군종실장과 육군본부 박욱병군종감은 18일 조계종 포교원을 방문하고 원혜 불교탄압대책위원장에게 "특수전학교 학교장 박희만 중령을 경고조치하고 하교대장 이진규소령과 군목사 장시용대위를 직위해제조치 했다"며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시인한다"는 공식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원혜스님은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며 "교육사령부의 인사조치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특수전학교 상급부대인 교육사령부 부사령관 이희완 소장은 13일 교계기자 간담회를 갖고 "예하 전 군교육기관을 철저히 조사해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장은 또 △관련 책임자 문책 △교육사 예하학교 종교편향조사 △불자들의 부대출입 안전및 종교활동보장을 약속했다.

간담회에서 교육사령부 감찰부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동안 실시한 자체감사 조사결과 "반성문은 사실이었으며 인성교육실시가 교회에서 목사에 의해 실시돼 전도한 것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반면 초파일을 앞두고 법당옆에 뿌려진 것은 인분이 아니라 오물찌꺼기였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이날 교계기자간담회에는 이희완 교육사령부 부사령관, 이치영 군종감, 육군본부 보도부장, 교육사령부 인사처장 군종실장, 박동진 김만한법사, 능인선원 12기동창회 이덕천회장, 박희만 특수전학교장을 비롯 학교 전 간부들이 참석했다.


◇동국대는 건평 2천1백50평 규모의 정보매체센터를 건립한다.

동국대 정보매체센터 건립
빠르면 내년말 완공 … 식당전용 건물도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에 정보화·국제화시대를 이끌 종합정보매체센터가 건립된다.

지난해부터 정보매체센터 건립을 추진해 온 동국대학교는 5월말 열린 이사회에서 현 역경원과 공대 농구장 자리에 건평 2천1백50평에 지하2층, 지상3층 규모의 정보매체센터를 건립키로 결의했다.

정보매체센터에는 각종 증명서를 한 곳에서 뗄 수 있는 종합민원실과 역경원 및 정보산업과학대학이 들어선다. 정보산업과학대학 시설로는 강의실 10개, 실습실 10개, 교수연구실 15개, 세미나실, 영상강의실 등이 마련되며, 종합불교도서관도 들어설 계획이다.

또한 과학관 뒷편 현 온실자리에는 건평 1천1백50평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식당전용건물이 건립된다. 1·2층은 학생식당, 3층은 교직원 식당으로 사용될 이 건물은 일시에 9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어 그동안의 식당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는 이달말경 설계가 완료되면 9월에 공사를 시작해 빠르면 98년 말에 완공할 계획이다. 따라서 두 건물이 완공되는 99년부터는 학생 및 동문들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미-사미니 습의 통일교재 추진
조계종 8월 행자교육원 적용후 최종안 확정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은 18일 과계사에서 습의 및 작법교안 편집 및 제13기 행자교육원 개원을 위한 습의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습의사 스님들은 사미, 사미니 강원별로 서로 달랐던 습의 및 작법내용을 통일한 강원교재를 만들어 오는 8월 개원하는 제13기 행자교육원에서 적용해본 후 다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목탁소리

김 원 우 〈취재1부 기자〉

"똥물좀 뿌렸다고…"

"뭐 똥물좀 뿌렸다고 자비의 종교에서 뭘 그러느냐." 국방부 군종실장 박성대신부가 18일 조계종 포교원을 방문하여 육군특수전학교의 인분사건을 이같이 비하했다.

이에대해 효종 연수실장이 "그러면 천주교성당에 똥물을 뿌리면 괜찮겠느냐"고 되묻자 그는 아무말도 못했다.

이제까지 군부대내 훼불사건은 수없이 많다. 근래의 일만 하더라도 모군함에서 불상을 바다에 빠뜨린 사건, 불상을 산에 내다버린 93년 육군 17사단 사건, 95년 국방부 대통령 예배사건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자들은 자비의 종교라는 미명하에 이제까지 수많은 것을 참고 양보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건도 당초 불교계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를 모색했으나 특수전학교 관계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오히려 민간인들이 들어와 시끄럽게 한다는 적반하장의 태도였다. 13일 교육사령부 부사령관이 주재한 교계기자회견에서도 능인선원 관계자는 군인들이 다칠것을 우려하여 초파일을 앞두고 뿌려진 것이 '인분'이라는 말을 하지않았다. 그러나 회담이 끝난 직후 부대 특정종교 관계자들은 사건이 해결된듯 축제분위기였고 오히려 불자들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것이 군부대의 생리였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육군특수전학교 불교탄압대책위는 계급이 선교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군부대에 자비의 강한 채찍을 들기로 했다. 또 대통령 국방부예배 사건때 더이상 편향정책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양호 당시 국방장관의 약속을 비웃기나하는듯 터진 이번 사건을 국민화합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단정지었다. 이번에는 군부대내 불교탄압을 종식시키는 철저한 대응을 기대한다.

이 시대의 불자가 꼭 읽어야 할 불교 입문 필독서!!

화제의 신간

일주문

일주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 부처님의 생애에서부터 기도하는 법, 업과 운명과의 관계, 불자 예절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교에 대해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 불교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배울 수 있게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 어려운 불교용어에는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 놓았고 불·보살의 모습을 싫어 이해하기 쉽게 엮어 놓았다.
- 불교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된 삶을 살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마음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신국판/ 윤지명 지음/256쪽/값 5,000원

※ 불교, 제대로 알기 — 일주문을 통해 들어가 보십시오.





이제 궁금증 뚝!!
오로지 대자유인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산문에 든 지 30여년

불교를 묻는 이에게

묵묵히 구도의 길을 걷는 선승 석원연스님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지혜와 깨달음의 이야기

나의 귀여운 딸, 민들레의 눈길은
진정한 불교의 모습에 접하고 싶어했습니다.
그것은 "팔만대장경"의 방대한 불경 속에 들어가
있는 불교가 아니고, 그리고 활개치는 승려들의
주장 속에 담겨 있는 불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고통스러워하는 내 딸 민들레의 인생살이 속에
스며 있는 불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했습니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

신국판/석 원연 지음/374쪽/값 7,000원

※ 전국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중입니다. 지금 만나보십시오.

대흥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101호
전화 / 738-6270, 735-7202 FAX / 733-1016

화제의 프로

BBS '아침을 열며'

깨달음 주는 선시로 출근길 즐겁게

학창시절 가장 싫어하던 시간이 아침 출근시간이다. 한조각 깨달음을 주는 선시(禪詩)로 아침을 여는 프로그램이 있어 화제다. 불교방송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7시10분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아침을 열며'(PD 박상필)가 바로 그것.

'아침을 열며'는 불교계 곳곳에 스며있는 문화 예술의 흔적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문학평론가인 김재홍 교수(경희대 국문학과)가 진행을 맡고 있다. 1부는 '오늘의 선시' '산사의 향기' '문화예술의 향기를 찾아서' 등의 코너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마련되고 토요일에는 '아침글방' 코너로 꾸며진다. 2부는 '불국토 초대석'으로 각계 인사를 초청해 이 시대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월요일과 토요일은 '리포터 초대석'으로 교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준다.

청취자들의 호응을 가장 많이 얻고 있는 코너는 단연 '아침글방'. 청취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 코너에서는 청취자들의 시나 편지를 성우가 읽어주고 김재홍 교수가 간단한 평을 해준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아침을 열며'와 함께 한다는 이은주씨(27·수유동)는 "낭랑한 음성으로 낭독해 주는 선시를 들으면 하루가 차분하고 즐겁다"며 청취소감을 말했다.

"답답할땐 절에가요"

개그맨 서동균

들뜬마음 다스려 '편한웃음' 선사
서영춘씨 아들 '연기 대잇기'

"아직 초보라 연기면에서 어색하고 서투른 점이 많지만 법당을 찾아 마음 다스리듯 편안한 웃음을 전파할 수 있는 개그맨이 되겠습니다."

떠오르는 샛별, 불자 개그맨 서동균씨(26). 우리나라 코미디계의 한 봉을 차지했던 故 서영춘씨의 2남3녀중 막내로 누나인 서현선씨와 같은 개그맨의 길을 선택했다. 그를 만나면 손목에 늘 차고 있는 단주가 먼저 눈에 띈다.

지난해 12월 KBS 코미디언 인턴1기로 선발, 3개월간의 연수를 거쳐 공채 13기 최종합격자 명단에 든 서동균씨는 대학시절부터 연예인으로의 꿈을 키워왔다.



◇축망받는 차세대 불자개그맨 서동균씨.

가족을 몰래 접수한 원서, 설마 합격할까 라는 의구심 때문에 가족한테도 비밀로 하다 1차에 합격하자 용기를 내 누나 현선씨에게 사실을 고백했다는 서씨.

처음엔 반대했던 누나 현선씨도 곧 이해해 주고 2차 시험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어머니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으나 3차 시험때 마음을 돌리고 격려해줘 이제는 모두 든든한 후원자라고.

"합격소식을 알았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가 더 힘들더군요"라며 한 가족이 같은 일을 하는 어려움을 피력했다.

학교(광운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군대에서 제대한 작년 8월. 진로 때문에 방황도 많이 했다는 서씨는 당시 마음이 스산할 때면 조계사를 찾아 마음을 달랬다. 어머니도 독실한 불자라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녀 절이 내집 같다는 서씨는 법당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지금도 아차산 영화사나 원주 국향사를 가끔씩 찾아간다고 한다.

서씨는 드라마 '용의 눈물'을 패러디한 '웃음천국' '이무기의 꿈' 코너에서 형조판서 역할로 데뷔했다.

"처음 화면을 통해 나오는 모습이 너무도 낯설어 내가 저렇게 생겼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차츰 익숙해져 가면서 모습보다는 연기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는 서씨. 요즘은 KBS 2TV '열려라 코미디'(월요일 오후8시35분 방송)의 '좋은걸 어떡해' 코너를 맡아 김미화씨와 한창 열연 중이다.

"코미디언 서영춘의 아들 서동균이 아닌 개그맨 서동균의 아버지 서영춘이라는 얘기를 듣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어요."

야무진 신세대 개그맨의 포부다.

강지연 기자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⑥⑨

♦ Whatever ties there are in this world constituting the way to folly, combined with ignorance, forming the seat of doubt, they do not exist before Tathagata, for he is the best eye of men.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속박이 있고 그것은 미혹으로 가는 길이고 무지와 의혹으로 인해서 있는 것이지만 완전한 사람을 만나면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만다. 그는 인간 중에서 으뜸가는 눈이기 때문이다.

♦ If a man does not for ever dispel the sin as the wind dispels a mass of clouds, all the world will be enveloped in darkness, not even illustrious men will shine.

바람이 구름을 걷어버리듯이 이분(부처님)이 번뇌의 티끌을 털어버리지 않는다면 온 세상은 뒤덮이어 암흑이 될 것이다. 빛을 가진 사람들도 빛을 내지 못할 것이다.

♦ He whose ideas of omens, meteors, dreams and signs are destroyed such Bhikkhu who has abandoned the sinful omens, wanders rightly in the world.

길조의 점, 천지이변의 점, 해몽, 관상 보는 일을 완전히 버리고 길흉의 관단을 버린 수행자는 세상에서 바르게 편력할 것이다.

♦ Let the Bhikkhu subdue his passion for human and divine pleasure, then after conquering existence and understanding the Dhamma, such a one will wander rightly in the world.

수행자가 생존을 초월하고 이치를 깨달아 인간계와 천상의 모든 향락에 대한 탐욕을 버린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편력할 것이다.

♦ He who is not opposed to any one in word, thought or deed, who, after having understood the Dhamma perfectly, longs ofr the state of Nibbana such a one will wander rightly in the world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거역하지 않고 바르게 법을 알아 열반의 경지를 구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편력할 것이다.

*dispel (v) (근심·의심 등을) 없애다
*illustrious (a) 저명한, 빛나는
*omen (n) 예언, 예시
*meteors (n) 천지이변, 유성우
*deed (n) 행동, 업적

주부신행담

가족지켜준 부처님

차사고로 두 아들 병원신세
믿음으로 가해자 용서하며
부처님 자비 깨닫는 기회

19

95년 11월 24일.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고 온몸이 떨린다.

목포 법주사 법회가 있는 날이었다. 서둘러 공양미 향 초 등을 챙겨 절에 갔다. 왠지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여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바쁘게 움직였다.

절에 도착해 주지스님을 뵙고 법당에 가려고 하는데 스님께서 "보살님, 오늘 오후 3시에 재(齋)가 있는데 시간이 있으시면 수고 좀 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동안 바쁘게 살다보니 절일을 많이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흔쾌히 그러겠다고 말씀드렸다.

오전 10시 법회가 끝나자 신도들이 공양하러 가느라 하나둘 법당을 빠져나가는데 어찌된 일인지 내 몸이 순간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잡아 당기는 듯 했다. 그러나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애써 법당을 나오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진공청소기가 먼지를 빨아 들이듯 난 그렇게 법당을 나올 수가 없었다.

갑자기 겁이 덜컥 났다. 그동안 남들에게 해를 안끼치며 열심히 살아왔지만 엄습해 오는 두려움을 모면할 방법이 없었다. 나는 그저 절을 하기 시작했다.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절을 하는 동안 알 수 없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마음 한 구석엔 싸늘한 바람이 불어 왔다.

그제서야 법당을 나와 재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재를 준비하면서도 두려움을 없애느라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염했다. 오후 3시, 재가 시작되었다. 재가 진행되는 동안 난 또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이유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막아낼 도리가 없었다.

재를 끝내고 재를 지낸 노부부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노부부가 큰 길가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다며 얘기를 했다. 그 노부부는 아마 오토바이에 탄 사람은 죽었을 거라며 끔찍해 하셨다.

아! 그 현장을 지나다 보니 남편 오토바이 번호판이 떨어져 있는게 아닌가. 경찰차가 와 있었고 견인차가 사고차를 견인해 가는 중이었다.

"아니, 왜 우리 남편 오토바이가 여기 있지?"

"어른이 아니고 학생 둘이던데요."

같이 집으로 가보자던 경찰의 말은 아랑곳하지않고 난 내 눈으로 확인하려고 집으로 뛰었다.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를 달리는 느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할 뿐이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에 쪽지가 꽂혀 있었다.

"어머니께 연락하려고 여기저기 전화해 봤지만 연락할 길이 없어 몇자 적습니다. 저는 지금 동생때문에 기독교 병원으로 갑니다. 오시는대로 병원으로 빨리 오세요. 딸 올림."



그림 · 이준석

조카들의 부축을 받아 병원에 도착해 보니 두아들 배형이와 기선이가 응급실에 누워 있었다. 큰 아들 배형이는 얼굴 모습을 몰라 볼 정도였고, 온몸이 멍가져 있었다. 다행히 기선이는 형보다 나은 형편이었다.

저녁때쯤 사고승용차 기사가 왔다. 그러나 그 사람말이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우리 아들 나이가 16세 무면허이기 때문에 가해자고 자기가 피해자라며 화를 냈다. 사고가 어찌 되었든간에 사람이 다쳐 누워 있는데 손실만 따지는 그 사람이 야속했다.

그러나 아무말 않고 '관세음보살'를 염하며 부처님께 의지할 뿐이었다.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기사는 전과기록이 많은데다 차도 자기 차가 아니었고 술 주정하다 경찰에 또 잡혀오는 일도 생겼다. 우여곡절 끝에 그 사람 친구들의 부탁으로 합의서를 써 주고 깔끔하게는 아니지만 해결을 보게 되었다.

두달동안 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 한 사람을 용서하는 동안, 그리고 내 아들들을 이해하는 동안 나는 '자비'에 대한 부처님의 뜻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었고, 믿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이 글이 일방적인 내 가정사를 얘기한 것이긴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느낄 수 있었다.

이양심 〈전남 목포시 용해동〉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教史料!

96년판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발간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1호에 이어 합본 '96년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주옥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매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셨던
분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합본집('96년판) : 제 60호(1996. 1. 3)
제108호(1996.12.25)
■ 가격 : 50,000원(발송비 별도)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

한정된 수량 관계로 선착순 판매 합니다.

(주)현대불교신문사 (代)737-8881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97 문화유산의 해

조각기능 지정문화재 이진형 선생이 재현한
국보 제 83호 축소모형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 청동 100%
·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 높이 40.5cm

■ 보급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2,737-8881

■ 지역 구입 문의 인산 (0345)411-4580 목포 (0631)281-2534 부산 (051)634-5114 광주 (062)375-9986
속초 (0392)636-3923 인천 (032)461-3461 강릉 (0391)651-9317 영주 (0572)34-3429
대구 (053)768-8008 대전 (042)625-1080 공주 (0416)55-0020
마산·창원 (0551)84-0735 진주 (0591)747-0106

■ 불교문화의 정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 개인소장용으로 간직하실 수 있는 더없는 기회입니다. ■